



12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12호

(루계 제734호)

## 차 례

우리의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	3
《폐문촌》 .....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5
주작봉마루에서 .....	5
새봄의 메아리 .....	6
어머니의 당부 .....	15
주체문학의 대강 .....	16
《작식전투》 .....	16
총대사상을 힘있게 구현한 불멸의 노래 《자장가》 .....	17
첫 군기 .....	18
아침에 대한 생각 .....	19
한해가 흘렀다 .....	20
야전오락회 좋다 .....	20
아버지의 모습에서 .....	21
모란봉 너는 내 사랑 .....	22
체험의 진실성과 향토애의 서정 .....	23
영원히 총과 함께 (외1편) .....	28
비행사와 땅 .....	28

최고사령관과 신입병사들.....	29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를 지켰다 .....	30
《우리 가정 수첩》 .....	30
일터소묘 .....	30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를 지켰다 .....	31
선군시대와 조국애 .....	32
내 고향 벌에 아침해 솟을 때면 .....	35
노을은 불란다.....	36
어머니의 모습.....	43
8년만에 쓴 첫 편지 .....	44
위인의 품모속에 펼쳐진 민족의 길은 향취 .....	46
청춘직동에 부치여 .....	47
기 초.....	48
두 세대의 웃음 (외1편).....	54
거수경례 .....	54
옛작업반장의 모습 .....	55
말아들 .....	62
래일 .....	63
리상적의 소설 《가래 멘 장님》에 대하여 .....	72
이삭아.....	73
쌀띠꼬브—쉐드린과 그의 창작 .....	74
탐사대원의 노래 .....	75
《꽃왕을 충고한다》 .....	76
내 고향의 밝은 표정.....	77
향토 .....	78
명성이 있어 화를 면하다.....	78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부른다.....	79

# 우리의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김춘길

한없이 뜨거운 눈길들여  
승엄히 우러르는 최고사령관기  
그 기발 바라보는 가슴마다에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그 자욱 어려와  
조용히 부르는 그 이름  
우리의 최고사령관

내 나라의 저 푸른 하늘가에  
힘차게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  
잊지 못할 12월의 그날  
우리 장군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던  
그날의 환호성이 오늘도 들려와  
천만군민이 우러러 뵈는 자애론 그 영상

그이를 높이 모신 민족의 이 영광  
그이를 어버이로 모신 인민의 행운  
세상에 더없이 위대한 그이 높이 모신  
12월의 이날이 있어  
내 조국의 찬란한 오늘이 있고  
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이 있거니

우러르는 가슴마다 뿔뿔이는것은  
가장 준엄하던 그 나날  
백두산총대를 높이 드신 그이의 모습  
전선길에서 낮과 밤을 이으시며  
한 공기 죽으로 끼니를 예우시던  
그 애국헌신의 장정이 떠올라  
눈굽은 찢릿이 젖어들어라

정녕 잊을수 없으리라  
눈덮인 철령의 아슬한 벼랑길  
오성산의 하많은 굽이굽이 험한 령을  
한치한치 뚫아오르실적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그 길에서 수호되고

민족의 존엄이 세상에 펼쳐졌거니  
불과 불이 마주선 최전선  
병사들이 있는 곳에 그이 계시었다  
그이 거룩한 자욱이 어린 곳마다에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의 대오가  
결사옹위의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조국을 위해  
수령님 말기고 가신 그 인민 위해  
선군의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강성대국의 찬란한 그 언덕에  
우리 조국을 올려세울 필승의 신념 안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가시는 전선길 전선길

그 길에서 이룩된 전변이여라  
공장과 농촌 병사들이 지켜선 초소마다  
기적의 변혁은 그 어디서나 일어나고  
장군님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의 힘  
천백배로 펼쳐주는  
우리의 최고사령관기여

12월의 창공높이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를 보며 인민은 생각하노라  
강성대국언덕에서 누려갈 참된 행복을  
장군님 모시고 길이 번영할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보노라

승리의 진두에 높이 휘날려라 최고사령관기여  
영광이 있으라 불패의 혁명무력이여  
세월의 년륜은 천만번감긴다 하여도  
12월의 이날있어 영원히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신 선군조선하늘가에  
승리의 기발로 힘차게 나뭇기리라  
최고사령관기여!

## 《폐문촌》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혁명전설들 가운데는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명장이다. 왜놈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싸다니다가는 천벌을 받는다.》라는 전설도 있다.

그것은 실지 있는 사실에 기초한것인데 그중의 하나인 울기강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제6권 《울기강에서》에 담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울기강전투를 회고하시면서 그 전투에서 쓴 맛을 본 다음부터 적들은 감히 그 골안에 얼씬거리지 못했다고, 그때부터 인민들은 울기강류역의 마을들을 폐문촌이라고 불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주체28(1939)년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내고 울기강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제침략자들은 부랴부랴 저들의 《정예부대》들을 출동시킨다, 비행기를 띄운다 법석 떠들었다. 중국 화북전선에서 특출한 《군공》을 세워 《표창》이라는것을 받았다는 일본군장교가 백일평에 도착하여 《토벌》대를 지휘한다는 정찰자료가 사령부에 들어왔다. 그 장교는 일본본토로 휴가를 가던 길이었는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안도와 화룡땅에 나타나 집단부락들을 쳐갈긴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황군의 수치를 씻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일평의 적들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울기강쪽으로 유인하여 일격에 섬멸할 전술을 짜시였다.

먼저 밤에 유인대가 하루종일 《토벌》에 돌아치다가 지쳐서 자고있는적들을 불의에 들이치고는 인차 돌아섰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적들이 다른 굽으로 헛갈려 들어가지 않도록 일부러 모닥불을 피워놓아 고스란히 아군의 매복권안에 끌려들어오게 하였다.

어떤 함정이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지 전혀 모르는 중무장을 한 수백명의 적들은 여러정의 기관총을 앞세우고 살기등등하여 울기강기슭을 따라 뒤쫓아왔다.

모든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데로 되어갔다.

유리한 지점에 매복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적들이 매복권안에 완전히 들어서자 일제히 불벼락을 안기였다.

울기강기슭의 갈대숲은 삽시에 적들의 더러운 시체로 뒤덮였다. 휴가도 가지 않고 조선인민혁명군 《토벌》에 나섰던 일본군장교는 쓸데없이 우쭐령거리다가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수백명의 《토벌》대가 10분안팎에 몽땅 녹아나자 뒤따라오던 적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버렸다.

적들은 이 전투를 통하여 어찌나 혼이 났는지 다시는 이 골짜기로 기여들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인민들은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긴 촌이라는 뜻에서 울기강류역의 마을들을 폐문촌이라고 불렀다.

울기강전투승리의 통쾌한 소식은 날개가 돋친 듯 파다하게 퍼졌다.

그때 인민들속에서 터져나온 격정의 목소리를 회상기필자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였다.

《이제는 왜놈들이 망할 날이 오래지 않아.》

《더 여부가 있다. 그간 놈들이 날고 편대야 백두산천기를 타고나신 김일성장군님을 당할 재간이야 있다. 아무리 날쳤대야 하늘에 손가락 겨누기지.어림두 없지.》

《이제 좋은 세상이 꼭 오겠지요. 암, 꼭 오구말구. 우리 장군님이 계시는데 그 왜놈들이 어디라구. 아무데나 함부로 싸다니다가야 큰 벼락을 맞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또 하나의 혁명전설이 태어난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해방후 언제인가 녀기자들이 김정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그들에게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주십시오. >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속에 김정숙의 남다른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작봉마루에서

염득복

향기그윽한 꽃다발 정히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 올랐노라  
어머님 계시는  
주작봉언덕우에

12월의 눈은 내리고내려  
어머님어깨우에도  
내 머리우에도  
소복이 쌓이는 이 아침

어머님은 마치도  
이 딸을 품에 안고  
다정히 머리도 쓸어만져주시며  
정히 옷깃도 여머주실듯

금시라도 환한 미소 지으시며  
주작봉을 오르는  
천만자식들의 발자욱소리  
어머님은 다 들으시며  
반겨맞아주실듯

듣습니까 어머님  
이 한해 조국위해 해놓은  
가지가지 자랑들을 안고  
저마다 아뢰이는 속삭임들을

누구는 과학적발명으로  
세상을 놀래운 이야기  
누구는 대홍단의 감자농사이야기

또 누구는 한드레벨 선동원처녀의 뒤를 이어  
농장별로 탄원한 이야기...  
아,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한두마디 말로 어찌다 아뢰이리까  
피바다 불바다 만리를 헤치시며  
갖은 풍파 다 겪으신 우리 어머님

어머님께서 헤쳐오신 그 로고에 비기면  
우리 해놓은 일 그 무엇이리까  
서른두해, 너무도 젊은 나이  
하지만 어머님의 한생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귀한 한생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하여주는  
선군위업의 대를 튼튼히 이으시고  
수령님의 안녕 위해  
자신을 다 바쳐오신 어머님  
그 위대한 업적  
내 무슨 말로 다 노래하리까

아 한생불러 다함없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은 지금  
밝아올 새해의 진군길우에  
조국의 무궁번영할 미래를 엮어주시며  
힘차게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대오앞에  
선군의 붉은기앞에



# 1

마당을 쓸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봄의 정기에 심취되어 가끔 주위를 둘러보곤 하시었다. 조국해방작전을 앞두고 전부대적인 사격경기로 성황을 이루었던 훈련기지에서의 이맘때는 눈이 쌓여있었고 강기슭 봇나무숲에는 서리꽃이 하얗게 피곤 하였다. 그런데 저택옆 산기슭에는 벌써 진달래가 빨갭게 눈을 뜨고 반가웁다 웃는다. 이제 며칠이면 온 평양이 진달래, 살구, 단벚... 꽃구름속에 묻힐것이다. 벌써 해방된 조국에서 세번째 봄을 맞고계시건만 그이한테는 이 류달리 이르고 화창한 평양의 봄이 마냥 신기하고 황홀하게만 생각되신다. 오랜 세월 만주벌 눈바람을 헤치며 애타는 기다림속에 늦은 봄을 맞곤 하시던 타성때문일가.

정문쪽에서 누군가 급히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그이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었다. 키가 크고 안색이 늘 엄숙해보이는 경위소대장 리병옥이 거수경례를 한채 머뭇거리고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 반겨주시었다.

《오늘 새벽 협주단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

경위대청사뒤의 문화회관이 협주단청사여서 리병옥이 립시로 그들에게 군사교육을 주고있었다.

《그래서요?》

《무슨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병옥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비상소집시 행동질서에 대해 상학인들 적게 하고 훈련인들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불의에 항공정황을 주었더니 헛참.》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20분나마 걸렸습니다.》

## 조창근

김정숙동지께서는 내심 놀라시었다. 얼른 리해되지 않으시었다. 물론 그들은 각이한 예술단에서 모여온 배우들이고 창설초기여서 군사적면모는 서지 못하였다. 또 그들의 장구류란 기본전투원과 달라서 각종 악기들과 의상들, 무대장치물과 소도구들이다. 그렇다고 해도 비상소집인데 20분나마 걸릴수는 없지 않은가.

《리유는 무엇이예요?》

《영숙이때문입니다.》

《영숙이?》

《예, 다들 나와 정렬했는데 병실에서 어디 나오니까. 그래 들어가보았더니 캄캄한 어둠속에서 뭘 찾는지 침대밑을 정신없이 뒤지고있지않겠습니까.》

《뭘 뭘군 모양이군요.》

《모르겠습니다. 통 말을 안합니다. 물어보면 눈물부터 짜면서... 아무래도 영숙이는 군복이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조준련습때에는 총만 쥐면 우들우들 땀니다.》

리병옥은 아주실망한 표정이었다.

《소대장동무, 첫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우리가 잘 도와주자요. 나도 자주 나가보겠어요.》

리병옥이 돌아간 다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마당을 쓸고계시었다. 영숙이...

그가 무엇을 잃었을까. 비상소집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 귀중한것, 잃어서는 안될 물건을 뭘구였을것이다. 복새통에 그런 일은 있을수 있다. 그런데 왜 터놓고 말하지 못할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귀중품일까?

김정숙동지께서 영숙이를 알게 되신것은 재작년봄이었다. 중구 남문리에 탁아소로 쓸만 한 건물이 있다기에 길을 아는 리병옥을 앞세우고 가시던 길에서였다.



평양의 중심을 이루는 본정거리, 증산정쟁운동이며 문맹퇴치를 호소하는 표어들이 곳곳에 나붙고 전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물결치며 봄비는 거리, 그속에서 유독 길길을 잃은듯 우두커니 서있던 한 처녀...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의 람루한 행색이 눈에 띄이는 순간 무춤 걸음을 멈추게 되시었다. 팔굽이 꺾여 맨살이 보이는 토목저고리, 손에 든 먼지오른 검정보통이, 엄지발가락이 내밀린 터진 고무신... 처녀는 열여덟살 되었을가. 왜정때 《이대약국》이라고 불리우던 2층벽돌양옥집앞에 멍청히 서서 담벽을 쳐다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뜸 가슴이 저려나시었다. 귀녀도 어디선가 저렇게 방황하고있지는 않는지, 살아나 있는지, 살았다면 저 나이는 되었으련만... 처녀애들을 보면 귀녀 생각이 몽클 치솟고 사내애들을 보면 조카애 생각에 가슴아픈 그이이시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귀녀도 조카애도 나타나지 않는다. 생사여부조차 알길이 없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처녀한테로 향해지었다. 그리고 처녀가 쳐다보고있는 담벽을 보게 되시었다. 거기에는 조선무용연구소에서 낸 인원모집광고가 나붙어있었다. 나이 16~20살사이의 처녀들로 무용희망자는 누구나 응시할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얼핏 스쳐보고 지나가곤 하였으나 그 처녀만은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비로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가 행색은 초라하나 육체가 있는데 눈길이 가시었다. 몸매가 날씬하고 균형이 잡히었다.

《무용을 하고싶은게군요.》

그이께서는 넌지시 말씀을 건네보시었다.

광고문에 정신이 팔렸던 처녀는 와들 놀라며 몸돌바를 몰라했다. 가름한 얼굴에 활짝 피는 홍조와 어데 돌지 몰라하는 쌍까풀진 눈에서 허둥거리는 눈길이 섬세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있었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영숙입니다.》

맑고 랑랑한 목소리인데 복관억양이 짙었다.

《북쪽에서 왔군요.》

《예.》

《성은 뭐나요?》

《...》

처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터진 고무신앞코숭이로 내밀린 발가락을 감추느라 애쓰고있었다.

《어디서 살았어요?》

《화대...》

《먼데서 왔군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저... 고향을 모릅니다.》

《부모님은?》

《...》

《화대에서 여기까지 천리길인데 어떻게 왔어

요?》

처녀는 부끄러운듯 귀밑을 붉히면서도 차츰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화월관이라는 술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해방되자 주인너자는 남으로 달아나고 군에서는 집을 몰수하고 전 함흥바닥으로 해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양에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저 떠돌다나니...》

《몇살이에요?》

《열여섯 아니, 열일곱...》

고향도 부모도 성도 모르고 나이조차 어림짐작으로 아는 처녀였다. 하긴 우리 조카애나 귀녀도 살아있다면 제 나이를 알수 있을가.

《무용을 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마— 그저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 처녀에게는 당장 먹고 잠잘수 있는 일자리가 급선무일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병옥을 돌아보시었다.

《병옥동무, 무용연구소를 알지요?》

《경상골어귀 2층다락집 말입니까?》

《웁아요. 이 영숙이를 거기에 데려다주고 오세요. 무용가로 키울수 없겠는지 인물심사를 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보냈다는 말은 말고.》

리병옥은 망설였다. 그이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임무의 중요성도 버릴수 없었다.

《내 걱정 말구 어서가봐요. 영숙이, 이 군인동무를 따라가세요. 가서 무용을 하고싶다고 말해보세요.》

영숙이는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있고 리병옥은 할수없이 건물위치를 자상히 알려드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따라오우.》

영숙이는 그이께서 고무하듯 던지는 따뜻한 눈길에 힘을 얻은듯 머리숙여 인사드리고 리병옥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홀로 남문리로 가시면서 영숙이의 정상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잘먹이고 잘 입혀 내세우면 어느 처녀보다 돋보일 그가 술집에서 갓은 천대를 받다가 해방된 오늘까지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는것이다. 불쌍한 생각때문인지 처음 보는 처녀가 낯설어보이지 않는것이 또한 이상하시었다. 어디선가 꼭 보신듯 한 눈빛과 생김새였다. 어디서 보았더라? 이모저모로 옛기억을 더듬어보셨으나 종시 아리송하였지만 마음은 차츰 즐거워지시었다. 좋은 예술인후비가 또 하나 나타났다는 생각에서였다. 얼마전 장군님께서는 인민군협주단도 빨리 내와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 뜻을 헤아린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예술적재능의 싹을 발견하고 키우고계시었다.



영숙이도 그러한 그이의 눈에 우연히 비쳐든 처녀였다. 천대숙에서 자라 그렇지 잘 가꾸어 내 세우면 얼마든지 무용을 할 수 있을것 같으시었다.

탁아소로 쓸 건물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늦어서 댁에 돌아오시니 리병옥이 이미 와 기다리고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리병옥은 기분이 좋아 말씀드렸다. 무용연구소 소장을 만났는데 대단히 반가와하더라는것이였다. 까만 무용훈련복을 입고 창작중이던 그는 처녀의 생김새를 뜯어보더니 《자—눈깔고 대동강을 내려다봐요.》, 《팔을 들었다가 굽혀보지요.》, 《고개를 외로 틀어봐요. 좀더 가웃이— 날 봐요,요렇게.》, 《다리를 들어봐요. 더! 더! 온— 부끄럽타긴.》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러더니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찾아냈느냐고 자꾸 캐묻기에 사연을 털어놓지 않을수 없었다고 하였다. 소장은 《너사님께서? 너사님께서 손수…》 하며 몇번이고 외우더니 너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달라고, 너사님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영숙이를 키우겠다고 말씀올려달라고 하였다는것이였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용연구소에 나가실적마다 영숙이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시였고 그러면 학교선생님한테서 제 자식 칭찬을 듣는 학부모의 심정이 되곤 하시였다.

그런 영숙이가 협주단에 가서 군복을 입은 다음부터 말밥에 오르는것이였다. 그들의 《교관》 격인 리병옥의 입에서 영숙이가 군사훈련을 꺼려하고 총을 무서워한다느니, 춤밖에 모르는 예술지상주의자라느니, 속이 썩해서 동무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나오더니 오늘은 비상소집시간을 엄청나게 지체시켰다는것이다. 살아온 경력으로 보나, 협주단성격으로 보나 핵심이 되어야 할 영숙이가 그런 말을 듣는다니 김정숙동지께서는 못내 피로우시였다.

영숙이… 그가 무엇을 잃었을가. 부모없이 고아로 자랐으니 물려받은 귀중품은 없을것이다. 아니 혹시 있을수도있지 않는가. 부모들이란 가혹한 정황의 생리별속에서도 자식들에게 표적을 남겨두는 법이다. 그렇다면?

방안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그이께서는 일손을 멈추시였다.

## 2

《김정숙입니다. 아니, 림춘추동지구만요!》

작년 여름에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을 위해 동북으로 들어갔던 림춘추가 걸어오는 전화였다. 그는 귀국하는 길에 연길땅을 거쳐 두만강지구를 살살이 훑고 지금 남양에 도착했다고했다.

《어디 편치 않은건 아닙니까?》

《원 무슨 소릴… 명색이 유격대군의가 아니요.》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뭇 근심이 되시였다. 그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없고 침울한 기분이 느껴졌던것이다.

《정숙동무,아직 중요한 일을 마무리짓지 못해그립니다. 장군님께 한 열흘만 더 있다가 도착하겠다고 말씀올려주시오.》

《중요한 일이라니? 장군님께서 림동지의 사업을 보고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세가 긴장하니 빨리 돌아와 군의국 사업을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송수화기에서 림춘추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숙동무, 아직 귀녀랑… 그 애들을 찾지 못해그립니다. 연줄을 밟아 여기까지 왔는데 동해안일대까지 뒤져야 할것 같습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였다. 작년에 떠날 때 김룡준의 자녀들인 귀녀와 귀돌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던것이다. 김룡준은 웅변이 좋고 춤 잘 추는 선동가였다. 오라버님과 함께 팔도 구광산에서 폭약과 무기구입공작을 하던중 체포되어 룡정감옥에서 희생되였다. 그의 안해와 젖먹이 딸애인 귀녀, 5살짜리 귀돌이가 중촌 막바지골안에서 살고있었다.

《중촌골안이랑 가보셨겠군요.》

《예, 끝안어귀 도가집이랑 울긋불긋한 천쪼박을 걸어놓았던 액막이짚팡이나무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흔적조차 없더군요.》

《16년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겨우 알아낸것이란 룡준동무의 본명이 김바우라는것과 고향이 칠보산부근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귀녀와 조카애도 <토벌>에서 살아난 늙은이들의 손에 이끌려 조선땅에 나오지 않았을가 하는 추측입니다.》

《예?!》

림춘추의 말에서 불쑥 튀어나온 조카애소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흠칫 놀라시였다. 림춘추가 자신 몰래 조카애까지 찾느라 뛰고있는것이다! 잠결에도 가슴허비는 조카애, 가슴속에 묻어만 둔 애끓는 그 심증을 림춘추가 헤아려 몰래 수고를 바치고있는것이다.

(고마워요, 림동지.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숨을 멈추었다가 혼연히 물으시였다.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예. 여기 남양에 부암동 <토벌> 때 용케 살아남았다는 할머니가 한분 있었는데 웬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질 않습니까. 그 애의 목에는 삼끈에 매단 빗이 걸려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빗이라구요?! 어떤…》

김정숙동지께서는 느닷없이 가슴이 후두두 뛰는 것을 느끼시었다.

《엘레빗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쪽짜리랍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걱정이 뚫어오르시었다.

《림동지. 그건... 그건...》

《아니 왜 그러니까?》

《그건 심중팔구 귀녀나 귀돌일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무조건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10년전에 죽고 데리고있던 아이도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팔찌산이 그 애를 못 찾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림춘추는 장담했다. 하지만 모래밭에 물이 습센 듯 한 그 애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행적이 전혀 없는 조카애는 더욱그렇다. 림춘추가 조카애를 찾느라고 연길현으로부터 두만강지구를 헤매는 모습이 눈에 선하여 그이께서는 목이 메시었다.

《림동지, 조카애에 대해서는 더 마음쓰지 마십시오. 귀녀를 찾아보고는 곧 오십시오.》

전화를 마친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마당에 나와 점도록 걸상에 앉아계시었다.

머리우에서 봉봉—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드시니 꽃도 피지 않은 살구나무에 벌들이 달라붙고있다. 금빛날개를 해빛에 반짝거리며 발그레한 꽃망울에 달라붙었다가는 또 옮겨앉는다. 꿀냄새는 나는데 안타까운 모양이다. 생을 위한 투쟁이다. 벌들도 저러하기를 하물며 사람임에랴. 조카애를 업고 뛰어나니던 피어린 추억들—눈물과 피와 땀에 젖었던 하춘, 중춘, 상춘, 동골... 부암동의 길과 강, 숲과 골짜기, 마을과 밭들이 눈에 삼삼히 밟혀오시었다.

×

《우지 마,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웅치. 잡자리 잡아줄가, 벌나비 잡아줄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배고파 우는 조카애를 업고 달래며 중춘으로 가고계시었다.

《우지 마, 우리 아가. 벌나비 곱지, 잡자리 곱지.》 하면서도 잡자리 잡아줄 생각은 없으시었다. 요전번 기승이가 잡아온 잡자리를 쥐여주며 멀리다가 애기가 덩석 입에 넣는 통에 기겁하셨던 것이다. 보면 보는대로, 쥐면 쥐는대로 입에 가져가는 애기였다.

오늘은 걸음이 가벼우시었다. 왼손에는 미역 한 타래가 든 보자기를 드시었다. 매번 갈적마다 낫색 한번 달리 않고 《에그—엄마 잃은 하춘애기 오는구나. 오늘은 왜 이리 늦었나? 애기가 얼마나 배고플가.》 하며 귀녀를 밀어내고 조카애부터 받

아안은 무던한 아주머니여서 더욱 미안스러우시었다. 어떤 때는 그 집 발김을 매주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먹을 것이 없어 허약해진 너인에게 조카애를 내미는 것이 정말 딱하시었다. 그 심정을 헤아린 오라버님이 지하공작을 하는 팔도구광산에서 구하기 힘든 미역을 들고오신 것이었다.

《원, 이런 고마울데라구야. 이 귀한걸 어디서 구했어요? 쫓쫓, 그냥 올게지. 난 이 엘 낱고도 미역국 변변히 못 먹어봤다오. 애아버지는 옥살이를 하지... 고마워요, 정숙이. 정말 이 신세를...》

너인은 미역 한타래를 놓고 눈물부터 흘리었다. 남에게 준것은 생각지 못하고 받은것만 생각하며 고맙다고 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조카애를 받아안고 돌아앉으며 일렀다.

《귀녀야, 하춘애기 젓 좀 주자, 응? 엄마없는 동생이 불쌍하지, 응?》

포대기에 누워있던 딸애가 의심어린 눈을 말뚝거리며 제 어머니와 조카애를 뵈히 살펴보고있었다.

《귀녀야, 이리 온. 아지미 머리 빗겨줄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것을 담쑥 안아드시었다. 저고리안섶에서 손바닥만 한 엘레빗을 꺼내드시고 형클어지고 엉켜붙은 귀녀의 머리를 빗어주시기 시작하시었다. 어린것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다가 머리가 간지럽고 시원한지 해죽거렸다.

《좋지, 응? 자, 뒤머리도 곱게 빗지요.》

어린것의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빗어주시는 김정숙동지의 눈앞에는 엘레빗만 커다랗게 얼른 거리었다. 왜놈의 《토벌》에 불타서 무너진 집터, 재가 된 가산과 함께 숨진 어머니와 형님, 그대 조카애는 잔등에 업고 산에 올라가 분단모임을 하신덕에 살아날수 있었다. 피눈물을 삼키며 재무지를 헤집던 그이께서는 용케도 《살아남은》 엘레빗을 발견하시었다. 어떻게 되어 마당에 던져졌는지 거뭇게 그을은 흙밑에 반쯤 묻혀있었다. 거뭇거뭇 연기에 그슬리고 두번째 살이 부러졌다. 온 가족의 체취가 짙게 배인 빗, 유일한 재산으로 남은 단 하나의 엘레빗... 그 빗으로 어린것의 머리를 빗어주시는 그이의 가슴은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하시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쑤를 갚을가. 어떻게 하면...

조카애에게 젓을 먹인 너인은 방구석의 뒤주를 열고 부스럭거리더니 흰쌀 한웅큼을 꺼내 보자기에 쏟았다. 김정숙동지께서 닝큼 놀라 만류하시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주머니가 건강해야 애들도 잘 키울것 아니예요.》

밀고당기며 한참 싱갱이질을 하시었다. 나중에 너인이 성까지 냈다.

《내 오지 말라는 생각으로 이러는게 아니요. 쌀가루라도 내서 암죽이라도 쑤어 먹여요. 밤에 보

첼 때는 어찌겠나요. 단것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너인의 오해를 살것 같아 반  
오시였다. 대신 얼레빗을 넘겨주시였다.

《아주머니, 저에게는 이 빗박에 없구만요. 이것  
으로 귀녀의 머리라도 자주 빗어주세요.》

너인은 한창 피는 나이에 빗이 없으면 어찌겠  
는가고 굳이 사양하였다. 밀고당기며 또 싱갱이질  
을 하시였다. 나중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빗을 손에  
감아쥐고 힘을 주시여 푹 꺾으시였다. 아연해진  
너인의 손에 반쪽짜리 얼레빗 한토막을 쥐여주며  
티없이 웃어보이시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조카애를 업고 돌아오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  
은 날것만 같으시였다. 어서 가서 쌀가루를 내실  
생각, 사랑대신 수수엿이라도 구해 단맛을 돌굴생  
각으로 오솔길을 질러 달리시였다. 떨기나무숲을  
에도시던 그이께서는 무춤 멈춰서시였다. 저게 무  
얼가? 덩불사이로 새빨간것이 얼추 눈에 띄이시  
였다. 자세히 보시니 산딸기! 산딸기가 아닌가. 덩  
불뒤는 으스스한 웅덩이인데 경사진 번두리로 축대  
와 함께 빨강게 익은 딸기가 한벌 덮여있었다. 철  
지난 딸기가 아직도 있다니? 아마 햇빛이 잘 스  
며들지 못해 늦게 익은 모양이다.

(딸기야, 네가 우리 애를 살려주는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카애를 길섶에 눕혀놓고  
덩불속을 헤치며 딸기를 따시였다. 가시에 손등이  
찔리우고 팔목을 할퀴면서도 신이 나시였다. 퍼그  
나 많은 량이였다. 담을 그릇이 없어 포대기에 싸  
고 애기는 가슴에 안으시였다.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 넥타이

...

노래를 부르시였다. 세상은 암담해도 래일의 희  
망이 있는것이다. 하루하루 커가는 조카애의 모습  
이 그대로 기쁨이요, 락이였다. 허나 《엄마》라는  
말을 번지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던 그 귀여운  
것과 영영 리별하리라고 꿈엔들 상상하실수 있었  
으랴. 오라버님과 조카애와 리별하시던 11월의  
그 음산하던 새벽, 《토벌》의 불길이 부암동의 하  
늘에 충천하던 그 새벽을 추억하시는 그이의 눈  
에 비분의 눈물이 어리였다.

머리우에서 별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더욱 왕성  
해졌다.

### 3

아카시아숲에 둘러싸인 해방산정점에 경위대의  
훈련장이 있다. 협주단도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 요즘은 첫 실탄사격을 앞두고 조준련습에  
박차를 가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짬을 내시여 그들을 찾아가

군하시였다. 매번 가실적마다 영숙이를 먼저 찾게  
되시고 그의 일거일동에 원심이 썩여지셨다. 립춘  
추로부터 남양으로 피신해온 할머니이야기를 들  
으신 다음부터 할머니가 데리고왔다는 아이와 영  
숙이를 결부시켜보게 되시였다. 그아이의 목에 반  
쪽짜리 얼레빗이 걸려있었다는 사실은 귀녀 아니  
면 귀돌이를 확신케 하였다. 생각이 거기로 치달  
을수록 가슴이 느닷없이 설레이군 하시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이러한 속생각을 입밖에 내  
기 주저되고 두려우신그것이였다. 영숙이를 보실  
때마다 속시원히 물어보고싶으셨지만 어찌된 일  
인지 그 물음은 나오려다가 목에 걸리곤 하였다.

영숙이도 그이앞에서는 주눅이 들곤 하였다. 아  
마 뒤에서 리병옥이 추궁이라도 했는지... 그이와  
눈길이 마주치면 열적어하고 당황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협주단배우들의 기량훈련이  
며 일과생활도 돌보셨지만 사격훈련에 특히 모를  
박으시였다. 사격좌지에 엮드리는 사수들의 자세  
와 동작도 바로잡아주시고 조준상태를 검열하고  
평가도 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지켜보신다는 생각  
으로 훈련열의는 앙양되고 조준성적이 날로 높아  
갔다. 휴식시간이면 그이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라댔다.

하루는 리병옥이 청을 드렸다.

《김정숙동지, 오늘은 사격경험을 좀 들려주십시  
오.》

배우들이 응수하여 박수를 쳤다. 그이께서는 훈  
련장요의 봄별 따스한 잔디밭에 앉으시며 그들을  
미덥게 둘러보시였다.

《동무들, 오늘은 나보다 〈교관〉 동무의 사격경  
험을 듣는것이 어때요? 병옥동무도 사격명수랍니  
다.》

리병옥이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병옥동무, 좀 말해주어요.》

《아닙니다. 제가 경위대에 배치될 때 김책동지  
는 〈아직 멀었어. 김정숙동지한테 가서 많이 배  
우라.〉고 하였습니다.》리병옥은 왼손잡이 명사  
수였다. 총탁판을 왼쪽어깨에 붙이고 갈겨대는데  
각개전투사격에서 목표가 나타나는 족족 재빨리  
소멸하군 하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김책동지랑 함  
께 보안간부훈련소 사격장을 찾으셨을 때 김정숙  
동지께서는 그의 사격술을 못내 대견하게 보시였  
다. 김책이 《음 음— 팬찮아. 왼손잡이가 어드래  
서? 총만 잘 쏘는데.》하더니 리병옥을 경위대에  
보낸것이였다.

지내보니 리병옥은 눈물겨운 과거사를 가지고  
있었다. 무슨 뽕죽한 사격경험보다 그것을 이야기  
하면 되지 않겠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지시 리  
병옥을 바라보시였다.

《〈교관〉 동무, 어렵게 생각할건 없어요. 왜 왼  
손잡이 명사수가 되였는가 그걸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한테는 엄격한 요구성과 책임성이 있는 반면에 배우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융통성이 부족하였다. 그래 김정숙동지께서 대신 말씀해주셨었다.

《동무들, 〈교관〉 동무의 오른손등을 좀 보세요. 화상자리, 칼에 맞은 자리가 험합니다. 그래 오른손가락을 잘 쓰지 못해요. 그렇다고 총을 잡고 계급적원썹들을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버릴수 없었어요. 어떤 지휘관들은 머리를 흔들기도 했지만 병옥동무는 밤이나 낮이나 앉으나서나 왼손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른손으로만 쏘게 되어 있는 총을 왼손에 적응시켰고 졸업사격에서는 강한 우를 맞을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고개를 떨구고 멍적어하는 리병옥을 주시하였다. 그리고 무릎우에서 꿈지럭거리는 류달리 크고 험상한 그의 손을 두고 수군거렸다.

《〈교관〉 동무의 비상한 사격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관〉 동무는 어렸을 때 구월산 밑에서 지주놈의 머슴으로 갖은 고역을 치렀습니다. 열다섯살에는 또 평양으로 팔려왔어요. 저기 본정거리로타리에 있는 〈이다약국〉에서 왜놈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해방되기 두해전에는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구모마다현 구로끼촌이라는데서 농경대로 마소처럼 혹사당했어요. 오른손의 상처자리도 그때 칼에 맞고 불에 지지운 자리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온 〈교관〉 동무이니 일제와 계급적원썹들을 복수하고야말겠다는 각오가 누구보다 높았어요. 해방후에는 고향에 돌아와 리민청위원장으로서 지주와 반동들을 숙청하는 일에 앞장섰고 오늘은 총을 멘 경위대군관이 되었어요.》

김정숙동지의 음성은 차츰 격해지시였다.

《동무들, 이것이 어찌 〈교관〉 동무만 겪은 수난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무들모두가, 나라잃은 조선사람모두가 겪어온 수난이였어요. 영숙동무도 그래요. 너무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종살이를 하다보니 고향도 부모님의 얼굴도 자기의 성과 나이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나도 동무들과같아요. 다섯살때 살길을 찾아가는 부모님을 따라 두만강을 건넌고 열세살에 리주사네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연자방아를 돌렸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돌밭을 일구어 수수를 심었는데 소작료를 물기 전에 몇이삭 잘라왔다고 오라버님은 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자신은 머슴으로 끌려가던 일이 떠올라시였다.

《이렇게 왜놈들의 노예로, 착취자들의 종으로 죽지 못해 살던 우리 인민을 누가 구원해주었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 총대로 나라를 찾아주시고 동무들을 총천 주인으로 내세워주셨어요. 총...

리병옥은 얼굴이벌겋게 되어 쭈뼛거렸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총과 같은 언제나 지배자들의 억압도구였고 인민은 총칼의 노예였어요. 총칼밑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그런시대는 영영 지나갔어요. 장군님을 모시여 인민이 총의 주인이 된 력사의 새시대가 열렸어요. 이것은 력사와 시대앞에 세우신 장군님의 공적이에요. 그러니 인민이 틀어진 총대의 사명은 장군님을 결사보위하는거예요. 우리모두 이것을 명심하고 조준 훈련을 잘해가자요.》

다시 시작된 훈련열의는 고도로 높아졌다. 따갑게 쪼이는 봄별, 계절의 훈향에 취해있던 눈들이 불길처럼 황황 타올랐다.

리병옥이 김정숙동지께 다가왔다.

《영숙동무의 조준상태를 좀 봐주십시오. 조준은 정확히 하는데 방아쇠만 당기면 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가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이 엎드려있는 뒤를 지나 영숙이의 곁으로 가시였다. 사뭇 흥조가 어려 어쩔줄 몰라하는 영숙이의 사격자세도 바로잡아주시고 침착하게 잘 조준하라고 이르시였다.

《조성과 조문, 목표를 잘 보아요. 됐어요? 됐으면 방아쇠를 당기지 말고 살그머니 손을 떼고 일어나요. 그렇지, 총을 다치지 말고.》

영숙이 일어나자 김정숙동지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조준상태를 검열해보시였다. 조준은 정확하였다. 무용가의 섬세한 눈이 아닌가. 다시 영숙이 더러 엎드려사격자세를 취하고 방아쇠를 당겨보게 하시였다. 영숙이 긴장하여 방아쇠를 떨구는 순간 격철이 격침을 때리는 소리에 그가 흠칠 놀라는데 한 감축을 받으시였다. 본능적으로 심장이 먼저 놀라는것이였다.

(무슨 곡절이 있구나.)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숙이와 따로 오솔길을 걸으시였다.

《영숙동무, 지금 무슨 춤을 연습하고있어요?》

《〈목동과 처녀〉입니다. 거기서 처녀역을...》

《민속무용이군요. 조선춤이 얼마나 좋아요. 단장동무랑 영숙이가 춤을 잘 춘다고 하더군요. 아마 천성적인 기질이 있나보군요.》 《동무들도 그렇습니다. 천성이 있더군요.》

《얼마나 좋아요. 천성에 열성을 합치면 훌륭한 무용배우가 될거예요. 춤도 잘 추고 총도 잘 쏘고.》

《어머님.》

불현듯 영숙이가 격한 음성을 터치였다.

《전 정말 죄스럽습니다.거지로 떠돌던 저에게 군복을 입혀주시구 배우로 키워주셨는데 생활도 잘 못하구... 훈련도 그렇구...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살아온 이야기나 좀 해요. 어렸을 때 심장에 무슨 타격을 받지 않

았어요?》

《예, 생각하면 속이 막… 화월관 녀주인한테 남동생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순사학교를 다닌다는 부랑배였습니다. 심보가 놀부보다 고약한 놈이었어요. 나를 길들인다며 찍하면 권총을 빼들고 죽인다고 위협했습니다. 전 바들바들 떨며 울었습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 밤마다 잠 못들고 악몽에서 허덕이다가 악—소리를 치며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주머니가 되곤 했습니다. 심장이 화닥화닥 뛰고… 하루는 그놈이 담을 키워준다고 사형장으로 끌고갔습니다. 왜놈병정 다섯이 강기슭 돌바탕에 반일분자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총으로 쏘는것이 아닙니까. 전 총소리에 놀라 까무라쳤습니다. 그후부터 웬간한 소리에도 와들 놀라곤 했습니다. 그것이 재미난다고 그놈은 심심하면 〈저년이 말 안 듣는다구? 커가면서 뱀이 생기는가, 내 길들이는걸 좀 보라.〉 하면서 권총을 겨누고 빈총을 딱딱 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깜짝깜짝 정신을 잃었습니다. 총에 대한 무섭증이 생겼습니다. 〈교관〉 동지는 절 보고 계급적각오가 부족하다고 욕하지만… 정말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결함이 동심의 나이에 받은 몸서리치는 구박과 위협, 공포로 인한 심장병에도 기인된다고 보시며 치료를 배합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협주단창사가 지척에 보이는 갈림길에 이르러 헤어지려 할 때 영숙이가 웬일인지 망설이며 걸음을 떼지 못했다.

《무슨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님, 전 오늘저녁 댁에 찾아갈려구 했었습니다. 자유주의를 해서라도.》

《호호… 자유주의까지? 무슨 일인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시였다. 영숙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저…》

영숙이는 고개를 떨구고 귀밑을 붉혔다.

《일없어요. 허물없이 다 말해요.》

《안타깝습니다. 전 성을 모릅니다. 영숙이란 이름도 제가 지은것입니다. 하지만 성은 지어낼수 없지 않습니다. 대령명단에도 〈영숙〉 하고 이름만 올라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성을 불이라고 하는데 전 아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님의 성을 달겠다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으려구…》

《호호… 그때문에? 영숙이, 아버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김바우란 이름을 들은 일이 없어요?》

《예?!》

《어릴 때 일을 꼼꼼히 생각해봐요. 동네 어른들의 말이랑…》

영숙이는 눈을 쪼프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머리를 살래살래 저었다.

《또 부모님들이 어린 딸과 헤어지면서 남긴것

영숙이는 어깨에 멘 보병총을 추슬렀다.

같은 표적은 없는지?》

《표적말입니까?》

왜서인지 영숙이는 큰눈을 휘둥그렇게 흘렸다. 그이를 놀랍게 쳐다보는 눈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 허둥거렸다.

《그래요. 요전번 비상소집때…》

영숙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창피를 들쓴듯 얼굴이 활짝 붉어졌다.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그려…》

말끝을 흐리며 울음을 삼키었다. 그러더니 흑—하고 흐느끼며 돌아서서 황황히 달려가기 시작했다. 휘청거리며 뛰여가는 영숙이의 뒤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못박힌듯 서계시였다. 못내 섭섭하시였다. 그리고 야속하시였다. 자신께도 터놓지 못할 어떤 사연이라도 품고있는 것일가.

해가 떨어진 서쪽하늘가에 봄날의 저녁노을이 불이 불듯 타오르고있었다.

## 4

림춘추는 열흘이 넘어 돌아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문탁아소에 나가셨다가 그가 댁에 와서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오시였다.

림춘추는 살구나무아래 결상에 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나무그늘이 드리워져인지, 바람과 별에 타서인지 그의 얼굴은 어둡고 침울해보였다.

《정숙동무!》

벌떡 일어나 마주오는 림춘추는 어설픈 미소를 띄웠다.

《수고하셨군요.》

김정숙동지께서 반가움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장군님께서 건강하십니까?》

《아니, 그럼?!》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아해하시였다. 림춘추가 곧 추 댁부터 들린것이다.

《제 무슨 낮으로 장군님부터 찾아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요?》

《더우기 만경대할머님앞에 몇몇치 못하게 됐습니다.》 림춘추는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는 기색이였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영문을 알수 없어 그의 거동만 주시하시였다. 무슨 말인지 얼른 가늠이 가지 않으시였다.

《작년 여름 동북으로 떠날 때…》

림춘추가 힘들게 말꼭지를 뗐다.

《장군님으로부터 유자녀들을 찾아낼데 대한 부탁을 받고 나오는데 김책동무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김책동무는…》

이 말을 하는것이 옳겠는지 그르겠는지 재보는 것 같았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동지들을 응색하게 할수 있는 일은 뒤에서 남모르게 수직수직 하는 림춘추이고보면 심분 리해되셨지만 자신께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것이 못내 섭섭하시였다. 부암동시절의 전우, 허물없는친지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것 같아 피로우시였다.

《림동지, 제가 잘못하는 일이라도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가끔 빨찌산전우들과 소원해지는감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제 지성이 부족한지, 아니면 저의 행동에서 어떤… 우리끼리야 무슨 조심할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 정숙이를 빨찌산 시절처럼 대해주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라버님벌되는 림춘추여서 자신의 고충을 다 털어놓으시였다.

림춘추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정숙동무, 고맙소.》

《예?!》

《사실 그건 내가 동무에게 하자던 말이였소. 우리에 대한 정숙동무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기때문에 그러는거요. 김책동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경대에 나갔던길에 할머니와 두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숙동무소리가 나왔다는거요. 할머니께서는 우리 손자며느리같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고 어린 나이에 총들고 싸운 효녀는 세상에 없을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오. <난 그저 우리 녀장군한테 친정집 살붙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네. 이 집이야 그래도 할아버지랑 이 할머니도 있지만 회령댁에는 한사람도 남지 못했네. 녀장군도 녀자인데 속으로 얼마나 외롭겠나. 그게 제일 가슴아프네. >》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도 뜻밖의 사연에 부딪쳐 어쩔바를 몰라하시였다.

《그런데도 내 또 빈걸음을 했으니 무슨 낮으로… 광고도 내구 연줄을 늘이고… 다해보았는데… 아무래두 내 성의가 부족했나 보오.》

《림동지…》

목이 메여 말이 나가지않으셨다. 서있기가 힘들시였다. 가까스로 결상에 주저앉으시였다.

(할머니… 동지들… 제가 뭐라고…)

살구꽃이 분분히 날아 떨어졌다. 땅위에, 결상에, 다소곳이 고개숙으신 김정숙동지의 어깨위에 하나둘 조심히 내려앉았다. 그이의 눈앞에서 살구꽃들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땅바닥의 하얀 모래위로 비자루가 지나간 자리들이 문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뿌옇하게 흐려지기도 했다. 귀전에는 왕성한 꿀벌들이 나무에 달라붙는 붕붕—소리가 멀어졌다가까와졌다 하였다.

림춘추는 그이를 묵묵히 지켜보며 뼈아픈 자책으로 가슴치고있었다. 피로가 실린듯 한 그이의 모습… 조카애를 찾지 못한 아픔… 불현듯 김책

하고 림춘추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 문앞까지 바래주며 안타깝게 하던 말이 뇌리를 때렸다.

《림동무, 우리가 혼련기지에 있을 때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정숙동무를 어떻게 받들자고 약속했소. 응? 그런데 보오. 해방된지 언제인데 하나 남은 살붙이마저 찾아주지 못하고있소. 술한 애들을 찾으면서도… 그래서야 나나 동무나 무슨 녀장군의 전우, 동지겠소. 다시한번 잘 찾아보오. 생사여부라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떠난 길이었다. 곁은 길은 얼마이며 홀린 땀은 얼마였던가. 조카애를 찾는 길에서 술한 유자녀들이 나타났다. 조카애를 찾는 반경안에 다른 아이들이 다 있었다. 이것 역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자기라는 관념자체가 없는 김정숙동지의 세계여서 조카애도 영영 종적을 감춘것은 아닌지. 남을 위해서는 너무도 헌신적이고 너무도 너그러운 어머니와 같은 동지, 허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마음 모질고 요구성이 강한 동지,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남을 위해 불같이 생을 태우는 동무라고… 이런 전우여서 나라가 해방되면 몇갑절 위해주자고 우리 산에서 싸울 때부터 약속했던만 아, 이 무슨 일인가.

림춘추는 후회와 자책과 절망에 가까운 심경에 빠져있었다.

이윽하여 김정숙동지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시였다. 머리위에 펼쳐진 해빛이 가득차서 빛나는 봄하늘, 소소리높은 뽕뽕라의 반짝거리는 잎사귀, 이마전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바람결, 꼬꼬리의 청아한 울음소리…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평양의 봄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참 림동지, 귀녀로 추측되는 처녀가 협주단에 있습니다.》

《귀녀로요?》

림춘추가 꿈쩍 놀라며 화색을 띄웠다.

《예, 들어보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숙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림춘추는 묻고 반신반의하며 마당을 왔다갔다하였다.

《… 빗이란 말이지요? 얼레빗이라…》

《그래요. 비상소집때 떨군 물건이 혹시 그게 아닌지.》

《그렇수 있지요. 있구말구. 그 애 어머니가 죽음을 앞둔 시각에 그 빗을 넘겨주었을수 있지요.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그게 부모들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무용에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면 룡준동무와 유전적인 공통성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림춘추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음성이 높아졌다.

《정숙동무의 눈은 못 속이지요. 정숙동무의 직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뭐가 말이예요?》

《정숙동무가 말이요.》

《예?!》

《백만대적앞에서도 끄떡없던 정숙동무의 심장이 처녀앞에서 두근거리다니? 피하면 붙잡아놓고 뿔 떨겠느냐, 내놓으라고 말을 못하오?》

《호호호... 글썸 말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도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듯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앵이— 내 지금 당장 가서 만나보구 오겠습니 다.》

《은 성미두. 림동지, 지금은 참으세요. 그 동무들이 래일 실탄사격을 한답니다. 가뜩이나 심장이 약한 영숙이를 놀래울수 있어요. 래일 같이 가보는것이 어떻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 만류하시었다.

## 5

사격장은 교외의 동북쪽 다박솔이 무성한 골안에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군복차림으로 림춘추와 함께 도착하셨을 때 그들은 모임을 하고있었다.

아침해빛이 환한 골안 맞은켠에 목표판들이 멀리 찢찢하게 보이는데 화력진지결에 있는 휴계실 앞마당에 배우들이 질서있게 앉아있고 영숙이가 앞에 나가 토론하는중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모임에 방해되지 않게 후미진 다박솔뒤를 돌아 휴계실로 들어서시였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영숙이의 옆모습과 앉아있는 배우들의 모습이 가까이 보이였다.

림춘추가 다가왔다.

《저 동무예요. 토론하는 처녀예요.》

림춘추는 눈시울을 좁히더니 머리를 기웃거렸다.

열기를 띠며 높아가는 영숙이의 목소리가 청신한 봄기운과 함께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 전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왜 저같은것을 그리도 사랑해주시는지 그 깊은 심중은 몰랐습니다. <교관> 동무의 말을 듣고서야...》

영숙이는 눈물을 씻으며 목이 메어하였다.

《왜놈들에게 일가식술 다 잃고... 하나 남은 조카애마저 헤어진 후로는 아직... 저같은건 군복까지 입었는데 조카애만은 흑— 그 아프신 심정 물어두시고 정을 부으시는줄 제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알기나 하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영숙이는 어깨를 떨었다. 감정이 여린 너배우들이 눈굽을 훔쳤다. 남동무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렬사의 딸

감이면 귀녀가 틀림없습니다.

이 행여나 제가 아닌가 하여 찾고계셨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달아나버린 저야말로...》

영숙이는 연신 눈물을 삼키었다.

《전 어머님을 뵈기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비상소집때 이 하찮은것때문에...》

영숙이는 군복옷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종이에 싸인 자그마한 물건을 꺼냈다. 배우들의 긴장한 시선이 그의 손을 지켜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마구 활랑거려 진정하기 힘드시였다. 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였다. 한꺼풀... 한꺼풀 종이를 푸는 영숙이의 하얀 손가락만 뚫어지게 지켜보시였다. 주위가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해빛이 영숙이의 군모머 흘러내린 머리칼이며 어깨와 가슴선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이윽고 영숙이는 종이를 다 풀고 자그마한 물건을 쳐들어보였다. 그이께서는 눈앞이 아찔해지시였다. 푸릿하고 가늘고 길다란 비녀가 열레빗으로 보이기도 하시였다. 눈을 슴벅이고 다시 보면 틀림없는 비녀였다. 녹이 쓸고 삭아버린듯 한 구리비녀... 영숙이의 음성이 쿵쿵 고막을 치듯 들리였다.

《... 어머니의 유물입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저의 애기적 적삼안 실로 꿰맨 주머니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소집때 주머니검사를 할가봐 배낭속에 감추려다 떨렸습니다. ... 길바닥에 버린 다삭은 쇠꼬치를 주어들고 다닌다고 웃을가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으셨을 때도 하찮은 비녀와 비상소집을 바꾼 저의 죄가 엄중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겼습니다. 저에게 사격동작을 배워주시고 심장병을 고치라고 약까지 지어주신 어머님을...》

김정숙동지께서는 하염없이 영숙이를 바라보고 계시였다. 품에 안고 머리를 빗겨주시던 그 애기가 영숙이의 모습과 교차되어 얼른거리였다. 그 귀녀가 커서 영숙이로 된것만 같으시였다. 그래너는 귀녀다. 귀녀구말구... 느닷없이 가슴은 기쁨으로 쿵쿵 뛰기 시작하였다. 우리 귀녀가 얼마나 높이 자랐는가!

《...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고, 다시는 조국을 잃지 말라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저에게 총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저를 김영숙으로 불러주세요. 김영숙의 이름으로 오늘 사격에서 우를 맞겠습니다.》

박수가 터져올랐다. 흥분한 림춘추가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영숙이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토론을 잘했다. 장군님의 딸이구말구.》

그리고 뒤따라 서신 김정숙동지앞에 영숙이를 돌려세웠다.

《정숙동무, 영숙이를 정말 훌륭히 키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시었  
《림동지의 동복걸음이 헛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녀대신 의젓한 영숙이가 있지 않습니  
까.》

림춘추는 눈을 습벅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습니다. 만경대할머  
님을 뵈을 면목이 있는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품  
에서 얼마나 많은 귀녀들이, 조카애들이 총을잡고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구 행복이지요.》

김정숙동지의 눈에 행복의 미소가 흘러넘치었  
다. 이 순간 그이의 마음은 만경대초가집으로 달  
리고계시였다.

(할머님! 기뻐하십시오. 이 끝끝한 젊은이들이  
다 저의 혈육들이고 조카애가 아니겠습니까. 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시며 영숙이를 와락 그려안으시였다.

《장하다. 영숙아!》

×

...

사격목표는 두 소나무사이에 줄을 늘이고 실에  
매단 10개의 술방울이었다. 배우들의 한결같은  
요청으로 김정숙동지께서 먼저 사격좌지에 나서  
시였다. 봄날의 훈풍에 술방울이 흔들거렸다. 모  
두들 손에 땀을 쥐였다. 그이께서 요구하신다고  
술방울과녁을 설치한것을 후회하는 축도 있었다.

항일전장의 초연내 배인 군복을 입고 두자루의  
싸창을 랑손에 거머쥐고 나서시는 그이의 모습은  
너무도 태연자약하시여 승엄한 생각을 불러일으  
켰다. 마치 봄들판에 씨뿌리러 나오신듯, 자신의  
평온과 안정은 이런 순간에 있는듯... 하지만 열

다.

핏 목표를 일별하시는 찰나 30여년 생애에 겪으  
신 천만가지 슬픔과 기쁨, 불행과 행복, 비애와  
격동, 사랑과 증오가 응축되어 이 총에 무겁게 실  
림을 느끼시였다. 단 한번밖에 없는 인간의 생을  
받고도 어머니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  
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아이들의 운명이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해방된 조  
국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아이들아,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존엄, 너희들의 행복과 미래를 이 총이  
지켜주고 꽃피워주리라!

먼저 마음속에 우뢰울고 번개치며 안광에 섬섬  
히 불꽃을 텅기더니 돌연 싸창을 쳐드시였다.

《땅땅땅...》

순식간에 술방울 10개가 없어졌다. 환성이 터  
져올랐다. 환성은 4년전의 그날을 림춘추에게 불  
러왔다. 원동훈련기지에서의 전부대적인 사격경기  
—그 경기에서 보여주신 조준없는 백발백중, 조선  
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쏘중련합군 지휘관들의 합  
성, 북만에서싸우다보니 처음으로 김정숙동지의  
사격술을 목격한 김책이 흥분하여 터치던 웨침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쳤다.

《매혹적이에요! 완전한 예술이에요! 파시 조선의 녀  
장군이요, 너장군!》

... 총성이 련이어 메아리친다. 땅의 주인,공장  
의 주인, 총의 주인이 된 인민의 새봄, 력사의 새  
봄의 메아리인듯...

배우들의 사격이 계속되였다. 사격이 끝날 때마  
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수를 쳐주시고 우등사수  
들의 가슴에 꽃송이도 달아주시며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신다. 영숙이의 가슴에 꽃송이를 달아주  
시며 말씀하시였다.

《비너를 잃지 말아요.》

## 가사

# 어머니의 당부

박창근

막내아들 초소에 세웠으니  
이 어머니 생각 깊어지누나  
장군님전사로 제구실 하려나  
날마다 너의 소식 기다린단다

군기앞에 찍은 사진 받아보니  
어머니 아니할 걱정을 했구나

고마운 내 조국 총대로 지키는  
장한 너의 모습 자랑스럽구나

입대할 때 다진 맹세 잊지 말고  
조국앞에 떳떳한 병사가 되거라  
장군님 받드는 선군의 한길에  
온 나라 다 아는 영웅이 되거라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감명깊게 그려내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에서는 령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품모가 격이 있게 그려져야 한다. 수령의 품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력사에 실지 있는 위인을 형상하는것만큼 수령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고 모든 형상요소를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 혁명설화

### 《작식전투》

해방후 어느 여름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녀성일군에게 항일의 나날에 있었던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 이야기는 주체29(1940)년 가을에 있는 일이었다.

그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속한 소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련일 뒤따라오는 적과 전투를 하며 행군하고있었다.

어느날 소부대는 적 《토벌》대가 뒤따르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무연한 벌방지대를 하루밤사이에 행군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던 정황이 생겨 날밤기 전에 벌방지대를 통과할수 없게 되어 소부대는 부득불 행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벌방지대라 몸 하나 변변히 숨길만 한 곳도 없었다. 그렇지만 대원들은 마른 풀로 온몸을 위장하고 웅덩이들에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유격대의 행방을 놓친 적들은 이른아침부터 비행기를 띄우고 그 지대를 살살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어쩌나 낮추 뚫으면 비행기가 벌판에 내리는것만 같았다.

한데 놈들은 한번 찾아보고는 다른데로 가는것이 아니라 계속 그 벌판우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분명 그 지대에 있음직한데 찾아내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 더 들춰보려는 심산같았다.

제일 난문제는 밥을 짓는것이였다. 그 위험속에서 밥을 짓는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적들이 아무리 기습을 부려도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군님과 대원들의 식사는 꼭 보장해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물힘을 따라가시면서 마른 나무가지들을 골라 한가지, 두가지모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기가 적게 나는 버드나무, 야카시아나무, 물개암나무들의 삭정이들을 한아름이 되게 거두어들으신 다음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시였다. 아무리 마른 나무라 해도 껍질이 있으면 연기

가 더 날수 있기때문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묵진 곳에다 가마를 걸어 놓으시고 적비행기가 가까이와서 기체를 기우뚱거릴 때에는 움직이지 않고있다가 한바퀴 도느라 멀어질 때 날래게 쌀을 씻어 안치고 불을 지피시였다.

그이께서는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늘 쌀은 깨끗이 골라서 가지고다니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돌가마아궁에 나무가지를 넣고는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가, 불길의 보이지 않는가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시다가 약간한 외오리 연기라도 피여날것 같으면 연기날수 있는 나무가지를 살그머니 꺼내여 흙속에 묻곤 하시였다.

드디어 밥이 갖기 시작하였다. 그이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장군님께 아침식사를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놀라시며 대원들의 식사준비정형도 물으시였다.

대원들의 식사도 다 마련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서 것처럼 어려운 정황에서도 끝내 식사준비를 해낸것이 대견하시여 오늘 아침에는 작식전투를 하였다고 크게 웃으시였다.

정말이지 그것은 치렬한 《작식전투》였다.

자신의 수고는 감감 잊으시고 장군님과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작식전투의 보람을 한껏 느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김정숙동지께 대원들은 오늘 아침밥은 밥이 아니라 장수보약같아서 막 힘이 솟구친다고 말하였다.

항일의 나날 모든 조건이 어렵고 걸음걸음 위험이 뒤따르는 속에서 장군님과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신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녀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우리 인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함명희

## 총대사상을 힘있게 구현한 불멸의 노래 《자장가》

리경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조국의 앞날과 민족의 전도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화예술 작품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혁명적유년가요 《자장가》를 비롯하여 《장군별 따라서 조국방으로》와 같은 혁명적아동시가 작품들을 창작하시여 아동단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혁명적아동가요 《자장가》는 일찌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려명이 바야흐로 태동하던 역사적인 시기에 창작하여 몸소 불러주신 가요이다.

어머님께서 행군과 전투로 이어진 숙영의 깊은 밤이면 사랑하는 아드님이신 어린신 장군님을 품에 안아 잠재우시며 몸소 《자장가》를 지어 불러주시였다.

아가아가 자장자장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붉은기 들고  
공산주의 새세상 떨치는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나가 싸우자

자제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혁명위업수행에 대한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불러주신 이 《자장가》에는 태양의 빛발을 안고 자라나시는 어린신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갈 위대한 령도자로, 백두의 선군령장이 되여주시기를 바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념원과 혁명적기대가 동요적형상속에 감명깊게 노래되고있다.

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은 한마디로 빨치산 김대장의 자제분이신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어서빨리 훌륭하게 자라시여 선군의 총대,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기 바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크나큰 기대와 숭고한 념원이 반영된것이다.

특히 이 《자장가》에 새롭게 제기된 중요한 사상적내용은 《자장가》에 총대중시, 선군혁명사상을 힘있게 구현하고 아울러 붉은기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랑만적열정으로 노래한것이다.

가요의 1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어서자라 선군령장이 되시여 혁명승리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앞장서시기를 바라시는 어머님의 숭고한 기대와 념원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다시말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조선을 독립시키는 길은 오직 무장투쟁의 길, 선군의 총대를 앞세우는 길임을 확신하시고 성스러운 그 길우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김정숙어머님의 강렬한 총대중시사상이 뚜렷이 표현되였다.

동서고금에 《자장가》들은 많았어도 어린 아기를 요람속에 잠재우며 어서 자라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살뜰한 모성애와 그들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념원은 많이 노래되었어도 《자장가》에 자기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총대를 사랑하고 총대를 중시하며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혁명적인 사상과 념원을 담은 《자장가》는 그 예에도 없었다.

이렇듯 자장가에 비친 어머니의 숭고한 기대와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피어린 무장투쟁을 전개해오시면서 어머님께서 심장으로 절감하고 피로새긴 우리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선군혁명사상의 직접적인 예술적구현이었던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요의 2절에서는 앞에서 노래한 사상감정을 더 높이 승화시켜 어린신 장군님께서 어서 자라 속히 자라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앞장서시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끝없는 념원 즉 붉은기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랑만적열정으로 분출시켰던것이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자장가》에는 총대중시, 선군혁명사상을 구현하고 붉은기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격조높이 구가하면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조선혁명,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갈 선군혁명령장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불같은 지향과 념원을 유감없이 노래하였던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자장가》는 총대중시사상을 격조높이 구현한 그 사상적높이에서뿐만아니라 그가 달성한 고상한 예술적성과로 하여 그 사상예술적품위와 가치를 최상의 높이로 끌어올렸다.

가요는 한마디로 부드럽고 민족적정서로 차넘치는 선율속에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내용을 담음으로써 가요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부각시켜주고있는것이다.

가요는 우선 유년기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간결한 시적구조와 동요적인 구성방식을 취하고있다.

가요는 짧은 두개의 련으로서 혁명적내용을

점차적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있는바 첫째 편에서는 총대로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할데 대한 사상감정을 밝고 환희로운 정서로 노래하였다면 둘째 편에서는 해방된 조국땅위에 낙원의 새세상을 펼쳐갈 혁명적리상을 낭만적열정으로 펼쳐보여주었던 것이다.

가요는 또한 활동적인 반복구와 대구형식의 리용으로 밝고 낭만적인 음악적선율을 잘 살리고있다. 가요는 매 편의 첫 행에서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를 연속 반복해줌으로써 어리신 아드님을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선군령장으로 키우시려는 어머니의 자애롭고도 웅심깊은 사상감정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켰을뿐아니라 마지막행에서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강조해줌으로써 어리신 장군님을 미래의 령도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따라 영원히 함께 싸워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낭만적지향을 력점을 찍어 강조해주고있다.

가요는 또한 《어서》와 《속히》와 같은 시간

성을 나타내는 부사들과 반복강조적수법, 행과 음절단위의 대응과 대구의 조직 그리고 4?4?5조의 정연한 음수를 등 동요적형상수법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있다.

가요는 또한 쉽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인 어휘 표현들을 구사하고 《너》, 《나》와 같은 언어적 표현들로 친근하고도 다정한 정서를 돋구어줌으로써 동심을 잘 살리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장가》속에 미래의 고운 꿈을 키우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어머니의 그 녀원대로 오늘은 위대한 선군령장이 되시여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혁명의 최고사령관, 희세의 위인으로 칭송받고계시는것 아니라.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의 《자장가》는 그 모든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항일혁명아동시가문학의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오늘도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화력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특히 총대중시의 선군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 첫 군기

### 전수철

해방산기슭에 휘영청 밝은 달이  
사색의 세계를 비쳐주는가  
고요한 정적속에 깊어가는 밤처럼  
어머님생각은 깊어만지셨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인  
우리 혁명의 첫 정규무력의 열병식  
그 대오앞에 힘차게 나뭇길  
인민군대의 첫군기를 생각하시며  
어머님의 사색 바닥없이 깊어가는데

이윽도록 명상에 잠기시여  
창가에 서계시던 김정숙어머님  
손수 붓을 드시여  
백두산천지물 찍듯 흙뻑 붓을 적서  
군기의 도안을 그리시였네

그러시고는  
항일의 선렬들 피가 물든  
붉은기와 한빛으로  
붉게붉게 기폭천 물들이시고  
백두산에 뿌리내린 군대의 혈통  
영원히 빛내가라고  
오리오리 금술도 늘이신 어머님

빨찌산 김대장의 사열받으며

안도의 수림속에 나뭇기던  
반일인민유격대의 그 기폭이  
해방된 조국땅에 다시 펼쳐졌는가

끝없는 환희에 휩싸인 어머니  
항일의 나날 밀림의 달빛아래서  
유격대군복 짓던 그 솜씨로  
몸소 인민군대 첫 군기를 만드셨네

이 군기 추켜들고 나가는 길에  
전사는 전사마다 영웅이 되고  
부대는 부대마다 영예떨치라  
한폭의 크지 않은 군기폭에  
하늘같은 녀원을 다 담으신 어머니

아 항일의 녀장군 지으신 그 군기  
미제를 쳐부신 전화의 나날  
근위사단 위훈의 군기들을 이끌고  
전승열병광장에 들어섰나니

그날의 첫군기 오늘은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최고사령관기따라  
선군승리의 한길에서  
어머님의 축복속에  
펼적이고 또 펼적이어라

## 아침에 대한 생각

김홍균

염소목장을 돌아보며 아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려니 먼저 청진염소목장을 찾아가던 길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철의 도시에서 살면서 이곳 염소목장에는 첫 걸음이었다. 식성이 남달라 젓가공품을 특별히 좋아하는 내가 항상 염소목장터를 지고살면서 아직까지 목장이 어데 붙어있는지도 모르고있었으니 누구에게라 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심정이었다. 하긴 모름지기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이다. 길이 험했다. 해안가를 따라 가파로운 벼랑을 타고 닭은 도로가 굽이굽이 뻗었는데 여기저기에 구배길과 낭떠러지, 락반사고주의표식이 한 굽이 멀다하게 세워져있는 길이었다.

이런 길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진염소목장에 다녀가셨다! 충격이 컸다.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과 다름바없어 이곳 목장 종업원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픈 마음이 간절했지만 길이 하도 험해 꿈을 꾸지 못했다고 했다. 가슴이 저릿해왔다.

목장은 시내에서도 퍼그나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들에 전개되어있었는데 그 룬환선도로만도 100리가 넘는다고 했다.

골짜기초입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크고작은 건물들이 꼭 어느 동화의 그림처럼 보였다.

자연물관이 산마루까지 펼쳐진 골짜기를 따라 산중턱까지 염소사가 줄을 맞춰섰는데 멀리서 보면 산으로 오르는 계단같았다.

이런 희한한 풍경이 이 골짜, 저 골짜해서 사방 몇십리에 펼쳐져있다고 했다.

항시 덕을 보고있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본적 없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를 헤아려 우리 장군님께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송평구역분장이며 젓가공장 등 그이께서 아침이슬을 밟으시며 걸으신 로정을 따라 견노라니 걸음걸음에 뜨거운 생각이 고였다.

산비탈에 하얗게 널린 염소떼를 바라보는데 청색잠바에 채양이 긴 파란 모자를 쓴 방목공처녀가 명상에 잠겨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다.

문득우리를 맞아주며 이곳 지배인이 한 이야기가 상기되었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서 만나뵈은 영광과 행복을 지닌 염무근지배인은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 목이 메어 말했었다.

《... 아침에 오셨습니다. 평양서 예까지 어떻게 되는데 글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염소목장을 찾아 아침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시려니

지난밤에도 달리는 야전차에서 쪽잠으로...》

뜨거움의 파도가 내 마음에도 흘러들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새날의 첫 시작과 함께 찾아주신 일터가 이곳 염소목장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슴을 찡기때문이다.

언젠가 찾아갔던 김철의 용광로직장장도 무산의 광부들도 우리 장군님 찾아주신 새벽이야기를 했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도 삼복의 여름에나 대소한의 겨울에도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건설장을 찾아 첫 아침에 오셨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지 않았던가. 아침!

우리 이제껏 그 아침에 대해 달리 생각해본적이나 있었던가.

어느 가정,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생의 순간일뿐이요 생활의 평범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내 경우에도 새날의 시작이 레사롭기는 매일반이었다. 무릇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것은 자연의 순리라 할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내조국의 아침이 자연의 순리로만 오는것이 아님을 새롭게 깨달았다.

어찌 알랴!

인민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께서 이 나라의 아침을 맞으시려 간밤도 달뜨는 전선길을 달리시였는지, 아니면 과도협한 배길을 달리시지 않았는지... 그 아침을 여시려 삼복의 무더위도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래일을 주시려 쪽잠과 췌기밥을 달게 드시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달리시는분! 그 길에서 때로는 폭우 쏟아지는 최전연고지에도 오르고 때로는 눈길에 지치는 승용차를 떠미시며 철령도 넘으신분!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 맞으신 하많은 아침이 대홍단의 감자꽃바다가 되고 장자강의 불야경이 되고 한드레벌지평선이 되어 내 나라의 선군정치를 이루지 않았던가! 그 아침이 우주를 날으는 인공지구위성이 되고 삼천리강토에 영원한 평화를 담보하는 선군총대가 되지 않았던가.

그 아침이 원썩들을 전률케한 최전연고지의 환호성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지 않았던가! 정녕 이 나라의 새날은 어떻게 오는가?

이 나라의 아침해돋이는 어떻게 밝아오는가?

우리 장군님 내 조국의 새벽을 깨우신다!

우리 장군님 내 조국의 아침창문을 여신다!

내 나라의 밝은 앞날을 약속하는 우리의 아침해돋이는 이렇게 펼쳐진다.

# 한해가 흘렀다

장명길

새해의 달력을 걸던 때가  
바로 어제만 같은데  
벌써 이해도 다 저물었구나  
어이하여 이 마지막달력을  
선뜻 번질수 없는것인가

한해가 간다  
내 조국의 력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위대한 전환의 한해가 간다  
내 정녕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해를 보내고있는것이나

한해를 바래우는 평마루우에서  
나는 무엇을 총화하고 계획해야 하는가  
우리 당이 세운 강성대국의 시간표에서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거니  
왜서인지 더 빨리 흐르는것 같구나  
시간이... 하루하루가...  
신들메를 더욱 조이라고  
시계의 초침소리 흥벽을 두드린다  
올해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새해에는 보폭을 더욱 넓히리라  
우리모두의 숨결과 박동은  
조국의 전진속도에 이어져있거니

해는 저물어도 잊지 못해라  
새해정초에 레성강언제우에 서계시던  
우리 장군님의 숭엄한 그 모습

이해에도 변함없는 강행군을 하시며  
초소와 공장, 농장들을 찾아가신 그 모습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9월에도  
승리자들의 행군을 앞장서 이끄신  
우리 아버지의 헌신의 나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마음이며  
그이를 받들어온 내 삶의 하루하루를  
엄숙히 총화해보는 마음이며

가리라  
장군님의 강행군발걸음에 맞추어  
동행자의 보폭을 더 빨리 하며  
그이의 뜻으로 천만의 가슴에 불을 지필  
시가의 붓대를 더 높이 들고

이런 비약의 결심이 없이야  
내 어찌 이해를 바래울수 있으랴  
강성대국향해 더 가까이 다가서는 새해  
올해보다 더 빨라진 발걸음들이 달려갈  
희망넘친 새해를 맞이할수 있으랴

아 한해가 저물어간다  
또 한살 나이를 엮는  
인생의 달력으로만 번져지지 않는 한해  
삶이며, 더욱 불타오르자  
벌써 한해가 흘렀다  
비약의 또 한해가 우리앞에 있다

가사

# 야전오락회 좋다

고영수

훈련장의 설참이라 어서 나오라  
전호가 금잔디는 야전무대다  
중대장의 복장단에 목청합치니  
이산저산 찢렁찌렁 메아리친다  
아 우리 중대 오락회 야전오락회 좋다

손풍금수 박동무 기세올려라  
어깨으쓱 총대춤 신바람난다  
명사수 꽃송이는 위훈의 금별

포신들도 움썽움썽 머리를 든다  
아 우리 중대 오락회 야전오락회 좋다

우리 중대 병사들은 화선명배우  
노래춤에 원썩들 났을 잃는다  
만세의 함성높이 신심드높이  
승리의 축포오를 그날에 산다  
아 우리중대 오락회 야전오락회 좋다

## 아버지의 모습에서

김려실

내가 외국어대학을 졸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었다. 은방울 굴리는듯 한 류창한 외국어발음을 가진 나의 실력은 순풍에 돛을 단듯이 풍만한 생활의 주로에서 거침없이 흐르게 될것이라고... 귀맛좋은 그 말에 나의 마음이 다소 흔들렸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졸업증을 손에 들고 아버지앞에 나섰을 때 아버지는 이리기를 저리기를하는 나의 《리상》을 여지없이 허물어버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너를 외국어전문가로 키워주셨다. 이제는 네가 후대들을 키워야 한다.》

《예? 그럼 교원이 되란 말씀이세요?》

《그렇다. 난 네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이 되길 바란다.》

나는 너무도 상상박이여서 의아해서 물었다. 녀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공업대학, 연약한 처녀의 몸인 내가 그들을 배워주고 다루어낼 수 있을까. 어느때 한번 생각해본적이 없는 일이었으나 아버지의 요구는 단호했다.

선뜻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너무도 어려웠으나 며칠 곰곰히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리해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아버지였다. 민족의 운명에 비운이 드리웠던 해방전 그 시절, 홋카이도에 탄광로동자로 끌려갔던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학교에 보낼 학비가 없어 어린시절부터 탄광에서 자기와 함께 고역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배움의 길을 잃고 설움과 빈민속에 어린시절을 보내던 아버지는 14살 어린 나이에 배움의 푸른 꿈을 안고 오매에도 그리운 조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던것이다.

귀국후 함흥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는 드디어 희망하던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에 입학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었다. 아버지가 공학을 지망한것은 그에게 특별한 공학적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과학과 기술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자는것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념이였고 인생관이였다. 하기에 아버지는 자기의 일가친척들을 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지망하게 했으며 사위들도 모두 김책공업종합대학출신으로 정하였고 나를 내놓은 나머지 자식들이 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것을 긍지롭게 생각하고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하긴 나는 아버지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한 아버지의 맏딸이었던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으로 배치받아 처음으로 교단에 서게 된 날이었다. 아버지는 대학교원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여 눈굽을 적시였다.

《야야, 교원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을 잘 배워주어야 하느니라. 수업준비를 잘했냐?》

《걱정마세요.》

《아니다. 나한테서 통과되어야 한다. 어서 내앞에서 하거라.》

《아버지앞에서요? 호호...》

어이없는 웃음을 짓던 나는 그만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엄중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하긴 아버지는 모의수업을 받아낼 자격이 있는분이였다. 그는 이제 내가 배워주게 될 2외국어의 능수였던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앞에서 진땀을 빼며 여러번 모의수업을 했다.

그러나 첫날강의는 아버지까지 개입하여 아글타글 준비한것에 비하여 너무도 성과가 적은 강의였다. 어처구니없다고 해야 할것이었다.

내가 대학생때 인민대학습당에 갈적마다 보아오던, 류창하게 회화도 하고 귀에 레시바를 끼고 록음을 듣곤 하던 그런 실력있는 대학생들이 아니였다. 1학년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제대군인대학생은 한강의동안 출창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실패한 첫 강의로 하여 집에 가서도 마음이 개운치 못하였다. 저런 학생들을 가지고 어떻게 리상적인 강의를 할수 있단 말인가?

그즈음 자강도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도와주기 위해 주파수계를 만드느라고 밤새워 일하시던 아버지가 일깨워주었다.

《리상적인 강의란 학생들이 가장 리해하기 쉽게 하는 강의란다. 야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강의는 예술이란다.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를수 있겠니? 너는 교단에서, 나는 사회주의건설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실적으로 받들자.》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토록 더 잘 모시기 위한 연구사업에서와 자강도를 비롯한 각지 중소형발전소를 도와주는 사업에 자기의 성실한 노력과 깨끗한 량심과 지성을 고스란히 바쳐 일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했다. 어느덧 나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였다. 혁명적세력이 부족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부담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다.



가정을 돌보고 두 아이를 거두는것만도 힘겨운 일인데 어떻게 강의까지... 얼마간이라도 강의를 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새벽 2시면 꼭꼭 일어나서 건설장으로 보내줄 자동화설비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 어떤 보수도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이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혁명령도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했다. 어느날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었다.

《난 대학교단에 선 딸을 둔것으로 하여 언제나 긍지로왔고 머리를 쳐들고 살아왔다. 네가 선 대학교단이 어떤 교단이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단이 아니냐? 아무나 함부로 오를수 없는 신성한 교단이란 말이다. 그런데 자그마한 난관에 굴복해서 잠시라도 교단을 비우다니... 너는 초소에 선 남편의 뒤통까지 말아 성스러운 교단을 더 잘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준절한 타이르심은 하마트면 흔들릴 번 했던 나의 마음속의 신념의 기둥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누가 알아주건말건, 보건말건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의 교단을 량심으로 지켜가리라. )

나는 새로운 결의와 신념을 안고 다시금 교단에 섰다. 성실한 노력이 은을 내어서인지 내가 맡은 학생들이 학기마다 우등,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했다.

내가 《새교수방법등록증》을 수여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간 날이었다. 그날은 공훈기술자인 아버지가 장군님의 배려로 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돌아온 날이었다.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은 전국대학생프로그람경연에 참가하여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고 녀동생

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에 입적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길에서 아버지가 발휘한 소행을 평가하시여 대를 두고 전할 귀중한 선물들을 안겨주시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받은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은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첫 성과를 대회에 참가하는것 못지 않게 귀중히 여기었다.

우리 집에는 귀중품을 따로 놓아두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아름다운 꽃장식을 하여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바라보게 하는 그 장소에는 우리 집의 가장 진귀한것들만이 놓이게 되어있다. 아버지는 대회에서 받은 선물들과 함께 내가 받은 《새교수방법등록증》도 함께 거기에 건사하였다.

그날 저녁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한생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세상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기술자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딸들이 다 그러하듯이 나도 나의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한다. 왜냐하면 한생을 평범하게 산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는 성실한 인간이 지녀야 할 량심과 도덕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모시는 전사로서의 자세이며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쉬임없이 배우고있기때문이다.

하여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교원혁명가의 크나큰 자량과 긍지, 화산처럼 솟구치는 열정과 깨끗한 마음을 안고 성스러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단을 지켜나가고있는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안철을 받쳐들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강의실로 발걸음을 다그칠 때면 한 아버지만이 아닌이 나라 공민의 깨끗한 애국의 량심이 나의 마음에 다시금 속삭이곤 한다.

## 가사

# 모란봉 너는 내 사랑

김소연

모란봉 푸르른 잔디우에서  
태어나 복받은 첫걸음 땀네  
봄날의 그윽한 꽃향기속에  
희망의 고운 꿈 실어보았네  
아 모란봉 너는 내 사랑

모란봉 울밀대 성벽우에서  
평양의 그 모습 새겨안았네  
내 조국의 아름다움 더하여주는

모란봉 너를 지킬 마음 키웠네  
아 모란봉 너는 내 사랑

달밝은 전호가의 그밤에도  
모란봉 너의 모습 그려보았네  
사랑하는 너를 지켜 위훈떨치리  
영웅되어 네 품에 다시 안기리  
아 모란봉 너는 내 사랑

## 체험의 진실성과 향토애의 서정

-시초 《고향길》을 두고-

김봉민

작가는 체험으로 글을 쓴다.

다시말하여 작가는 자기가 현실생활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일에서 충격을 얻어 거기서 종자를 발견하고 형상의 옷을 입혀 마침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의 심장이 불라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아져야 시문학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명시, 명가시풍년을 안아올수 있다.》**

명시, 명가사는 시인이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정속에서 창작되고 완성된다.

시인이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 충격이 없이 시를 썼을 때 그 시는 생경하고 억지스럽지만 생활에서 얻은 진실한 체험과 충격으로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오래도록 깊이깊이 파고든다. 시초 《고향길》(최준경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7년 1호)은 시인이 크지 않은 생활소재감에서 깊은 체험과 충격을 얻어 창작한 작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여운을 남긴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시초창작에서 우리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현실생활에 대한 시적체험의 깊이와 진실성이다. 시적체험은 하나의 시적계기를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전체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시적체험이 깊이가 없고 진실성이 부족하다면 시의 생명인 서정 역시 진실하게 살려낼수 없게 된다.

시초 《고향길》에서는 고향길에 대한 체험을 보다 심도있게 서정화하여 작품의 총적인 사상을 뜻이 깊으면서도 생활적으로 친근하게 밝혀주고 있다.

### 1. 진실한 체험, 독특한 종자

서정시에서 서정은 종자가 있어서 움트고 새로운 생활정서세계를 펼친다.

누구나 알고있는것처럼 종자는 작품의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즉 작품에서 종자는 주제로부터 출발하든 생활의 소재로 되는 시적계기에서 잡든 삶의 첫줄기를 물려준 어머니품 참된 마음을 키워 내세워준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거기에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심어져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종자는 시인이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느끼는 시적발견으로 되며 시창작의 출발점으로 된다.

시초 《고향길》에서는 시적체험에 따르는 종자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작품의 소재들에 대한 진실한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독특한 정서적알맹이들을 골라 작품의 서정을 생신하게 펼치고있다.

시초에서 시 《고향길로 들어서며》에서는 젊은 시절에 떠났던 고향을 다시 찾는 장령의 형상을 통하여 수십년만에 찾아오는 고향길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깊은 내면세계를 진실한 체험과정으로 그리고있다.

저 멀리 고향집뜨락을 앞에 놓고 함부로 차를 타고 들어갈수가 없어 《넓은 마을길을 저 멀리 남기고/ 소문없이 밭머리 오솔길로》 밭을 돌려 《술렁이는 강녕이있도 쓸어보며/ 청고운 까치소리도 즐거이 들으며》 취한듯이 걸어가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 이것은 시에서 노래하였듯이 《귀 밭머리 희여진 자식도/ 어머니앞에선》 철부지아이심정이듯 《나서자란 고향앞에선》 《소박한 막내아들의》심정으로 되어버린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다.

나서자란 고향, 자기에게 삶을 주고 희망을 준 고향은 정녕 나서자란 곳만이 아닌 어머니처럼 정답고 친근한 곳이라는 시적체험에서 진실함을 느낀다. 또 이렇듯 평범함속에서 진심의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하는 시의 서정에서 시적체험의 강렬함을 느낀다.

이렇게 시의 앞부분에서 별다른 굴절과 급격한 감정과동이 없이 잔잔한 흐름으로 물결치던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은 드디어 시의 마지막면에서 뜨거운 체험에 의하여 찾아온 사상정서적알맹이를 이렇게 밝혀주고있다.

...

오 고향

향토애의 정다운 첫 사립문  
선렬들의 피가 스민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땀으로 일떠세운  
조국애의 성스런 첫 대문이기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도  
함부로 어깨를 높이고 들어서는 곳 아니구나

고향은 향토애의 첫 사립문.  
고향은 조국애의 성스런 첫 대문.

바로 이것이 시인—서정적주인공이 고향길에서  
느끼는 시적체험의 기본핵이고 이 시의 종자인것  
이다.

시인—서정적주인공은 고향길에 들어서면서 정  
서적으로 체험하고 파악된 이 종자를 가꾸고 키  
우기 위해 여러가지 생활적인 형상들을 창조하였  
으며 결국 시에서 말하려고 하는것을 뜻깊게 밝  
힐수 있었다.

고향길에 문은 없다. 그러나 고향땅에 들어서는  
길을 무심히 지나지 않고 그것을 고향의 사립문,  
조국을 알게 하고 조국애를 심어준 성스러운 대  
문으로 체험하는 여기서 우리는 시적인 발견을  
느낀다. 또 아득히 흘러간 그 시절 풋강냉이 싸들  
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서정적주인공이  
오늘은 큰 별을 주련이 단 장령이 되었어도 고향  
앞에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은것 같아 큰길이 아  
니라 오솔길로 걸음을 잡는다는 생활형상에서 시  
전반에 흐르는 정서적체험의 색조와 음조의 흐름  
을 충분히 느낀다.

시 《고향의 박우물》도 역시 고향에 대한 진실  
한 체험으로 독특한 종자를 찾아줘서 시형상을  
이채롭게 펼치고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시는 앞의 시에서와는 달리 고향이라는  
넓고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보다  
작으면서 어린시절의 추억이 뜨겁게 어린 박우물  
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작품의 종자를 밝힘  
으로써 향토애와 조국애의 감정을 잘 결합시키고  
있다.

시에서는 먼저 박우물에 대한 시인—서정적주  
인공의 애뜻한 향수의 감정을 《못 잊을 추억을  
안고/고향집뜨락에 들어선》, 《먼길의 갈증으로 타  
는 목》을 《부엌의 수도물로 추겨도 좋으련만/먼  
저 박우물터를 찾아》, 《뒤동산기슭의 향나무밑  
으로》 발걸음을 옮겨 《어린시절 잔뼈를 키워준  
박우물/어머니젖같이 단 고향의 향수》를 맛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으로 그리고있다.

시에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작은 박우물에서 흘  
려나오는 서정적주인공의 깊고 아름다운 추억의  
세계를 그 박우물로 더 크고 무겁고 열렬한 사랑  
의 체험세계로 이끌어가고있다.

## 2. 시적체험과 랑만

...

아기를 기다린 어머니마음처럼  
박우물은 수정같이 맑은 샘 뿜어올리며  
풍요한 가슴을 통채로 맡겨주었네  
고향의 단젖을 어서 실컷 마시고 가  
나라위해 더 큰 공 세우라고

...

언제나 고향을 잊지 않고 산 서정적주인공에게  
있어서 고향의 박우물은 정가로운 샘물이기 전에  
우에서 노래하였듯이 온몸에 힘과 용기를 주는  
어머니젖과도 같은 생명수였다. 이런 깊고 뜨거운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로 하여 독자들은 고향  
의 박우물을 정가로운 샘물로, 애뜻한 추억의 향  
수만으로 생각할수 없게 된다.

하기에 시에서는 승화된 시적체험에 흠뻑 젖어  
있는 독자들에게 시의 뜨거운 사상정서적알맹이  
를 이렇게 내보이고있다.

...

아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쨍한  
고향의 박우물 정가론 박우물  
그것은 장령의 가슴속에 모금모금 흘러든  
정다운 어머니젖 고향의 뉘  
그것은 온몸에 용맹의 새힘을 주는  
조국애의 마르지 않는 젖줄기여라

작은 박우물이지만 거기에 부여한 서정적주인  
공의 체험이 깊고 진실하기에 이 시에서는 박우  
물이 조국애의 마르지 않는 젖줄기라는 작품의  
심오한 종자가 뜻깊게 밝혀지고있다.

모든 생명유기체는 자기의 종자 즉 핵을 가지  
고있고 그 핵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으며  
열매를 맺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정시도 작품의  
종자—핵이 자라 거기서 서정의 뿌리가 내리고  
체험의 줄기가 뻗고 정서의 아지를 거쳐 아름다  
운 형상의 꽃을 피우게 되는것이다.

시 《고향의 박우물》에서는 시인이 깊고 진실  
한 체험을 통하여 독특한 종자를 골라잡은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 작은 박우물  
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서정적주인공의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개방하고있으  
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시초 《고향길》에서는 랑만적인 시형상으로 독

특한 시적체험세계를 펼침으로써 시초의 성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시에서의 랑만은 곧 시인자신의 랑만이며 더 나아가 시대의 랑만이다. 즉 시대를 느끼고 시대를 노래하는 시인이 자기의 작품에서 랑만적인 형상을 창조하고있다면 그것은 시대의 랑만적특질을 체현한것이다.

시 《뒤동산에서》는 랑만적인 시형상으로 시적 체험세계를 독특하게 펼침으로써 선군시대 현실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헤치고있는 작품이다.

시에서는 뒤동산에서 군사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제와 아이들의 오늘 그리고 조국의 래일을 함께 생각하는 시인—서정적 주인공의 독특한 체험세계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 선군조국의 자랑찬 현실, 선군승리의 필연에 대한 확신이 랑만적으로 노래되고있다.

시에서는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서정적 주인공의 즐거운 체험세계를 이렇게 펼치고있다.

...

때마침이다  
동요시절의 추억을 대신 해주듯  
오늘은 조무래기들 한무리  
나무충을 휘두르며 뛰고 덩굴며  
흥겨운 군사놀이로 한창 신바람났구나

어제날 그리운 소꿉놀이친구들  
여기 뒤동산에서 다시 만난듯 한데  
얼마나 강한 일이나  
오늘은 새 세대가 군사놀이 나무충을 잡고  
래일의 꿈과 열망을 키우고있는것은  
...

장령의 동요시절의 어제와 나무충을 쥐고 군사놀이하는 아이들의 오늘!

어찌 보면 어울릴듯도 하고 어찌 보면 대비조차 안되는 시형상에 독자들은 저도 모르게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속에 즐겁게 침투하여 자신들의 어제와 아이들의 오늘을 재미있게 비교해본다.

시는 이렇게 독자들의 마음을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로 바짝 끌어당긴 후 다시금 그들의 심리세계를 이끌고 오늘에서 이어지는 래일, 앞날의 총대주인들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열망으로 이끌어간다. 하여 독자들은 《총대의 다음대》는 바로 오늘의 이 아이들이라는것과 《군사놀이 이 시절을 거쳐》 나오게 될 미래의 영웅들,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위두령길에 군모와 농립모를 나란히 벗어놓고 어제날 병사시절이야기  
오늘의 농사이야기

훈 떨칠 그 애들의 래일을 환희와 긍지에 넘쳐 확신하게 된다.

시에서 보여준 랑만적체험세계는 우리 선군시대 인간들이 느끼는 나무충을 잡았던 손에 《조국수호의 총대》를 틀어질 아이들의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이였다. 또 이 체험세계는 어뢰정과 비행기의 조종간을 잡고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켜갈 아이들의 위훈에 찬 래일에 대한 절절한 기대였다. 더 나아가 이 랑만적인 시세계는 오늘과 래일로 이어지는 시대의 자랑찬 현실, 《〈나무잎흔장〉을 단 그 가슴들엔》 번쩍일 영웅메달과 그로 하여 날마다 강대해지는 조국의 황홀한 미래를 긍지롭게 축복하는 시대의 더없는 기쁨인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랑만은.

《나무잎흔장》과 영웅메달.

나란히 놓기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흔장》들이지만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를 사랑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속에서는 이런 랑만적대조가 꼭 있어야 할, 아니 꼭 있게 될 틀림없는 사실로 확신성있게 감수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랑만속에서 긍지높은 조국의 래일을 기쁘게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는 독자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로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는 총대의 사명과 함께 그 총대의 주인공들이 있음으로 하여 날로 굳건해지고있는 선군조국의 위용에 대한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불타는 조국애를 다시한번 심어주고있는것이다.

### 3. 시적체험의 개성화

시는 시인의 개성적체험의 산물이다.

인간과 그 생활에서 새로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된 감정으로 노래하였을 때 그 시는 독자들에게 사상정서적충동을 안겨주게 된다.

시 《상봉의 기쁨속에 나눈 말》에서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에 의하여 짙은 서정이 부여된 특색있는 형상이 펼쳐지고있다.

시에서는 재미있는 세부를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군민이 하나되어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가고있는 오늘의 시대모습을 깊은 정서로 잘 그려보고있다.

시에서 세부가 들어있는 시련을 인용해보자.

...

오곡의 향기속에 취한듯  
상봉의 기쁨속에 나뉘가는데  
고향땅이 불러주는 축하의 노래가락인듯  
벼바다 설레이며 웃자락을 스치여라

...

우의 시련에서 두렁길에 나란히 놓인 군모와 농림모에 대한 세부, 이것은 하나의 시적세부이기 전에 오늘 군민이 나란히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가고있는 시대의 현실에 대한 형상적재현이다.

바로 여기서 독자들은 하나의 생활세부지만 그것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여 서정화한 시인의 독특한 개성을 느낀다.

시에서는 또한 《—군량미는 걱정말게/ 고향땅에 로적가리를 더 높이 쌓고/ 쌀로써 선군을 받들겠네》라고, 또 《—초소는 넘려말게/ 선군의 총대가 방선을 지켜 서있는 한/ 고향땅의 행복은 더 무르익을거네!》라고 함으로써 원군, 원민의 기풍으로 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가고있는 오늘의 시대모습을 개성적인 시형상으로 재치있게 노래하였다.

시는 이렇게 진실하고 생활감이 나는 개성적인 체험세계에 의하여 발산하는 서정을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들에는 낯알향기 가득하고 산에는 파알향기 넘쳐나며 시내가엔 발전소며 양어장들이 준비하고 골짜기엔 배부른 염소떼들이 무리지어다니는, 크고 번듯한 문화주택들이 저녁노을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고향산천과 조국강산을 한폭의 그림마냥 흐뭇하게 느끼게 한다.

시에서의 개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시적체험에서 혹은 언어표현에서 혹은 운률에서 등 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것들은 시의 사상적주장을 강조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시 《추석날의 비분》도 역시개성적인 시적체험으로 서정을 떠나간 감동깊은 작품이다.

고향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많은것을 생각한다. 레컨대 고향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다 류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것들이며 어린시절 뛰어놀던 산기슭이며 개울가, 동구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너럭바위 등 고향의 모든것은 많은것을 추억하게 하며 많은것을 련상하게 한다.

시초 《고향길》역시 대부분의 시들이 다 이런 고향의 추억과 많이 련관시켜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시초에서 시 《추석날의 비분》만은 이런 온갖 아름다운 추억의 화폭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증오의 서정, 불타는 적개심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승고한 사상적높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절감하며 이것을 새날의 닭울음소리에 대한 시적계기로 접하며 서정화한데서 그 체험의 개성적인 특징을

...

오랜 세월

초소와 초소로 직무를 옮기며  
군사복무로귀머리며 희여진 장령  
몇번 찾아보지 못한 부모들의 묘소를  
오늘 다시 찾아 벌초도 하고  
술 한잔 부어드리고싶었어라

...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향의 아름다움, 소중한것들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추석날의 비분을 터뜨리는 시인—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체험의 개성적인 특징을 찾으며 시의 여운을 감수한다.

인간의 감정은 구체적인 생활을 대할 때 그의 사상적요인에 의하여 구체적인 체험과 느낌으로 나타나며 일정한 생활적계기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표현된다. 시에서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감정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런 표현은 가식적인것이다.

시 《추석날의 비분》에서는 하기에 서정적주인공이 추석날에 분노를 터뜨려야 할 생활적인 계기를 타당성있게 제시하고있으며 그 분노 역시 응당한 체험의 산물로 안겨온다. 또 서정적주인공이 작품의 서정적성격의 주정세계를 펼치는 서정조직을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생활정서의 논리에 따르는 충분한 체험세계로 안받침하여 펼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그 체험이 진실하게 느껴지는것이다.

이렇게 시에서는 다른 시들과는 달리 고향의 아름다움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고향땅에서 원수들에 대한 증오를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독특한 형상으로 그려보임으로써 시초의 사상을 철학성이 짙은 서정으로 무게있게 밝혀주고있다.

다음시 《첫 닭이 우는 소리》역시 개성적인 체험세계로 작품의 사상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첫 닭이 우는 소리— 이것을 시에서는 《오늘은 고향집 들창가에서 들어도》《마음속의 신들메를》조여매게 하며 《병사시절 행군길》을 재촉하던 《새날의 나팔소리》로 듣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속에서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의 새로운 계기점으로 서정을 떠나가고있다.하여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선군의 총대로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선군시대 군인들의 느끼게 된다.

개성적인 체험으로 작품의 사상을 강조한 작품으로 또한 시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를 들수 있

다.

이 시에서는 시적체험을 독특하게 하고있는 앞의 시들에서처럼 특별한 개성이 드러날수 있는 시적대상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에서는 고향을 떠나며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세계에 대한 침투과정으로 시적체험을 앙양시키고있으며 그 앙양된 체험이 생동한 시적표현들로 독특하게 드러나고있다.

...

향촌에서 보낸 날은 길지 않았어도  
고향은 장령에게 무한대한 힘을 준  
소중한 향토애의 시작점  
불타는 조국애의 디딤돌로 되었거니

고향은 향토애의 시작점, 불타는 조국애의 디딤돌!

얼마나 뜻이 깊고 독특한 체험이 느껴지는 표현들인가.

사랑은 작은것에서 큰것으로 이어지고 지향된다.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을 사랑할수 없듯이 자기의 부모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이웃들과 나아가 자기 군대와 인민을 사랑할수 없다.

이렇게 사랑은 가장 작은것에서 시작되기에 고향을 사랑하고 부모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아가 자기의 모든 동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이것들이 곧 열렬한 조국애로 되는 것이다. 하기에 시에서는 고향은 소중한 모든것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주고 고향의 모든것들에 대한 사랑을 준 향토애의 시작점이라는것, 또 이런 《작은》 사랑들이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준 디딤돌들로 되었다는 고향에 대한 철학적인 체험세계를 자체내에 깊은 정서를 내포한 생동한 표현으로 뜻깊게 토로하고있는것이다.

또 다른 레를 들어보자.

...

나서자란 고향의 동구길을  
장군님 그어주신 작전도의 화살표따라  
저 멀리 초소와 산과 들 넘어  
위훈의 한길로 이어가기 위해  
장령은 발동소리높이 떠나간다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

여기서도 역시 개성적인 체험이 엿보이는 표현들이 구사되어있다.

길지 않은 향촌의 날을 보내고 이제는 떠나야 할 이 동구길, 이 길을 단지 부대로로의 귀로가 아니라 우리 장군님께서 그어주시는 작전도의 승리의 화살표따라 나아가는 위훈의 길로 생각하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시인 특유의 체험의 색깔이 있는것이다.

시는 작은 그릇속에 뜻이 깊고 풍부한 생활감정을 담아야 하며 그 생활감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일반화하여 정수적인것을 반영해야 한다.

시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에서는 이에 맞게 시적표현을 하나 써도 일반적인 개념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개념과 함께 시적의미의 빛깔과 시적정서의 뜨거움을 함께 나타내는 표현들로 시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시의 주제사상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이처럼 시초안의 시들은 모두 여러가지 특징을 가진 시적체험들로 향토애는 곧 조국애라는 시초의 총적사상을 다각적으로,다면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시초작품으로서의 자기의 공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시초에서는 이런 성과와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남기고있다.

시 《장령과 백양나무》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어린시절에 심었던 나무, 오늘은 아름답드리거목으로 자란 백양나무앞에서 조국애의 시작점에 대한 자기의 체험세계를 그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은 이 시초전반에서 특징적인 성과로 찾아보았던 시적체험의 독특한 형상이 시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펼쳐지지 못했다는것이다. 물론 시에 시적체험이 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우리에게 다른 시들에서 받았던 인상에서보다 특별한 개성적느낌을 주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독창적인 서정의 맛을 덜느끼는것이다.

이와 같은 아쉬움은 있지만 시초 《고향길》은 전반적인 작품들에서 진실하고 개성적인 체험과 정으로 작품의 종자를 두드러지게 살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비교적 잘된 작품으로 볼수 있다.

시초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특징적성과들은 우리의 시인들이 현실생활에서 시적체험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좋은 경험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 영원히 총과 함께 (외 1 편)

리광훈

이밤은 수호의 밤  
은하수 비껴간 전호가  
나의 총구에 어깨우에 철갑모우에  
무거운 침묵이 서리고  
명령한 밤이슬이 맺혀 흐르는 밤

이런 때면 예나제나 다름없이  
내 심장의 고백 뜨겁게 터치나니  
총이여, 내 운명의 총  
둘도 없는 나의 전우여

내 너와 언제한번 잠시나마  
떨어져 따로 운명 나눈적 있었던가  
무릎치는 스눈속 험한 행군길에서도  
사품치는 강물속 헤쳐 건널 때도  
너와 나는 함께 있었더라

철갑모 베고 누운  
숙영지의 천막가에서도  
내 공기로만 숨을 쉬며 살았던가  
총에서 내뿜는 화약내와 기름내로  
내 단잠에 들곤 하지 않았던가

초연이 흐르는 실탄사격장에서  
나의 총구가 복수의 탄알을 날릴 때  
이 병사의 가슴속 분노의 총구에서도  
멸적의 불길은 함께 뿜었더라  
때로 훈련의 실참 단가슴 식힐 때마저  
달아오른 나의 총구는 원쑤, 원쑤를 찾았거니  
아 총이여, 너는 나 나는 너

너의 탄창속엔  
나의 분노 탄알로 재워있고  
나의 가슴속엔  
너의 총탄이 육탄으로 장진되어있나니

총이여 너의 격발기는 그대로  
격동된 나의 전투자세  
너의 방아쇠는

내 가슴속 복수의 퇴관  
조성조문은 멸적의 자리길

아 총가목마저  
내 심장의 박동이 울리는  
살결처럼 부드럽고  
총끈조차 만일 끊어진다면  
내 숨결도 금시 끊길것만 같은  
내 운명의 총 둘도 없는 나의 전우여

그 누가 말했더나  
총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나 나는 세상에 말하고싶구나  
총은 내 몸의 전부라고  
내 조국의 전부라고

오 영광이여라  
기쁨이여라  
총이 없어 다 잃었던 내 고향 내 조국총대로  
다시 찾은 이 땅 이 하늘  
이 총으로 지켜가는것은

가슴에 꼭 안고 귀를 기울이면  
멸적의 총탄으로만 숨을 쉬는  
총의 거세찬 박동소리가  
계급의 숨결소리로 금시 들리는듯

오 조국의 전호가에서  
내 더 억세게 틀어잡는  
수령결사옹위의 총  
조국수호의 총이여

내 너와 함께  
최고사령관기 휘날리며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는  
너의 사명 나의 의무 다할 때까지  
피로써 숨결을 함께 하리라  
영원히 총과 함께!  
영원히 총과 함께!

## 비행사와 땅

오늘도 나는 하늘길을 난다  
순간에 아득히 땅은 멀어져도  
마음속엔 자꾸만 따라서는구나

따라서는구나  
비행장지휘소에 나뿜기는 항공기며

벼이삭 물결치는 기름진 들이  
마을이며 공장이며 푸른 산밭들이

아마도 땅의 귀중함  
내 하늘에서 알았기때문이리  
하늘에서도 땅만은 땅만은



내 가슴속에 안고 사는것은

땅에는

나의 소중한 모든것이 다 있네

잔뼈속에 비행사 꿈을 키운

정든 내 고향

물과 공기처럼 그것없인 살수 없는

혁명의 수뇌부

우리 심장 평양이 있네

그래서 내

땅을 그리도 사랑하면서도

땅 떠나 멀적의 우리만을 터치며

하늘에 사는것 아니더냐

장군님품 어머니조국위해

그렇다 땅은, 땅은

잃고선 못살 나의 집, 나의 조국

하늘은 하늘은 그 지붕우에

다시는 포화가 쏟아지지 못하게

우리 한시도 비울수 없는

비행사의 전호라네

결전장이라네

## 최고사령관과 신입병사들

박세일

한달전

아직은 학생티를 채 벗지 못하고

군대나간 내 아들이

오늘은 글썄

입대후 첫 편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반장아주머니

옆집의 순애 엄마

어서들 보우

신입병사훈련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내 아들이 영광의 기념사진 찍었다오

복무년한이 있는

사관들도 아닌

한달전에 입대한 책상물림

빨간 령장의 전사들이 글썄

이런 영광 지닐줄

어찌 알았겠소

꿈인지 생시인지

차마 믿을수 없어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아도

장군님 서계신 바로 뒤줄에

듬직하게 서있는 이 병사가

내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복무의 한길 곧바로 가라고

학습정형도 료해하시고

선군승리열병식장을 행진해가는듯 한

훈련모습도 보여주신 장군님

막내아들 집을 찾은

아버지 되시여

한중칸온도도 가늠해보시고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셨답니다

막내딸 집을 찾은

어머니 되시여

튼김서린 취사장에 들리시여선

연두부 앗는 방법이란

세심히 가르쳐주셨답니다

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일심단결 대가정의 아버지 되시여

친부모의 손길이 가닿지 못하는

신입병사훈련의 첫걸음을

사랑과 믿음으로 떼여주신 장군님

누가 사진에

지나간 추억만이 비낀다 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사진에서

내 아들 세대들이 떠메고나갈

선군조선의 미래를 내다보고있습니다

생각깊이 아들의 편지를 접으며

다시 삼가 기념사진 우러르니

군모에 반짝이는 저 오각별들은

선군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굽이쳐흐르는 별무리가 아닙니까

한빛으로 붉게 물든 전사들의 저 령장은

선군혁명붉은기의 그 한폭이 아닙니까

저 사진에서

나는 지금 보고있습니다

결사용위의 성새를

그 성새의 성돌중의 하나가

아 선군시대가 품어안은 내 아들입니다

##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를 지켰다

주명옥

### 《우리 가정 수첩》

손때묻고 보풀이 일었어도  
거울처럼 내 마음 비쳐주는  
《우리 가정 수첩》

오늘도 조용히 펼쳐드니  
마주 오는 사람들  
모두가 구면인듯  
판매원 나에게  
정겨운 미소로 인사를 보내주던  
아침출근길 어려오누나

그들은 나를 알고나는 그들을 다 모르고 받은  
인사

누구일가 생각 더듬으며  
바쁜 걸음 서로 어기던 일...  
문득 가슴치는 생각이여  
내 때로 매대에 찾아온  
그들속의 그 누구에게  
잠시라도 흐린 얼굴 보인적은 없었던가  
그들의 목소리 흘러들은적은 없었던가

집집의 숟가락 몇개며  
그 식구들의 신발문수까지 다 알고있어야 할  
나의 봉사세대

아 한식술같은 그들을  
진정 내 다 모르고있었구나

그들은 판매원 나를  
쉽게 알수 있어도  
그들을 내 다 알기는 험치 않으리  
영예군인의 결혼식이며  
로병들의 생일도 잊을세라 늘 마음쓰며  
비 내리는 밤길도 자주 걸어야 하기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선 매대는 작아도  
온 거리 온 도시가 지켜보고있었네  
내 웃음  
내 목소리  
내 걸음새까지도...  
저들이 나를 알듯이  
내 저들을 다 알며 바쳐온  
마음속 진정도 더운 땀도 다 비껴있어  
어느때 펼쳐보아도  
참된 봉사자의 넋을 새겨주는  
아 《우리 가정 수첩》이여  
정녕 너를 떠난  
판매원 나의 숨결 생각할수 없어라

### 일러소묘

#### 1. 첫말

《이제부터 어머니가 되어야 해》  
단발머리 신입판매원  
그에게 한 나의 첫 말이였다  
《예?》  
놀라움이 가득 실린 까만 눈동자  
빨강게 물드는 오동통한 두볼

하지만 그도 알게 되리  
내가 매대에 처음 서던 날  
선배언니가 한 첫말도 그 말임을...  
봉사자의 의무를 자각케 하는  
우리의 《계주봉》인 그 말을...

#### 2. 기쁜 소식

명절봉사로 홍성이는 매대에  
기쁜 소식 날아왔네  
《그 영예군인의 안해가  
첫 아들을 낳았대요!》  
결혼식이불이며 첫살림 부엌세간이며  
성의껏 마련하느라  
무척 마음 기울이던 판매원들  
즐겁게 서로 주고받으며 떠들썩—  
《우리 가정 수첩》에 올라야 할  
우리 식구 또 한명 늘어났다네

### 3. 다시마

전마선에 넘칠듯  
가득 실은 다시마 다시마  
양식공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욕심스레 따들인 다시마, 다시마  
한차 듬뿍 싣고 상점으로 돌아오는 밤  
적재함우에 넉넉 올라앉으니  
그제야 생각나는 배고픔...  
산 물고기인양 푸들거리는 다시마줄기  
입에 넣고 씹으니 아 그 맛은 얼마나 달았던가  
비물과 함께 씹었어도 마음 흥그러웠던  
마흔살 되는 생일날 못 잊을 귀중한 끼니였지

### 4. 가을날

새로 늘인 함박꿀 원료기지  
가을길이 한창인데  
누군가 불쑥 하는 말  
《강냉이창자가 작을것 같애》  
그러자 던지시 받아넘기는 소리  
  
《주렁주렁 이삭채로 걸어놓은  
금빛장대기들을 가득 세우면 되지!》

그 바람에 와—  
너인들의 웃음가을  
온 등판이 부러워 바라보았네

### 5. 새벽종소리

어느 집에선가  
첫 열차를 타고 출장길 떠날  
남편의 아침밥 서두르는 주부의 기척인듯  
가마뚜껑 여닫는 소리  
한두번 가볍게 울렸을뿐  
아직도 새벽은 고요한데...  
《딸랑》, 《딸랑》 이동판매 종소리  
주력지구 마을길을 돌며 그고요를 흔든다  
뒤미처 하나, 둘 커지는 창가의 불빛들  
새날의 첫 음향인양  
너인들의 동자질소리 차츰 높아간다  
반가운 얼굴로 문열고 나오는 그 모습들 향해  
김이 물물 나는 국이며 갖가지 반찬들과 김치...  
알뜰히 담아실고 오는종소리, 종소리  
누구인들 모르랴  
이제는 온 거리가 온 도시가 다 아는 저 소리  
어려운 날에도 궂은날에도 끊기지 않았던...  
아, 당의 사랑이 인민을 먼저 깨우는 저 소리

##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를 지켰다

몇걸음이면 끝나는  
자그마한 봉사매대  
사람들의 발걸음 생활의 파도인양  
그칠줄 모르는 이곳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지켰다  
  
복스런 아이들의 연필이며  
알뜰한 너인들의 손바늘에 이르기까지  
좁에 차지 않는  
그처럼 작은 상품들에도  
크나큰 사랑의 시책이 깃들어  
행복의 웃음을 주는...  
  
주문상품 한가득 안고  
집집의 문 두드릴 때면  
친팔처럼 반겨맞는  
그 따뜻한 마음들에 받들려  
봉사자의 긍지 노래처럼 즐거워지는...  
  
그러나 행복한 그 세월에  
어찌다 알수 있었으랴  
내 품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심장처럼  
내 운명과 가를수 없는 목숨처럼  
그토록 귀중한 그 품을  
  
잊지 못할 고난의 시기

어찌하여 이 땅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 구호를  
더 귀중히 여기는가를 나는 알았다  
웃음과 즐거움만으로 다 알수 없었던  
그 사회주의 고마움을  
나는 더 잘 알았다

인민들의 생활의 숨결소리  
가장 가까이 들리는 이곳  
내가 지켜야 할  
아 그 사회주의였나니  
비록 크지 않은 일터였어도  
병사가 지켜선 최전연  
그전호와 무엇이 다르랴

하기에  
하나의 상품을 품에 안고  
낮설고 험한 두메까지  
발이 부르르게 걷고 또 걸은것은  
눈덮인 고개길을 넘으며  
꼬바기 한밤을 지새우기도 한것은

진정 그 얼마였던가  
주부의 손길 남편에게 부탁하며  
원료기지 새땅개간에 웃으며 나서던 아침은  
가득나무있으로

모자라는 뿔잎을 대신하며  
곱질러 부은 다리로  
힘겹게 오르내리던 산비탈길은

시련을 겪는 조국앞에  
손내밀지 않았던 이 나라 어머니들처럼  
봉사주민들의 살림살이돌보며  
부족한것을 제힘으로 마련하던 그 나날  
밤새워 마련한 갖가지 식료가공품  
웃으며 받아드는 사람들의 모습

눈곱저릿이 바라보던 그 심정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그 진심이 있고 화목이  
있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  
뼈저리게 절감하게 한 나의 일터여  
아, 나는 여기서 사회주의를 지켰다

## 평론

# 선군시대와 조국애

## -런시 《선군시대 아이들》에 대한 론의-

김덕선

얼마전 나는 출판사의 평론담당편집자와 런시 《선군시대 아이들》 [강옥녀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6(2007)년 7호]에 대하여 론의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때 그와 나는 대화과정을 선군시대와 조국애에 귀착시켜 지상에 전하자고 한다.

×

**기자:** 오래간만입니다. 요즈음 선생은 어떤 평론을 쓰고있습니까?

**나:** 예, 선군시대와 조국애를 두고 시평론을 구상하고있는데 작품선택이 신통치 않아 시작품들을 연구하고있는중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조국애를 두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도 실례되지는 않겠습니까?

**나:** 천만에 말입니다. 작품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론은 군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선생도 보셨겠지만 런시 《선군시대 아이들》을 취급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나:** 아, 기자동무도 면바로 보셨군요. 아닌게 아니라 나도 그 작품을 놓고 골똘히 생각하던중인데 마침 잘 만났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저의 평론원고집필에 도움이 되게 우리 좀 론의해보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럼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사람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 그렇습니다.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그 어느 시대에 있어 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지만 오늘의 선군시대에 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선군이란 곧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조국을 수호한다는것은 조국을 사랑한다는 조국애의 의미를 떠날수 없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런 의미에서 런시 《선군시대 아이들》은 아이들이 군사놀이를 하는 심리를 통하여 선군시대 우리 아이들은어릴적부터 놀음놀이를 하나해도 조국을 사랑하고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한 데로 지향하고있는 선군시대 아이들의 동심이 가지는 본질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옳게 보았습니다.

**기자:** 그러면 그 동심의 본질이지작품에서 어떻게 형상되고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런시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동심적지향을 내 나라의 사계절, 즉 봄, 여름, 가을과 겨울에 서로 달리하는 군사놀이를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도 그 군사놀이마다에 조국을 지킨다는 사상정서적의미를 깊이있게 깔아주고 그것을 반미대결전의 사상으로 관통시킴으로써 선군시대 아이들의 정서적지향의 본질은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려는 기질을 가지고있다는것으로 형상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시 《한여름이아기》에서는 아이들이 모자를 풀잎으로 위장하고 버들잎견장을 붙이고 웅덩이에 뛰어들어 보초를 서는 계기, 시 《가을뜰판에서》에서는수수대말을 타고 길다란 회초리를 칼인듯이 강냉이짚무지를 휘휘 치며 달리는 계기, 시 《통쾌한 겨울》에서

는 눈으로 미제놈을 만들어놓고 처마의 고드름을 창검마냥 쥐고 미제놈을 향해 돌격명령을 내리는 계기, 시 《봄선물》에서는 민들레꽃을 훈장처럼 달고 마을에 들어서는 시적계기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비낀 동심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을뿐 아니라 싸우면 언제나 이기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용감하면서도 억세고 슬기로운 기질을 동심에 체현시키고있음으로 하여 조국수호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온 선군조국의 기상을 시형상으로 잘 살려내고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시형상의 구체적대목들을 실례로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나:**그렇시다. 노래를 선물로 감상해야만 하듯이 시도 그 시적표현들을 그대로 읊어보면서 감수해야만이 시의 진맛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옳은 말씀입니다.

**나:**보십시오.

모자엔 풀잎 꽃아 위장을 하고  
어깨엔 버들잎견장을 붙이고  
아이들이 웅덩이에 뛰어들어  
《보초》를 섭니다

...

얼마나 생동합니까. 아이들이 여름군사놀이를 하는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 선명성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적계기를 통해 보다 깊은 시의 의미를 낳고있다는것이 더 중시됩니다.

...

지난날엔 우리 부모들이  
침략의 불구름 몰아내며 지켜낸 동구길  
지금엔 우리가 지키고  
또 앞으로 저 애들이 지켜갈 동구길  
바로 저 동구길을 그 누가 감히 넘본단 말입니까  
새별눈이 반짝반짝 총알같은데...

...

**기자:**그렇습니다.  
하기에 시인은 결구에서

...

얼마나 좋습니까  
활력에 차넘치는 한여름이  
아이들의 이런 군사놀이도 있어  
내 하늘이라 마음놓고 줄당콩은 치달아오르고  
내 땅이라 마음놓고 나무아지는 자라  
푸른 숲 우거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처마의 고드름 똑 따서  
서슬푸른 창검마냥 한손에 쥐고

이렇게 주정을 토로하는것이 아닙니까.

**나:**옳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깊은 형상은 이 시뿐 아니라 시 《가을들판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

수수대말 타고 찌찌  
질풍같이 달리며 찌찌  
길다란 회초리는 긴 칼인듯  
강냉이짚무지를 획획 치며 달리는 아이들

얼마나 장합니까  
원썬놈을 단칼에 베어버릴듯  
강냉이짚무지를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

...

시적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면서도 섬세합니까. 시인이 녀성이어서인지 시적표현마다가 참으로 진실하면서도 꾸밈새가 없이 아이들의 생활 그대로가 차분히 안겨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고 꾸밈새없는 진실성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생활적인 정서를 통해 보다 큰 시의 사상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상의 도출을 시인은 분조장아주버니의 심리를 통해 얼마나 멋들어지게 드러내고있습니까.

...

내달려라 아이들이 땅땅 여문 이 벼알도  
저 애들의 손에선 총알이 될지 어이 알랴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도  
포탄처럼 쓰일지 어이 알랴

**기자:**정말 멋이 있는 시적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내 조국의 가을이 좋은것은 《풍요한 이삭을 가을하는/이 들판우에/아이들의 군사놀이도 무르익어...》 좋다고 주장하고있지 않습니까.

**나:**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내 나라, 내 조국에 자라고있으며 이들이 강성부흥하는 조국의 미래를 지켜가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아름답고 더 찬란한 미래로 밝아오고있는것입니다.

런시가 사계절의 특성에 맞게 시적계기를 잘 설정하고있다는데 대해서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시 《통쾌한 겨울》은 얼마나 계절적특성에 맞는 시적정황을 취급하고있습니까.

눈으로 미제놈을 빚어놓으니  
목표가 뚜렷합니다  
여름내 가으내 군사놀이가  
마치 이 겨울을 위해 있었듯  
아이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양코배기 미제놈을 향해

돌격명령이 내립니다

...

얼마나 겨울에 잘 어울리는 군사놀이입니까. 시에서도 표현되었지만 여름과 가을에 있었던 군사놀이는 즉 여름엔 보초를 서고 가을엔 수수대말을 타고 달리는것은 곧 미제놈을 무찌르는 실전을 위한 훈련인듯싶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계절적특성을 잘 살려낸것은 시 《봄선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는 민들레꽃을 훈장처럼 달고 마을에 들어서는 생동한 시적계기와 그 시적표현도 재치있지만련시의 마지막으로서의 시를 얼마나 잘 탐색하였습니까.

**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이기고야 고향집에 돌아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개가 동심의 지향에 맞게 훌륭히 구현되고있습니다.

...

우리 알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가슴에만

금별메달이 빛나듯

민들레꽃을 훈장처럼 달고온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언제나 이기고야 고향집에 돌아오는

아이들 그 마음에

만물이 움터자라는 이 봄이

우리 꼬마군대들에게

맨션참 민들레훈장을 선물한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시적일반화입니까. 이를 위해 시인은 사계절을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로 순차적으로 놓지 않고 반대로 여름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을과 겨울, 봄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시적내용과 사상을 추구하는데서 얼마나 적중한 련시의 구성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련시의 구성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논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옳습니다.

**나:** 이 련시가 가지고있는시형상의 특성은 다음으로 서정적주인공 즉 시인이 아이들의 어머니와 또 그 아이들을 보는 여러분, 분조장아주버니, 철이 어머니, 배나무집 남이 아버지들을 제발시켜 시의 정서를 친근하면서도 정당게 형상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아이들의 군사놀이를 보는 심리정서를 보다 폭넓게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시의 정서를 더욱 풍만하게 해주고있습니다.

매 시편마다에서 결구에 시인이 발견한 시적주장을 간명하면서도 뜻이 깊게 표현할줄 아는 시의 높은 형상력을 엿볼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

풀뒹굴새 빠금히 내민 얼굴엔

새별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머니 봐줍시다

풀물들어 옷이 좀 어지러운들 뭐랍니다

풀가시에 얼굴이 좀 굵히운들 뭐랍니다

(시 《한여름이야기》 중에서)

방점을 친 시행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 봐줍시다》라고 호소한것이라든가

마을에서 복새판 퍼우던 군사놀이

이가올엔 들판으로 몰아왔으니

여러분

벼가율이 아무리 바빠도

허리를 잠간 펴봅시다

...

(시 《가을들판에서》 중에서)

라고 읊조리면서 《여러분》을 불러내는것과 같은 시형식은 아이들의 군사놀이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가도록 하는데 큰 형상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수법으로 하여 련시의 마지막시 《봄선물》은 얼마나 귀맛이 있게 들려오게 하고있습니까?

...

성미 급한 철이 엄마

늦어온다고 꾸지람 따시다

배나무집 남이 아버지토키풀바구니 비였다고 나무람 따시다

...

보는바와 같이 시의 이러한 형상수법으로 하여 시는 마치도 시를 읊는 독자들에게 친근한 정서를 안고 속삭이듯이 들려주는것만 같습니다.

**기자:** 시의 이러한 형상수법은 그 시인에게만 고유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형상수법은 그 시의 류다른 색깔로도 되며 독특한 맛으로 느껴지게도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시인의 체취, 개성이라고도 말하는것입니다.

련시 《선군시대 아이들》은 이러한 형상적특성 외에도 선군시대 아이들의 동심을 느껴보는 서정적주인공과 시에 등장시킨 인물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시의 서정을 교감시키고있는것이라든가

이리하여 련시 《선군시대 아이들》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동심적지향에 맞게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

에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조국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해야 한다는 시의 사상 주제적과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 시의 결함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정말 시의 우점만 이야기하다나니까 결함에 대해서는 놓쳐버릴뻔 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시인이라면 우점을 말해주는 평론가보다 결함을 말해주는 평론가를 더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이 시에 대한 결함을 꺼리낌없이 말한다면 시의 계기들을 사계절에 치우쳐 찾다나머지 우리 아이들의 군사놀이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취급하고있는감이 듭니다.

**기자:** 말하자면 앞에서 다 분석해보았지만 보초를 서고, 수수대말을 타고, 눈으로 미제를 만들어 놓고 찌른다는것 같은 계기들을 말이지요.

**나:** 그렇습니다. 실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군사놀이를 하는것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의미가 깊습니까.

레하면 최줄을 전화선으로 늘어놓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예술영화 《월미도》의 영육이처럼 끊어진 최줄을 두팔을 벌려 연결하는 동작이라든가, 적의 화점을 까부시는 리수복의 군상처럼 화점을 향해 날아드는 동작이라든가, 한여름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물에 빠져 숨지는 아이를 구원하는듯한 동작을 하면서 《동무! 죽어선 안되오!》라고 소리치면서 도하하는 장면을 펼친다든가, 태권도를 비롯한 격술동작으로 적들과 육박전을 벌리는등 오늘 우리 아이들의 군사놀이는 실전을 방불케 하고있으며 그 훈련모습을 보기만 해도 원수놈들이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봄 마을가에 고깔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뛰어넘는 훈련을 하느라고 바지가랭이가 다 타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일은 또 얼마입니까.

**나:** 그렇습니다. 만약 이 런시에서 이런 계기들을 보다 탐구적으로 설정하고 시의 사상을 일반화하였다면 조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동심을 보다 깊이 심어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저 역시 동감입니다.

시의 정황, 시적계기를 극적으로 설정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극적인 운명의 정서가 취급될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보면 이 런시에서는 아이들의 자그마한 군사놀이를 보고도 마을사람들이 대견히 여기는데만 치중하고 실지 감동적인 군사훈련으로써 부모와 마을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울려주는데는 형상의 몫을 덜 돌린것 같습니다.

**나:** 옳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첫시 《한여름이야기》에서 웅덩이에 뛰어들어 보초를 서는것보다 동구길에서 보초를 서게 하면 시적계기가 시의 사상과 더 잘 맞물릴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자:** 그리고 시 《가을들판에서》를 보면 《내달려라 아이들이/땅땅 여문 이 벼알도/저애들의손에선 총알이 될지 어이 알랴》에서 《저 애들의손에선》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에선》으로 표현해야 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 옳습니다. 참 아쉽다고 해야 할가, 유감이라고 해야 할가...

시인의 앞으로 창작에서 교훈으로 된다면 기자동무와 나 역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논의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나의 평론원고를 위해 짧은 시간을내어 진지하게 논의해준 기자동무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서둘러 나의 서재에로 돌아왔다. 금시 나는 대화과정을 빼놓을세라 그대로 정서해놓고 편 집부에 주기 위해서였다.

## 가사

### 내 고향 벌에 아침해 솟을 때면

내 고향 백리벌에 아침해 솟을 때면  
찬눈덮인 12월 그 새벽이 어려오네  
전선천리 이어오신 장군님 자옥따라  
천지개벽 새날이 이 땅에 찾아왔네

내 고향 백리벌에 아침해 솟을 때면  
못 잊을 그날처럼 노을이 붉게 타네

솟눈길을 헤치시던 장군님 그 사랑이  
복받은 대지에 새봄을 안아왔네

내 고향 백리벌에 아침해 솟을 때면  
아버이 그 모습 사무치게 그리워라  
지평선 저 끝까지 금나락 펼쳐놓고  
장군님을 다시 모실 그날을 안고사네

최정호





김달수

조용하던 발전소건설장 합숙식당의 커다란 문이 점심시간이 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거기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차림을 한 서너명의 젊은이들이 떠들썩하며 들어섰다. 주방칸에서 배식구로 그들을 바라본 영숙은 덜컥거리며 뺨안김을 내뽐고있는 커다란 국가마의 뚜껑을 열었다.

《어머니, 나 왔어요.》 이런 소리와 함께 별스레 커다란 청년의 머리가 배식구로 쑥 들어왔다.

그러더니 영숙을 보고서는 놀란 눈길로 두눈을 껌벅이더니 큰소리로 물었다.

《영, 동문 누구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다. 분명 아이가 돌썩이나 되는 자기보다 나이가 썩 아래이겠는데 초면에 말투가 곱지 않았다. 주방칸에 뜬김이 뽕얇게 서려 잘못 볼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그는 마음이 언짢았다. 그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금 룬 뜨거운 국과 밥이 담긴 다반을 그에게 쑥 내밀었다.

《엇 뜨거워.》순식간에 청년의 머리가 사라졌다.

《동철이, 왜 그래?》

옆의 젊은이들이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며 이렇게 물었으나 그 청년은 한쪽 볼을 문지르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뿐이었다. 그러자 둥그런 모양의 배식구로 여러쌍의 눈길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다.

영숙은 자기가 그들에게 인물심사라도 받는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그중 순해보이는 눈동자가 묻는 소리였다.

《이제 와요.》영숙은 기분이 좋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며 고개들을 기웃거리고는 내여주는 밥그릇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빈 식탁에 그냥 빙 둘러앉는것이였다. 방금 동철이라고 불리운 청년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수군대며 말하는데 영숙에게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소리를 하는것처럼 생각되었다.

《식사들을 안해요?》영숙이 묻자어머니가 어디 갔느냐고 묻던 청년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시뻘하니 대꾸했다.

《우린 어머니가 온 다음에 하겠어요.》

밥과 국이 담긴 다반을 들고 그들을 바라보던 영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있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예 주방칸에 나타나지부터 않았을걸 하는 느낌이 든다. 자기가 당한 모욕도 모욕 이거니와 이제는 나이가 예순살이 된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런 젊은이들의 단련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방금전에 한호실에있는 설계실에서 사도공으로 일한다는 남순이라는 처녀가 앓아누워 점심밥을 싸가지고 잠깐 자리를 뜬 어머니였다.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고 한것이 이렇게 될줄이야...

또 한패의 젊은이들이 들어섰다.

《밥이 늦어졌나?》하고 그들이 묻자 앉아있던 청년이 주방칸쪽을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다.

《헛내기인 모양이지.》

《이제 어머니가 온다누만.》

그러자 두패의 젊은이들은 빈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저희들끼리 법석거렸다.

영숙은 입술을 옥물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꼭 모셔야야 하겠다는 결심이 그의 머리속에 굳어졌다.

《왜 그러고 서있느냐? 점심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어느새 주방칸에 들어선 어머니가 의아한 눈길로 영숙을 바라보며 묻는 소리였다.

그러나 영숙은 한켠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얀 뜬김때문인지 어머니의 머리칼들이 별스레 더 희게 보였다.

《어머니!》

동철이 배식구로 어머니를 알아보고소리쳤다

《자네들 식사들은 안하고 왜 그렇게 앉아만 있나?》 어머니의 말에 젊은이들은 그저 씨물씨물 웃기만 하는데 동철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음식이야 눈으로 먹지 입으로 먹나요?》

그러자 옆의 청년들이 하하하 하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어머니는 아직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다는 듯 옆에 서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영숙은 입술을 감쌀며 어머니가 내여준 음식들이 맛있다고 부지런히 수저를 놀리는 청년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뿐이었다.

《영남아, 오늘도 야간작업을 하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한 청년이 입에 문 음식을 꿀꺽 삼키더니 말하였다.

《그럼요. 모두가 이 발전소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자고 들고뛰는데 우리 젊은것들이 가만있을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나오실래요?》

옆에 앉은 청년이 그에게 통을 준다.

《우리 어머니도 돌격대원이라는걸 잊었어?》

그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퇴식구로 빈그릇들을 내보내며 동철이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태일이 우리 남수 돌생일이라는걸 알지요?》

《그럼.》

《꼭 오라요. 그런데 우리 남수 엄마가 어머니보담은 음식을 잘하지 못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짐짓 성이 난체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또, 또. 내앞에서 다시한번 그런 말을 했단 바라.》 하며 그에게 눈을 흘기자 동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머리를 긁었다.

《걱정말아라. 내 꼭 가마.》

영숙은 의아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태일은 바로 어머니의 생일날이다. 그래서 자기가 수백리길을 왔는데 남의 아들 돌생일에 간다는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한평생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뒤바라지를 해주며 살아온 어머니였다. 이 수력건설연합기업소는 온 나라의 강줄기들에 대규모의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기업소이다. 하나의 발전소를 일떠세우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장자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 대동강발전소, 태천발전소 그리고 지금은 여기 레성강발전소에서... 어머니도 이렇게 한생을 보내왔던것이다.

지금껏 영숙은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최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는 말이 꼭 맞는것 같다. 자기는 편안히 안착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한생 떠돌아다니게 하였으니 불효자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긴 그도 일찌기 방향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처럼 될번 하지 않았는가.

이 기업소에서 설계실 사도공을 하던 그는 대오래간만에 만난 딸을 부여잡고 기뻐하던 어머

니를 보았다. 동강발전소를 완공하고 남강발전소 건설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그곳 양어연구사와 결혼하고 거기에 눌러앉았던것이다. 안온한 가정과 점점 유족해지는 살림살이에 정이 들수록 지금껏 그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객지생활만을 하여온 어머니가 측은하게 생각되곤 하였다. 그래서 몇번 편지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기도 하면서 함께 모여살자고 말하곤 하였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도리머리를 젖곤 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가서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고 잘설복하여 자기 집에 모셔오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예순뉘돌생일을 맞는 이번까지도 구실을 못하면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 될것이었다.

떠나오기 전에 남편에게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을 때 과묵한 그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님 오시겠다고 할것 같소?》

《걱정마세요. 우리 어머니야 년로보장을 받아 나이도 펴 지나시지 않았어요. 그곳 간부들도 다 리해할거예요. 아무튼 제가 꼭 모셔오겠어요.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요즘 당신의 일이 바쁘니 어찌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품을 놓고 갔다오겠어요.》

《음.》

남편은 그의 말에 고개를 기웃거리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다녀오오.》

그리고나서 담배를 붙여물고 몇모금 빨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정작 어머니님 오시면 허전해하시지 않을까. 한생 들끓던 건설장에서 사시던 어머니가 한적한 가정울타리안에 갇히면 말이요.》

그 말에 영숙은 손을 내저었다.

《일없어요. 글썄 처음에는 그럴수 있겠지만 점차 살아가시느라던 익숙해지실거예요. 이젠 년세가 있지 않나요. 전 어머니를 여생이나마 편안히 해드리고싶어 그래요.》

남편은 후— 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아무튼 생일준비를 잘해야겠소. 그리고 마침 그곳 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차가 있으니 그걸 리용하도록 하오.》

《알겠어요.》

영숙은 이번에 며칠을 두고 어머니의 생일준비에 보통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의 심정을 잘 알고있는 그는 아예 어머니의 생일당일에 쓸 음식들과 옷가지들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떠나왔었다. 어머니의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제손으로 만들어 대접해드리고싶어 밤을 새우며 차비를 했다.

이렇게 떠나는 걸음이였다.

《어머니, 이번 생일을 치르고는 저의 집으로 가지자요.》 여기에 온 영숙은 어머니의 두손을 부여잡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니는 이번에도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 까마득히 솟은 언제가 바라보이는 잔디밭에 앉아 저 멀리의 저녁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녁노을은 붉었다. 그 빛에 온 대지가 마치 붉은 물감속에 잠긴듯싶다.

영숙이도 어머니옆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속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지금껏 일해온 정든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여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는 웅당 편만한 생을 누릴 당당한 권리가 있다.

영숙은 옆에서 주먹만 한 돌맹이를 집어들어 잔잔한 수면위로 힘껏 던졌었다. 그러자 침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고요를 깨치며 물위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

지금껏 시간이 지나느라면 어머니의 마음도 달라질것이라고 믿으며 마음의 탕개를 늦추었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 동철이에게 하는 말을 듣고보니 혹시 어머니가 자기를 따라갈 마음이 영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쑥 떠올랐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오금을 박았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가서야 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 아듣지 못한듯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글쎄... 빨리 남순이의 열부터 떨구어야 하겠는데...》

동문서답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아연해졌다.

왈각 설음이 복받친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주방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물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비록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여가지고 찾아왔고 이제라도 모셔가려는것이 아닌가.

영숙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발을 옮겼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언제쪽을 바라다보던 그는 텅텅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 얼마나 앉아있었는지도 느끼지 못하였다.

잠시후 그윽한 꽃향기에 정신을 되찾았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벼운 가을바람에 언제쪽으로 가는 길가에 줄맞추어 심은 들국화의 향기가 그의 코를 찔렀던것이다. 옆에 피어난 꽃 한송이를 꺾어 들고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을 굴리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안 이상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자기 혼자 집으로 갈수 있다는 근심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아니, 아니야. 이번에는 꼭 어머니를 모셔가야 해. ...

이렇게 생각한 그는 움쭉 일어섰다. 자기 혼자 《왜 그러세요?》

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이 불을 보듯 명백해졌다. 그래서 그는 후방파로 발걸음을 옮겼다. 후방파장을 찾아가려는것이였다.

그는 영숙이네 집과 땔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대동강발전소가 거의 완공되어가던 때였다.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끌어내던 후방과장 (그때는 조립직장 직장장이였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의사들과 함께 자기의 피까지 그에게 넣어주면서 끝내 살려냈던것이다. 어머니도 후방과장의 딸이라면 감히 반박을 못할것이다. ...

영숙이 건설장의 한쪽구석에 있는 후방과의 과장실문을 열었을 때 마침 그는 혼자 있었다.

과장은 영숙을 보자 반가워했다.

《네가 마침 왔구나. 그러지 않아도 만나려던 참이다. 여기에 와앉아라.》

무슨 장부책을 펼쳐들고 전자수산기의 수자들을 누르던 과장은 영숙에게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레이이 어머니생일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동지.》 영숙은 그의 책상앞으로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전 그 일때문에 온게 아니예요.》

《?!...》

《어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 생각을 하고있어요. 전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 이번에 기어이 어머니를 모셔가겠다는 거겠지.》

이렇게 중얼거린 과장은 손바닥으로 자기의 턱수염을 문질렀다.

《과장동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좀 잘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왜 계속 외지생활을 해야 하냐요?...》

전 이제부터라도 자식의 도리를 지키고싶어요. 친자식이 편히 살아있으면서 어머니를...》

영숙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없는 이 건설장을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 건설자들모두가 그렇지...》

그런데 네 말을 듣고보니 생각이 깊어지는구나.

하긴 우리가 아무리 성의를 다한다고 한들 친딸보다야 낫겠네.》

과장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영숙아, 우리 이렇게 하자. 래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도 락착지을겔 오늘 내가 어머니를 꼭 만나보겠다.

내가 어머니를 납득시켜보마.》

영숙의 얼굴에 확 웃음꽃이 피어났다.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의 생일상을 잘 차려주자꾸나.》

《알겠어요.》

과장이 문턱을 넘어서는 영숙을 다시 불러세웠다.

웬일인지 과장은 선뜻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

는 턱을 또다시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왜서인지 너의 어머니가 가버린다고 생각하느냐도 그렇고 우리 건설자들이 모두 마음 허전해할 것 같아 그런다.》

《?》

《됐다, 가봐라. 내 인차 어머니를 만나겠다.》

영숙은 어머니가 있는 합숙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 수력건설연합기업소는 직장, 기업소만 해도 수십개가 된다. 종업원만 해도 수천명이다.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는 큰 간부도 아니고 그저 한 식당의 평범한 취사원일 따름이다. 그것도 예순살이 된 늙은이이다. 그런데 과장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영숙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과장이 자기가 듣기 좋게 한 말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영숙이 합숙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없고 남순이가 한켠에 누워있는데 언제 왔는지 너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있었다. 영숙은 의사가 오마왔다. 남순이의 병이 빨리 나아야 어머니의 마음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와 눈인사를 나누고 그옆에 조심스레 가앉았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이 상태로 며칠 더 있으면 감기가 폐염으로 넘어갈수 있으니 빨리 군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의사가 체온계를 들여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영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운 처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긴 속눈썹에 얼굴이 동그스름한게 무척 곱게 생긴 처녀이다. 그런데 건설장에서 일하다나니 맑은 얼굴색이 많이도 탔다. 여기 와서 처음 알게된 처녀이지만 무척 애처롭게 보였다. 집이 평양이라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앓아누운 딸자식을 그의 부모들이 본다면, 나처럼 그도 외딸이라고 했지...

의사의 말에 남순이 살며시 눈을 뜨는데 두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있었다.

《싫어요. 난 안 갈래요.》

뜻밖에 처녀는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하였다.

영숙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도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다 병이 심해지면 어찌겠어요?》

그래도 처녀는 도리머리를 젓는다.

《왜 그래요?》

그러자 처녀는 속삭였다.

《어머니결을 떠나기 싫어서...》

영숙은 가슴이 찢어질듯한 느낌을 느꼈다. 얼마나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으면...

의사도 할 말이 없는지 손에 든 청진기만 만지작거렸다.

머리맡에 영숙이 먹으라고 놓아준 사탕, 과자들은 구렁에 담긴채로 그냥 있는데 점심때 어머

동철동지는 자기 탄광을 뜨지 않겠다고 하고 애인은 그대로 이 건설장을 뜰수 없다고 고집했

니가 가져온 식사는 절반가량 비어있다. 극상해야 흰쌀밥에 서너가지의 반찬이다. 저 고급당과류보다 우리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이 더 맛있었을가.

이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섰다. 바쁜 걸음을 걸었는지 머리칼들이 흩어지고 얼굴색이 붉었다.

《에그, 의사선생이 또 오셨군요. 그래 우리 남순이가 좀 어때요?》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군병원으로 가자니 싫다는군요. 어머니결을 떠나기 싫다고...》

어머니는 남순의 이마를 짚어보며 조용히 나무랐다.

《그러면 못쓴다. 의사선생의 말을 들어야지.》

그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남순은 자기의 두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어머니는 서둘러 들고 들어온 자그마한 보자기에서 단지를 꺼내들었다.

《선생, 약초를 달인건데 좀 봐주어요. 여기에서 오래 산 늙은이들에게 물으니 그것을 달여 세번만 먹으면 열이 툭 떨어진다고 하지 않겠어요.》

의사도 머리를 끄덕였다.

《웁어요. 고려약이 신약보다 좋을 때가 많아요.》

어머니는 의사선생의 부축을 받아 남순이를 안아일으키고 숟가락으로 한술, 두술 약물을 입에 떠넣어주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니 어머니는 처녀의 열을 떨구어주려고 산골길을 다녀왔을 것이다. 산판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달이고...

언제 그 모든것을 하였을가?...

《언니.》

의사선생도 떠나가고 어머니도 식당으로 나갔을때 남순이가 조용히 영숙을 불렀다.

신기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살췍이 눈을 뜬 처녀의 두눈에 어느새 생기가 돈다.

약초를 달인 물탕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정성때문인지...

《전 언니가 부러워요.》

《?》

《우리 어머니는 저뿐이 아니라 건설자모두의 어머니예요.》

입안이 말라드는지 입술을 감빨며 그는 말을 이었다.

《모두들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해요. 동철동지도, 영남동지도...》

《내 보기에는 동철이란 청년이 좀 덜통한것 같은데...》

그러자 남순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웁어요.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곱짜 못해요.》

《그건 왜?》

《동철동지와 그의 안해는 군사복무를 한부대에서 했대요. 아마 그때 서로 알게 되었나봐요. 그런데 두사람이 제대되어 사랑을 약속하고 각기 제 일터로 가서 일이 생겼지요 뭐.》

으니까요. 하마트면 갈라질번 했어요. 간부들까지 나서서 두사람을 리해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번 탄광에 찾아가더니 동철동지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동철이가 어머니더러 아들의 돌생일에 꼭 와야 한다고 말했구나. 그래, 우리 어머니는 지금껏 건설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어. 그러면서도 이 건설장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참, 언니는 처녀시절에 우리 기업소에서 이름난 설계실 사도공이었다지요?》

남순의 말에 영숙은 자기의 생각에서 깨여났다.

방긋이 웃는 그의 볼을 꼭 눌러주고싶다.

《누가 그러던?》

《난 다 알아요. 언니, 이번에 절좀 도와주세요. 평면사도는 자신있는데 립체사도는 힘들어 그래요. 온 건설장이 들끓는데 난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막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지요?》

동생처럼 자기를 뺏히 올려다보며 묻는 순진한 그 눈빛을 보고서야 어떻게 감히 거절하랴. ...

영숙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하겠는데 좀 쉬렴.》 하며 그는 남순의 이불깃을 톱툰 여며주었다.

잠시후 영숙은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를 찾아 식당으로 가는 그의 귀가에 남순의 목소리가 그냥 들려온다. 처녀때의 일들이 삼삼히 머리에 떠오른다. 좋은 때였지. 사람들에게 떠받들리우며 밤낮을 모르고 뛰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은 양어사업소에서 그물이나 뜨고 있으니, 호— 한숨을 내쉬던 그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이참, 내가 무슨 생각을...

어머니는 식당에 없었다. 건설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으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어딜 가셨을까?

큰길가덕에 서서 생각을 굴리었다. 문득 야간작업하는 건설자들에게 쫓강냉이를 삶아주어야 하겠다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영숙은 산기슭에 있는 강냉이밭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따라 해가 별스레 빨리 산너머로 넘어가는 것 같다. 어제처럼 오늘도 노을은 붉었다. 아니 그저 붉은 정도가 아니라 서쪽하늘이 막 이글이글 불타는것 같다.

영숙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을이 그렇게 불타는것을 처음으로 본듯싶었다.

फल목길을 돌아서는데 저앞에 후방과장과 마주 서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니 제가 이제 이 건설장에 필요없는 사람이라는건가요?》

앞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영숙은 주춤 멈춰섰다.

그것은 분명 자기를 등지고 서있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영숙은 가슴이 서늘해짐을 너의 아버지도 건설장에서 만났다. 그때 아버지는 이 기업소에서 재간있는 전동기기술자였다. 술

느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전 그저 영숙이가 하도 사정하기에...》

당황해하며 떠들떠들 말하는건 과장이다.

《글쎄 제가 딸네 집에 가서 여생을 보내면 육신이야 편안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있는데...》

후—하고 한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건설자들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길 알면 나를 어떻게 보리라느걸 모르지는 않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래일은 하루라도 좀 쉬시우. 식당에는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

잠시후에 러벌러벌 걸어가는 과장의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영숙은 달려가 허리를 굽혀 이삭강냉이를 담은 자루를 쥐려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영숙은 서러움이 북받쳐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다.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어머니의 이 말에 영숙은 머리를 들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가지지요, 저의 집으로 말이에요?》

가벼운 저녁 산들바람이 귀를 덮은 어머니의 흰머리카락들을 하르르 날리고있었다. 노을빛에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보였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그의 물음에는 대답이 없이 옆에 놓인 돌우에 조용히 앉았다.

《내가 이 기업소에서 일하는지 어언 40년이 지났구나.》

《너도 알지만 나는 전쟁때 부모들을 다 잃고 고아가 되어 애육원에서 자랐다.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그후 나는 장자강발전소 건설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때 건설자들중에는 가족을 다 잃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나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었다. 이렇게 나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지. 수력건설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 나는 철이 없었다. 한마디로 응석꾸러기였지. 그래도 그들은 그저 나를 위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그때의 일들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니... 내가 서두수발전소 건설장에서 일하던 어느날, 그때 나는 우리 건설장을 찾아오신 수령님께 꽃다발을 안겨드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구나. 정말 내 한생에 두번 다시 없을 행운이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처녀가 수력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한단 말이지, 정말 용타고 하시며 등까지 두드려주시였단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나는 수력건설자라는 말의 참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던단다. 그저 건설장에서 일하고있었을뿐이지. ...

한 사람들이 아버지를존경하고 따랐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재간이 좋으니 그런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보니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그때에야 나도 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때까지 나를 키워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나도 참다운 수력건설자가 되리라고 마음먹었던거란다.》

《그래서 어머니는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지났어도 계속 건설장에 있지 않았나요. 어머니 이제는 늙으셨어요. 제때에 물러설줄도 알아야...》

이렇게 말하던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자기를 노여운 눈길로 바라보았던것이다.

그 눈길앞에 영숙은 머리를 떨구었다.

잠시후에 어머니는 힘들게 일어섰다.

《난 가봐야겠다. 저녁식사시간이 되어서...》

영숙은 이삭강방이자루를 지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

《왜 불을 켜지 않냐?》

텅 빈 호실에서 꼬부리고 살머시 잠들었던 영숙은 어머니의 말소리에 편뜻 정신을 차렸다. 언제 들어섰는지 어머니가 방안의 전등스위치를 누르며 하는 말이였다.

갑자기 환해진 불빛에 영숙은 두눈을 쪼프렸다.

어머니의 손에는 밥보자가가 들려있었다.

《어서 저녁을 먹어라. 국이 식기 전에... 나는 건설장에 좀 나가봐야겠다.》

영거주춤 일어서기는 하였지만 영숙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만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무너지듯 방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는 어머니가 사라진 출입문쪽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자세로 앉아있었다. 자기가 지금껏 어머니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그냥 마음을 파고들었다. 자기와 어머니사이에 분명 이해할수 없는 그 무엇이 떡 막아선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수가 없다.

찰각, 찰각...

벽에 걸린 전자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별스레 크게 들렸다. 어찌 보면 외로리가 된 자기를 비웃는것 같다.

남순이는 어딜 갔을가? 방안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책상우에 놓인 종이장에 눈길이 쏠렸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언니, 전 일터에 나가요. 병은 다 나았어요. 낮에 한 약속을 잊으면 안돼요.》

약간 삐뚤서하게 씌여진 글자들이 그의 눈을 찌른다. 병이 다 나았다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맡은 일을 두고 안타까와하던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기특했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를 그 어떤 죄의식

《아, 우리 어머니의 딸이구만요. 대동강발전소에서 왔다는...》

이 느껴졌다.

잠시후에 영숙은 주섬주섬 옷옷을 걸치고 방을 나섰다. 남순이에게 가려는것이였다.

야밤의 건설장은 온통 불야경을 이루고있었다.

혼합물을 싣고 흘러가는 콘베아들과 파쇄기소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호각소리...

낮에 이어 밤에도 건설장은 약동하는 자기의 박동을 멈추지 않고있었다.

설계실은 후방과의 반대편에 있었다. 거기에도 불빛이 환했다. 영숙이 설계실에 들어서니 남순을 비롯한 사도공처녀들이 너무 좋아 어쩔줄을 몰라했다.

머칠 앓고나서 포동포동하고 굵던 얼굴에 두눈만 남은 남순이지만 그 동자에서는 반짝반짝 생기가 돌았다. ...

그날 밤 영숙은 사도관에 앉아 밤새도록 사도를 했다. 지난날 몸에 배였던 그 일을 다시 손에 잡으니 처녀시절로 되돌아온듯싶다.

남순이는 옆에서 열심히 묻기도 하고 그가 하는 손동작들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였다.

《언니 정말 훌륭해요. 야참,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네.》

영숙의 손에서 도면들이 떨어져나올 때마다 남순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영숙은 언제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날이 환히 밝아서야 그는 사도관에서 물러났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생일이 아닌가. 바빠 합숙으로 달려가면서도 그는 피곤한줄을 전혀 모르고 마음은 개운했다.

그러나 합숙방은 텅 비어있었다. 자기가 정성껏 가져온 한권구석에 놓여있던 생일음식들도 보이지 않는다. 한동안 멍히 서있던 영숙은 허둥지둥 식당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안 오셨는데요.》

주방칸에 있던 다른 녀인이 하는 소리였다. 그리고는 영숙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탕, 탕, 탕...

요란한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들어섰다. 현장에서 곧장 달려왔는지 안전모를 빼박하니 쓰고 한손에는 작업장갑을 찬채 주방칸에서 덤벼치며 말하였다.

《늦어 미안한데 빨리 식사를 좀 합시다.》

식당녀인이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그는 한쪽에 놓인 밥그릇을 들더니 거기에 국을 쏟아붓고는 부지런히 숟가락을 놀린다.

그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던 영숙은 《저...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누군데...》

얼굴을 돌려 영숙을 보던 청년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은 급하게 밥을 넘기면서도 히죽 웃었다.  
《이제 나와 함께 갑시다. 어머니는 저 언제우의  
타입장에 있습니다.》

《타입장예요?》

《예, 오늘이 타입공인 영남이의 생일입니다. 그  
래서 어머니가...》

그러니 자기의 생일상을 건설자들에게... 영숙  
은 온몸이 나른해지는것을 느끼며 어머니가 있다  
는 언제우로 향했다. ...

그가 언제우의 타입장으로 올라서자 방금 타입  
을 끝낸 타입공들이 한쪽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있는것이 보였다. 거기서 이미 낮을  
익힌 동철과 영남이를 비롯한 여러명의 청년들이  
영숙을향해 달려왔다.

《누이, 어제 식당에서 있는 일을 용서하십시오.  
요.》

맨앞에 선 영남이가 하는 말이였다. 그들은 이  
구동성으로 떠들며 영숙을 어머니곁으로 이끌었  
다.

《괴곤하겠구나.》

영숙이 밤에 한 일을 다 알고 말하는듯한 어머  
니의 말이였다.

《영남아, 오늘은 네 생일이 아니냐. 어서 네가  
먼저 들어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영남이를  
상앞으로 이끌었다.

《어머닌 정말...》

건설장에서 단련된 역세고 듅직한 청년이 어머  
니에게 어린 자식처럼 머리를 숙이면서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러더니 어머니를 한없는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영숙은 그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청년들이 자  
기의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순결한  
마음들을 보았다.

《누이, 어서 들어요.》

옆에서 청년들이 말했으나 영숙은 자신이 여전  
히 무아몽중에 잠겨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  
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야속함과 원  
망감 그리고 존경과 경모가 함께 교배치고있었던  
것이다. ...

《영숙아!》잠시후에 어머니가 그의 무릎위에 손  
을 얹으며 다정히 불렀다. 영숙은 어머니를 바라  
보았다.

《나에게 노래 하나 불러주렴.》

《예?》

《웬일인지 오늘은 네 노래소리를 듣고싶구나.》

영문을 모르는 청년들이 범석 떠들었다.

영숙은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에서 그 어떤 간절함과 기대감 그리고 자애깊은  
믿음을 느끼자 어쩔수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  
섰다.

(무슨 노랜 불러드릴까?)

이렇게 중얼거리던 어머니는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나서 벽에 모셔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초  
상화를 우러르는것이였다.

어느덧 그의 입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려서는 철없어 애를 태우고

자라서는 철들어 속을 태웠네

...

영숙은 더 잊지 못하고 목이 꼭 메어버렸다.

청년들이 의아해하며 서로 마주보는것도 느끼  
지 못하였다.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을때 눈가에는  
물방울이 맺혀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웃  
고있었다. 그 모습은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인 한  
녀인의 얼굴이였다. ...

어머니와 영숙이 언제에서 내려 합숙으로 나란  
히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렸다. 그들이 길옆으로 비켜서는데 차가 멈추어  
서더니 거기에서 련합기업소 책임비서, 지배인,  
후방과장이 거의 동시에 내려섰다.

《어머니!》

책임비서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으며 물었다.

《어머니, 빨리 가십시오.》 《예?!...》

놀람과 의혹이 실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던  
당비서가 빙그레 웃었다.

《자, 어서 차에 타십시오.》

지배인과 후방과장이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었  
다.

《영숙아, 너도 타거라.》

《무슨 일로?...》

어머니가 주뿔주뿔하자 책임비서가 어머니의  
등을 떠밀었다.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곧바로 련합기업소 회의  
실 마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그들이 차  
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량쪽으로쭉 갈라져 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선 영숙은 그저  
얼떠름해서 사람들이 이끄는대로 맨앞의 책상으  
로 다가가앉았다.

연단에 올라선 책임비서가 장내가 정돈되자 환  
회에 넘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지들, 얼마전 현지도의 길에서 우리 기업  
소실패를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생 수력발전소건설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권순실  
동지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높은 치하를 해주시  
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녀성의 몸으로 한생을 발전  
소건설장에서 일해오고있는 그가 생을 끝까지 빛  
내어나가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은정깊은 말  
씀을 해주셨습니다. ...》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책임비서의 다음말들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모든것이 꿈만 같이 여겨졌다.

《제가... 제가... 뭐라고...》

《장군님, 정말 감사...》

라고 떠들거리며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는 어머니의 두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

다.

이 순간 영숙의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 걱정이 확 솟구쳐올랐다.

그러면서 범상하게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받아안으며 살아온 가장 궁지롭고 참다운 생을 누리는 인간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것이였다.

책임비서가 연단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식당으로 가십시오.우리 기업소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생일상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자모두의 성의로 알고 받아 주십시오.》

책임비서의 안내로 식당안에 어머니와 함께 들어선 영숙은 깜짝 놀랐다.

T 자형으로 놓인 커다란 식탁들위에 갖가지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있었다.

책임비서가 장내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것입니다.

우리 련합기업소의 전체 건설자들은 예순뉘살일을 맞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기저기서 사진기의 조명들이 번쩍거렸다. 영숙은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동철이와 영남이 그리고 남순이 등을 알아보았다.

아마 저 동철이도 자기 아들의 돌생일상을 통채로 가지고 나왔으리라.

책임비서가 어머니를 생일상앞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이 기쁜 날에 한마디 하십시오.》

책임비서의 말에 어머니는 머리를 들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합니다.》

장내는 물을 뿌린것처럼 조용해졌다.

《저, 저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더니 숨을 돌리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저 제... 앞으로도 한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설장에서 살겠습니다.》

또다시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어머니가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모두 어머니처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영숙은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마음속깊이에 간직된 그렇듯 뜨거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손으로 생일상을 차려주려 한것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려고 한것도 모두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혔던것이다.

《영숙아, 네가 어머니의 친딸이니 먼저 한잔 부어올려라.》

후방과장이 술병과 술잔을 받쳐들고 다가오며 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영숙은 그것을 선뜻 받아들수가 없었다.

자기가 비록 친딸이기는 하지만 지금껏 구실 못한 자식이였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있었던 것이다.

《자, 어서...》

얼결에 술잔을 받아든 그는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딸을 용서하세요, 이제부터 저도 여기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와 어머니처럼 살며 일하겠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할거예요. ...

차창으로 비껴든 밝은 노을빛이 생일상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영숙은 영원히 그 모습을 망막속에 깊이 새겨 두려는듯 오래오래 바라보며 서있었다. ...

## 가사

# 어머니의 모습

## 오영아

이 아들을 고이 안고 자장이 불러주며  
웃음짓던 어머니의 그윽한 눈빛  
그 눈빛은 자식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아 어머니 바라시던 아름다운 꿈

어느덧 내 자라 초소로 떠날 때  
말없는 미소로 뜨겁던 당부

그 당부는 복무의 길 걸음걸음 따라설  
아 어머니 불러주는 내 삶의 노래

앞가슴에 훈장가득 내 다시 안길 때  
기쁨속에 눈물지을 어머니모습  
그 모습은 한생의 꿈과 소원 모두다 갖든  
아 어머니 바라시던 행복의 전부



## 8년만에 쓴 첫 편지

## 변창률

고향을 떠나 타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흔히 두고온 고향을 그리며 부모들에게, 다정한 이웃과 벗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지난날의 못 잊을 추억을 더듬으며, 또한 새 생활이 시작된 고향에서의 회로애락의 가지가지 사연을 전하며... 그래서 고향사람들과 떠나간 사람들사이에는 끊임없이 편지가 오간다.

이 범상한 편지로 하여,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생활의 매개물로, 인간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범상히 여겨오던 편지를 통하여 크나큰 감흥을 받아안은 일이 나에겐 있었다.

현실체험의 길에서 내가 만났던 엄정실동무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한드레벌의 모범농장원, 모범선동원으로 온 나라에 알려진 엄정실동무는 편지와 뗄수 없는 사연을 품고있었다.

《그래, 이곳에 뿌리내린지 8년이 되도록 부모님들에게 편지 한장 쓰지 못했던 말이요?》

또다시 한드레벌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닌 그와의 이야기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 나는선포 믿어지지 않았다.

별에 탄 감실한 얼굴을 들어 금나락 설레이는 아득한 한드레벌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그는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8년전 나서자란 정은 수도를 뒤에 두고 여기로 떠날 때 저의 가슴속에는 집 떠나는 자식들이면 누구나 품게 되는 하나의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농촌으로 진출하려는 딸의 결심을 적극 고무해주고 등을 떠밀어준 아버지,어머니에게 꼭 기쁨을 드리고싶은 마음이었습시다.》

제가 평양을 떠나던 날 가면 인차 소식을 전하라고, 자주 편지를 써보내라고 당부하는 부모님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약속을 8년이 되도록 지키지 못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시다.》

감회깊은 눈길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던 곳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 그가 고향의 부모님과 직장동무들, 일군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조용히 평양을 떠나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크고 번듯한 규격포전으로 천지개벽된 한드레벌에 첫 모내기 한창이었다.

첫날부터 본때있게 일을 제끼리라 든든히 잡도리를 한 그는 집을 내려놓기 바쁘게 논벌로 달려나갔다.

허나 익숙되지 않은 농사일이다보니 남들처럼 일자리를 내지 못했다. 농장원들의 모내기숨씨가

어찌나 빨랐던지 그가 일하던 피복공장의 재봉기 바늘이 오르내리는듯싶었다. 그는 한시바삐 손에 선 모내기익숙하기 위해 휴식참이나 점심시간에는 물론 남이 다 자는 밤에도 버치에 감탕을 떠다놓고 모뎀기런습을 했다. 그렇게 이악하게 노력해서 모내기가 어지간히 손에 익게 되었을 때는 농장적인 모내기가 끝났다. 그가 속한 분조는 다른 분조보다 약간 앞서기는 했으나 도토리 키대보기처럼 별반 눈에 띄우지는 못했다.

첫 모내기를 겪어보니 농사일이란 그가 화려한 도시에서 그려보던것처럼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었다.

대소한의 추위속에 거름을 장만하고 논밭에 내는 일, 이른봄에는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령상모판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철이면 려명무렵에 찬논물에 발을 잠글 때의 으슬함을 겪어보니 더욱 그러했다. 사시장철 들에서 사는 농사일이란 인간의 무한한 창조력과 인내력을 요구하는 참으로 힘겨운 노동이었다.

그제서야 엄정실은 농촌에 진출했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올바에는 애당초 떠나지부터 말라고, 마음의 준비가 첫째라고 엄하게 타이르던 아버지의 말씀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농사일을견디여내고 농촌에 뿌리내릴수 있을까?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그로록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까?

게다가 일부 사람들이 너야 평양처녀인데 그만큼 농사일을 한것만도 쉽지 않은데 이제라도 평양으로 돌아가는게 어떤가고 권고하기도 했다. 자기가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딱했으면 저런 말을 다하랴. 마음속 동요가 없지 않았다. 내가 정말 이러다 길가에 무리지어 쪼다지는 들꽃처럼 아무런 생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것이 아닐가?...

이런 육체적, 정신적모살이속에 더우거나 엄정실은 그렇게도 보고싶은 부모님께 편지를 쓸수가 없었다.

그러나 엄정실은 결코 그렇게 값없이 한생을 보낼수 없었다. 한몸이 그대로 한줌의 거름이 되어 한드레벌에 묻힐지언정 주저하고 동요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분발했다.

이른새벽 남보다 먼저 들판으로 달려나갔고 분조가 그날 계획을 끝내기 전에는 깊은 밤에도 포전을 뜨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혼자앉고있는 분조녀인을 위해 수십리 밤길을 달려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고 평양처녀의 옷과 사출장화를 부러워하는 분조처녀들에게 자기것을 서슴없이 벗어주기도 했다.

한드레벌에 기어이 좋은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 그야말로 한몸 다 바치는 그의 노력에 고무된 본조원들도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고 또 뛰었다. 그 보람이 있어 본조가 농장적으로 알곡생산에서 앞선 단위에 속하게 되었지만 선군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이 땅이 폭 꺼지게 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장군님을 다시 한드레벌에 모시게 될 날은 과연 언제일까?

이 모든것을 적어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싶었지만 또 펜을 들지 못했다. 평양과 부모님이 그리워 밤새워 편지를 쓴적도 있었지만 종시 보내지 못했었다. 한 집안의 딸이 되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의 딸이 되라던 부모님앞에 자기가 해놓은 일이 너무도 보잘것없이 여겨졌던것이다.

그 나날에 엄정실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딸이 되자면 한두해나 인생의 어느한 시절로는 너무도 모자란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했다.

그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 한드레벌로 달려온 제대군인총각과 가정을 이루었다. 한해가 지나서 그들사이에는 첫 귀동네가 태어났다.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흘러 8년세월이 지나갔다.

그때까지도 엄정실은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한장도 쓰지 못했다. 무엇으로써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소박한 농장원에 불과한 엄정실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과 행복이 차례질줄이야.

올해 7월 한드레벌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엄정실동무를 몸가까이 불러 만나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서자란 수도 평양을 떠나 농촌으로 진출하여 농업생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있는 그의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다른 나라 청년들은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안달아하고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정든 수도를 서슴없이 떠나 전야로, 탄전으로, 개발지로 자진하여 탄원해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청년들의 참모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농촌에 진출하려는 딸의 결심을 적극 고무해주고 등을 떠밀어준 부모들이야말로 애국적소행을 발휘한 훌륭한 부모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꼭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은정어린 말씀을 해주시였다.

엄정실은 것처럼 다심하시고 웅심깊으신 장군님의 사랑앞에 감격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싶어도 쓰지 못했던 마음속 자그마한 소원까지 다 헤아려주신 자애로운 그이앞에 눈물밖에 쏟을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8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펜을 움직일줄 모르고하많은 생각에 잠겼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따르고 받들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나의 운명, 그것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을 뿌리고 세상사람들이 다 알게 된 행복한 삶이 아닌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나의 운명의 아버지이다.

그리하여 너인은 8년만의 첫 편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쓰게 되였다.

8년간의 하많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시련의 만단사연을 부모에게 아뢰이는 심정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드리였다.

그 편지는 정녕 이 땅의 한 자식이 인민의 아버지께 드리는 8년세월 대지에 적어간 마음속 아뢰임이였고 성장의 보고였으며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였다.

집 떠나 8년만에 처음으로 쓰는 편지를 친부모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온 나라가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웅당하고도 자연스러운, 궁지높고도 자랑스러운 생활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군민은 많고많은 사연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슴없이 아뢰이며 운명을 맡기고 하늘처럼 믿고 사는것이다.

8년만에 쓴 한 농장원녀성의 첫 편지!

형언할수 없는 마음속 감동과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의 행복상이 나의 눈앞에 우렷이 떠오른다.

## 조선속담

## 필요(요구), 불필요

- 시장한 사람더러 요기시키라 한다
- 개구리대가리에 찬물끼얹기
- 두말하면 여담
- 젖은 치마에 이슬을 가리랴
- 봉사 등불 쳐다보듯
- 사릅송아지는 이도 들어보지 말랬다
- 사발에 귀가 달린다
- 시레베장단에 호박국 끓여먹는다

- 새우 벼락맞던 이야기
- 참깨가 짜르냐 기냐 한다
- 청치 않은 잔치에 묻지 않는 대답
- 하구많은 생선에 복생선이 맞이나
- 뺨장다리 서나마나
- 아니 무너진 하늘에 작대기 받치자 한다
- 앓은뱅이 앓으나마나

# 위인의 품모속에 펼쳐진 민족의 질은 향취

-단편소설 《움트는 아침》을 두고-

한전남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리는것은 인민의 수령, 민족의 아버지의 위인적품모를 진실하게 펼쳐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단편소설 《움트는 아침》(박찬은 작, 《조선문학》 잡지 주제97(2008)년 4호)은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품모속에 굽이치는 민족의 넋, 민족의 감정정서를 훌륭히 구현하여 작품전반에 민족적향취가 진하게 어리도록 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소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산골농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우시려 어쩌다 차례진 단 하루의 휴식일마저도 농민들의 집들을 몸소 찾으시며 그들이 잘살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름없는 한 농민청년을 위해 수십리 밤길을 걸으시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관리위원장으로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모든 형상요소들을 다 구수하고 민족적인 맛과 향기가 확확 풍기게 창조하였는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민족의 기상과 민족적품모들을 체현하신 인민의 참된 아버지로 형상하면서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를 풍만한 생활속에서 그려낸데 있다.

왕골로 엮은 전이 넓은 둥굴모를 쓰시고 풍채름름한 아버지수령님의 젊으신 모습, 깊은 산속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산열매, 산나물들을 산중의 보물로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실 구상을 펼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의 위대한 모습이다. 뿐만아니라 고추농사를 잘하여 《부자》가 됐다는 허근세로인네 집에 찾아오시여 그를 《로인님》이라고 존대하시며 로인내외가 드리는 토배기민족음식을 허물없이 들어주시는 인민적모습과 허근세로인에게 술을 부어주시며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늙은이에게 술 한잔 부어드리는건 례의가 아닙니까.》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민족의 례절풍습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에 대한 진실한 형상이다.

이로부터 작품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민족적

성격의 소유자들로 뚜렷이 부각될수 있었다.

아무리 궁벽한 산골이라도 자기 고향의 도토리 한알, 버섯 한송이도 귀중히 여기고 창조적으로 리용할줄 아는 허근세의 근면하고 지혜로운 성격은 자기 지방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고추농사를 알심있게 짓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도농산국 담당지도원이 조대신에 강냉이를 심었다고 별의별 으뜸장을 놓아도 《여보시오, 농민으로서 수확이 적은 조대신에 소출이 높은 강냉이를 심었는데 그게 무슨 죄란 말이요.》라고 맞서며 조합결성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강냉이농사를 잘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허동석의 인간모습은 강의하고 불의와 타협을 모르는 우리 민족의 대바른 기질을 그 어떤 격식이나 틀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형상한것이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오신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서도 《귀한 손님》을 반갑게 맞아드리고 안늬는 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마가 발끝에 닿도록 절을 올리》는 인사법이라든가 자기 집에서 만든 도토리술과 토배기음식들을 《귀한 손님》께서 치하시자 기뻐 어쩔줄 모르는 허근세로인 내외의 모습은 전쟁과 같은 대동란속에서도 조금도 이지러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순결하고 례절바른 민족적성격형상이다.

더우기 소설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허근세와 명석팔개에 나란히 앉으시여 뜻강냉이와 애호박장을 드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

〈거참, 호박장이 먹음직스럽군요. 여기에 탕쳐넣은게 뭘니까? 가재 같은데…〉

〈예 예, 워낙 호박장엔 별방에 있는 참계를 넣어야 별맛입네다. 여기엔 그런게 없어서 썩대신 닭이라고 가재를 탕쳐넣었지요. 우리 교장 왕가재는 지스토마가 없구 맛이 좋아서 옛날부터 이름높아 궁성안에서두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왕가재를 〈진상품〉으루 올려갔습니다.〉

왕가재를 탕친데다 뜻고추를 송덩송덩 썰어넣고 산마늘을 찢어넣은 애호박장은 구수하면서도 맵짭하고 달콤한 맛을 돋구어 이 지방 토색음식의 별미를 손색없이 갖추고있었다.》

이 얼마나 구수하고 향토적인 묘사인가?!

소설에는 이런 향토적색채가 짙은 묘사가 한두군데가 아니라 거의 모든 문장, 대목들에 진하게

서술되었다.

작품의 첫시작 부분의 자연묘사라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산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실 사색을 하시며 숲속에 들어서시었을 때의 정경묘사는 절세위인의 조국애, 민족애를 부각시킨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유감없는 형상적묘사이다.

소설은 언어형상에서 이 작품의 작가가 산골농사군의 자식이거나 산골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산골인민들의 입말투와 향토적색채가 짙은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쓰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말 고유어의 친근감과 통속성, 민족적향취를 한껏 느끼게 하고있다. 하여 작품은 수령과 인민, 인민과 수령사이의 혼연

일체를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한없이 풍만하고 생동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다정다감한 정서로 펼쳐놓아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우리조국, 우리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전하려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보여줄수 있었다.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작품전반에 질게 흐르는 민족적향취가 새라새롭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들의 몸가까이에서 실지 뵈옵는듯 한 생동한 느낌을 주고있으며 그로 하여 이 작품은 수령영생작품창작에 훌륭히 이바지한 작품이라고 본다.

## 단시목록

# 청춘직동에 부치여

리영철

## 샷갯봉

금보다 귀중한  
검은금을 품고있어  
보는이 아는이 있을가보아  
온몸을 샷갯으로 가리웠느냐

수수몇천년을 감추어온 너의 그 비밀  
어느 세월 그 누가 알았던가  
인민의 행복위한 제일 큰 재부로  
우리 수령님  
찾아내주시었으니

끝없는 갯막장 그 한끝까지  
검은금의 매장량은 쉽게 알수 있어도  
그 무게에 실려오는 수령님사랑의 크기  
땅속에서도 땅위에서도 내 다 노래할수 없구나

아, 오늘은 위대한 그 사랑을  
직동의 더없는 보화로 지켜안고  
샷갯을 벗지않는 너 샷갯봉아

## 압축기운전공처녀에게

너는 혼자 있다  
우람찬 압축기를 돌리며  
달아오른 기대의 뜨거운 열을 받으며  
막장과 막장 멀리 떨어져  
혼자 일한다

하지만 탄광을 사랑하는  
너의 눈빛 너의 미소는  
멈춤없는 공기의 배관을 따라  
그물처럼 엉켜진 온 막장에 흘러간다  
배관을 짝 채운 거세찬 공기는  
막장을 품에 안은 너의 숨결이다

너는 막장의 어머니  
내가 착암기들에 보내주는 압축공기의 량은  
콘베아에 실려 저탄장에 쌓여지는 석탄의 높이다  
그 보람으로 너는 언제나  
탄부들과 함께 있고 막장과 함께 있다

## 조국이 아는 얼굴

밤새 땀흘려 캐낸  
석탄과 함께  
갱땀을 나신 탄부여  
안전모 쓴 머리 높이 들어라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이 아침 이 땅우에선  
창조의 자욱을 수천척 막장에 남긴  
그대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땅밑에서 조국의 발걸음전진시킨  
궁지로 자랑스러운 그대 얼굴  
조국이 먼저 알아본다  
심장에 석탄처럼 타는 불을 안고사는  
그대를 조국이 제일 사랑한다

## 기 초

김진경

설전야에 여기 건설장에는 불빛이 환하다.

새로 개건확장되는 닭공장건설장에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증건설사업소사람들의 마음은 유별하였다.

한것은 객지생활을 하면서 이해의 마지막날마저 건설장에서 보낸다는 애모쁜 감정때문만이 아니었다.

얼마전 북방의 찬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닭공장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감단계에 들어선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그 질이 대단히 높은데 대하여 무척 만족해하시였다. 그리고 우시복지배인을 비롯한 여러 일군들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에 하나같이 떨쳐나 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자고 결의한 건설사업소사람들이였다.

작가인 나는 현실체험을 나와있으면서 온 한해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래서 건설자들에 대하여 다소나마 알게 되었고 한가족처럼 친숙해졌다고 할가.

강계시에 이미 건설된 현대적인 닭공장과 닭내포국집도 증건설사업소사람들이 시공주가 되어 훌륭히 완공하였다.

그때 새로 건설된 강계닭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장건물들을 표준설계대로 건설하면서도 다른 닭공장들보다 특색있게 지었다고, 건설자들이 머리를 쓰고 성의를 다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닭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닭내포국집을 찾으시여서는 《강계닭내포국집》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집이 멋있다고, 평양사람들이 울고 가겠다고 하시며 건설은 이렇게 하여야 후세에 남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닭공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이미있던 홍주닭공장을 개건하여 여기서 나오는 고기와 알을 강계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라고 이리시였다.

그 말씀을 받들고 닭공장개건에 동원된 건설사업소사람들이였다. ...

내부공사를 끝내고 설비조립이 한창인 알낱이사의 넓은 홀에는 지금 사람들로 꽉 찼다.

잠시후 건설사업소사람들의 소박한 설경축공연(직장별합창경연)이 있게 된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어지간히 들뜬 감정으로 다른 직장 사람들을 건너다보며 말을 걸기도 하고 승벽심이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들은 대다수가 40대초에 들어선 제대군인들이다.

그들의 웃음어린 얼굴들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

은 자꾸만 젖어든다.

누군가 나를 잡아끄는것이였다. 1직장의 막내가인 서춘만이였다.

《작가선생님자리를 여기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옆자리에 깔개까지 놓아주었다.

직장사람들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돌아보며 오누이같다느니, 부럽다느니 한마디씩 하였다. 모두 사나이들뿐이어서 녀성의 존재는 어디서나 떠받들리곤 했다.

나는 막내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다.

《해산달이 언제예요?》

《2월... 앵이, 난 몰라요.》

처녀같이 곱살한 얼굴이 빨개졌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건설사업소로 온 그는 이제 멀지 않아 아이아버지가 되게 된다. 그러니 안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더 간절하랴.

누만 감으면 안해의 수집은 얼굴이며 노래를 배워주던 입모습이 선하다고 하던 춘만의 말이 새삼스레 마음의 금선을 흔든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며 목직하게 느껴지는 우시복지배인이 들어섰다.

순간 술렁거리던 장내는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지배인과 당비서 그리고 《심사성원》으로 지명된 시공부원과 회계과장이 한옆에 자리를 잡자 곧 《막》이 울랐다.

《무대》는 관중앞에 내놓은 넓지 않은 자리이다.

1직장부터 출연하였다. 무대에 나서는 그들의 옷차림이 눈길을 지저준다.

수수한 달건옷, 잠바옷, 껌곳이 닳아신은 운동화... 평시와 다를바없는 차림새들이였다. 그러나 그 차림새들에 평범한 날의 땀방울들이 배여있는 것 같아 새로와보이고 돋보이는 차림들이였다.

이제 춘만이가 아버지가 되면 직장사람들모두가 아버지인셈이다.

아버지란 말이 새롭게 안겨온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에겐 사랑하는 처자가 있고 자기를 낳아준 조국이 있다. 조국을 위해 가정의 행복마저 뒤로 미루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는 이들이 아닌가.

너무도 평범한 날에 결코 평범하게만 생각되지 않는 눈앞의 현실이였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1직장사람들의 기세는 천정을 찢을듯 하다. 첫시작을 멋있게 뽐낸다. 나는 저오기 격동된 마음으로 우시복지배인 쪽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굳어졌다. 그는 무뚝뚝한 얼굴로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하고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걸까? 설마 이 자리에서까지 집설계를 궁리하는건 아니겠지. ...)

일단 사업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면 누가 꼬집어도 모를정도로 사색에 빠지는것이 특징이다.

작년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강계에서 수백리 떨어져있는 흥시에 취재갔던 나는 그곳에 있는 지배인의 집에 들러보기로 했다. 마침 기업소에 불일이 있어 나왔던 지배인이 집에 있었다.

헌데 지배인은 방에 앉아있고 나이지숙한 녀인이 망치를 들고 푹푹거리며 닭장을 수리하고있었다.

왜 남편을 곁에 두고 이런 수고를 하는가고 묻자 녀인은 웃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저이야 우리 집 <손님> 인걸요. 이젠습관이 돼놔서 오히려 참견하는것이 시끄러울 정도예요.》

이때 서너살 나보이는 손녀애가 쪼르르 달려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았다.

그런데 지배인은 어린것을 무릎에 앉혀놓고도 그저 덤덤히 자기 생각만 쫓는것이였다. 이답답한 교감에 싫증을 느꼈던지 어린것이 웅알거렸다.

《할아버진 팔이 없나?》

나는 소리없이 웃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오랜만에 집에 오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배인은 푹푹하게 대꾸했다.

《출장은 기분이요.》

나는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

어느새 3직장이 출현하고있다.

3직장장 문성익... 일욕심이 많고 덜렁바우이며 무슨 일에서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언젠가 나에게 문성익직장장이 주머니에서 보물진 편지 한장을 꺼내보이는것이였다.

소학교에 다니는 딸애한테서 온것이였다.

《아버지! 내 손퐁금재간이 늘었다고 선생님 칭찬을 해요. 난 아버지한테 자랑하고싶어요. 닭공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돌아오세요. ...》

직장장의 다른쪽주머니에서는 곱돌처럼 반질반질한 작고 하얀 자갈돌들이 여러개 나왔다.

문치 않아도 알수 있었다. 골재장에서 휴식참에 하나하나 골라넣으며 예쁘고 귀여운 딸애를 생각하였을 아버지...

그 사랑이 없이야 어떻게 래일을 위해 자기를 바쳐갈수 있으랴.

그런데 그들의 공사속도는 제일 굵다라고 할수 있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였다. 여러개의 대대가 조직되고 각기 건설대상이 분담되였다.

시공주기업소인 흥건설사람들을 내놓고는 모두 강제사람들이였다.

흥건설사업소는 공사전반을 돌보면서 제일 덩

지가 큰 알낱이사를 맡아안았다.

대대간의 경쟁이 시작되였다. 이악하고 승벽심이 강한 강제사람들의 기질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가두녀맹원들을 비롯한 지원로력이 몰밀듯이 밀려들었다. 매일 아침 시내에서 건설장까지 구간은 사람들로 꽉 메여버리곤 했다.

건설장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끓었다. 그런데 알낱이사건설장만은 조용하였다.

외지사람들이여서인지 지원로력도 없고 로동자들 자신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제편에서 초조해하였다. 어쩐지 그쪽으로 자주 마음이 기울어졌다.

나는 지배인을 만나 구체적인것을 알고싶어 저녁식사후에 그를 찾아갔다.

지배인이 거처하고있는 방은 현장가까이에 있었다. 방에 들어서니 그는 앉으라고 한마디 하고는 별로 달가와하는 기색이 아니였다.

그의 거동에서는 상대방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도고한 자존심과 자기 우월감이 엿보이는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탓하지 않고 직방 들어섰다. 《시공주기업소가 체면이 있어야지 이렇게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남들은 기초공사를 끝내고 벽체를 쌓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겨우 지대정리를 끝낸데 불과했던것이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뜬뜬해있단 말인가?

지배인이 어이없다는듯 입을 꼭 다물고있다가 언지시 묻는것이였다.

《시계의 장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오?》

《그거야...》

지배인은 조용하나 저력있게 말했다.

《그건 정확성에 있는거요. 자, 그럼 미안하지만 난 자야겠소. 9시면 자리에 눕는 버릇이 있단 말이요.》

그는 나에게 더 말할 틈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무안하여 귀밀이 달아올랐다.

까닭모를 반말심에 나는 지배인을 푹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물러나는수밖에 없었다.

어쩔 이렇게도 무점이 없을가... 쫓겨났다는 분한 생각에 금시 눈물이 콧 솟구칠것만 같았다.

나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걸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며 무엇인가 조롱하는듯싶었다.

건설장에서 평곳평곳 불꽃이 일었다. 또 야간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그러다가 지배인의 방을 돌아다보니 정말 불이 꺼져있었다.

(남들은 밤낮으로 뛰고있는데 9시에 잠자리에 들고... 뒤떨어지고도 편안히 잠이 올가?)

나는 지배인의 처사를 이해할수 없었다.

다음날 려단참모회의에서는 1단계사업총화가 있었다.

나는 한옆에 앉아 손톱눈을 썰고있었다.



지배인의 말처럼 우리는 《빠른 시계》나 《느린 시계》가 아니라 《정확한 시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기술로써 담보되는 것이다.

나는 지배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았다.

얼마전 현장을 돌아보던 지배인은 몰탈을 이기는 다른 대대 노동자들이 규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콩크리트혼합요소에 대해 누가 좀말해보오.》

너무도 뻔한것이어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여기 보는바와 같이 모래, 자갈, 세멘트라는거겠지?》

지배인이 따져묻는 말이다.

《한가지 더 있지요. 물...》

약삭빠른 청년이 있었다.

《옳소. 그 다음엔 더 없을가?》

모두 머리를 기웃거릴뿐. 이때 지배인은 그루박아 말했다.

《한가지가 더 있소.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훌륭한 건축물을 세울수 없소.

이 〈숙제〉를 하기 전엔 일을 계속할수 없소.》

...

나는 그때 《숙제》를 제나름대로 풀어보았었다. 몰탈속엔 무엇이 더 들어가야 하는가. 건설자의 깨끗한 량심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들은 자기의 량심을 고스란히 땅 밑에, 자기가 세우는 구조물에 바쳐가는 사람들이다.

건설자의 량심이야말로 훌륭한 건축물을 낳게 하는 기초라고 할수 있다.

일생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남들이 살 집을 아니, 인민이 살아갈 집을 짓는것으로 하여 그 《기초》는 더욱 견고해야 할것이다.

하다면 건설자의 량심은 무엇으로 지켜지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건설장에서 찾자는 대답이 아닌가. ...

《아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결에서 춘만이가 웃으며 바라보았다.

《아이참, 그저 좀...》

나는 《무대》를 바라보았다.

이어5직장장의 시랑송이 있었다. 담담하면서도 서정에 젖은 목소리가 건물안을 조용조용 울리었다.

다정히 손잡고

우리는 거니네

별들은 소곤소곤 머리우에 속삭이고

상냥한 강바람은

두볼을 식혀주네

종구나 강변이여

버드나무록음에 묻힌 길이여

물오리도 쌍지어

우리를 따라오네

...

사랑에 대한 시였다. 가슴 한끝이 찌르르해졌다. 그것은 아픈 추억이였다.

... 《언니! 가지 말아요. 가더라도 하루밤...》

나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안해를 떠나보내는 오경철직장장의 처사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나의 상급생이였던 순정언니, 그는 지금 기업소에서 의사로 일하고있다.

도병원에 환자후송으로 왔다가 남편이 걱정되어 이렇게 찾아왔던것이다. 그런데 직장장은 빨리 가서 환자를 돌보라며 떠미는것이다.

언니의 상냥하고 마음씨 고운 두눈엔 물기가 반짝이였다.

《그래도 그이가 건강한걸 보니 마음이 놓여. ... 아무쪼록 완공의 날을 기다리겠어!》

귀가에 울려오는 시랑송소리—

귀중한 모든것

조국에 바치며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히 가꾸자

조국의 밖에선 삶이 없고

사랑의 밖에선 행복이 없다네

순정언니가 떠나간 그날 나는 지배인을 찾아갔다.

《지배인동지! 한가지 제기해도 좋습니까? 녀성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류달리 흥분한 나를 안경너머로 바라보며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는 두손을 꼭 모아잡았다.

《5직장장동진 너무합니다. 그렇게 인정이 없이야 어떻게... 수백리밖에서 남편을 찾아왔다가 그 길로 돌아서야 하는 녀인의 심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전 직장장동지에게 〈강제휴가〉를 며칠 주었으면 합니다.》

《강제휴가라...》지배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거요.그래서 사랑을 아름답다고 하는거지.

집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사랑없이야 어떻게 긴긴밤을 보낼수 있겠소.》

《예—에?》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동안이나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

이 말의 의미를 그로부터 며칠후 도에일보러 갔던 기회에 지배인을 만나 나는 뜨겁게 깨닫게 되었다.

회의차로 떠나왔던 우시복지배인을 시내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왜서인지 경건한 자세로 강건너편을 바라보고있었다.

《지배인동지!》나의 부름에 돌아보는 지배인의 얼굴은 그지없이 진중한 빛이였다.



그의 눈길을 따라 바라보니 멀지 않은 곳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색창연한 인공루와 현대적인 강계담내포국집이 아름다움을 겨루듯 솟아있었다.

그는 담내포국집을 바라보고있었다. 눈빛은 아이처럼 평온해보인다. 어글어글한 그의 눈은 깊은 사색의 심연처럼 여겨졌다.

《저길 좀 보오.》

나는 처음 조선식건물의 화려한 자태를 두고 하는 말인줄 알았다.

다음순간에야 그 건물의 현판에 정히 새겨져있는 글발을 넘두에 둔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는듯 한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건물이라는 글발이었다.

지배인은 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랑할줄 아는 인간이었다. 다만 그 사랑이 뿌리처럼, 건물의 기초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을뿐이었다.

어느새 직장별공연이 끝났다. 관중이 잠시 숨을 돌리는데 3직장장이 벌떡 일어났다.

《지배인동지의 독창을 들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순간 떠나갈듯 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좋습니다!》

허나 나로서는 몹시 걱정스러웠다. 똑바우지배인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산악같은 건물도 정교한 세공품처럼 척척 만들어내는 사람이 노래만은 재간이 없었다. 노래라면서 기권하군 했던것이다.

춘만이가 나를 보며 한눈을 찔끔했다.

《지배인동진 <지정곡 1번> 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리고는 또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그 <지정곡 1번> 이 뭔지 알아요? 바로 <동지애의 노래>예요. 영웅칭호를 받고 온 날에도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앞에 앉은 사람이 어느새 흠쳐들었다.

《<지정곡 2번> 도 있지 않나. <토장의 노래>...》

옆사람이 또 끼여들었다.

《헌데 가사만 통달했다나.》

주변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나는 따라웃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안절부절하였다.

우시복지배인이 앞에 나섰다. 어딘가 모르게 근엄한 표정이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넓은 건물안엔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상싶었다.

이윽고 약간 석싹하면서 웅근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이여

장내엔 파문이 일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건설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온 지배인의 입에서 저렇게 부드러운 노래가락이 흘러나오다니?!

꽃물결 흘러가는 조국의 거리여

두 처녀가 기타를 메고 달려나갔다. 반주와 함께 석싹한 목소리가 고조를 이룬다.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 삽을 뜨셨네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못  
있을 그리움이 파도처럼 장내를 휩쓸었다.  
모두 따라불렀다.

포화에 불타버린 폐허우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였네  
...

나는 눈곱이 달아올랐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땅을 찾으셨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우렁이 떠올랐다.

자강도에 오면 정이 든다고, 그래서 떠나고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이 건설한 소박한 발전소도 보아주시고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강계시에 현대적인 닭공장을 두개씩이나 건설하도록 하여주신 장군님.

그이의 높으신 뜻,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건설자들의 영예야말로 얼마나 큰것인가!

눈앞엔 우시복지배인의 집에서 보았던 어버이 수령님의 표창장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표창장이 떠오른다. 거기엔 공훈건설자증서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풀어드렸다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같이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서있다는 말없는 증서가 아닌가!

그런데 영웅증서는 왜 내걸지 않았을까? 공민의 최고영예인 영웅칭호를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불현듯 며칠전의 일이 돌이켜졌다. 건설현장을 돌아보고 숙소로 가는데 밤경비를 나온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소리였다.

《몇시에 교대하나?》

《새벽 2시네. 지배인이 일어나는 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지배인이 일어나는 시간? 그럼?!)

그날밤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지배인의 방에 불빛이 환했다. 남이 다 자는 깊은 밤, 어둠을 불사르며 타고있는 불빛,

신비롭고 눈부신 지식의 빛, 열정의 빛!...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그의 방에 불이 켜지곤 했다. 그의 진지한 사색을 거쳐 건설장의 일들이 진척되었다. 우리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훌륭한 건축물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건설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창조물들이 그의 영웅적위훈을 다 말해주고있는것 아닌가!...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었다. 지배인의 가슴에 꽃다발들이 안겨졌다. 지배인은 그것을 앞에 앉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주는것이였다.

공연은 끝났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유난히 밝은 별들이 머리우에서 반짝이고있었다.

건설장 여기저기에 웅건히 솟은 건물들은 한해의 사연을 다 말해주는듯싶다.

불빛이 환한 알날이사의 정면벽에 붙어있는 붉은색바탕의 현판에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건물이라는 글발이 눈부리를 지저준다.

바로 그앞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지배인이였다.

이 순간을 위해 한해 아니, 한생을 밖에서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며 시대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는 건설자들이 아닌가!

그들이라고 왜 가정의 따뜻한 아래목이 그립지 않겠는가.하지만 조국이 부르면 누구든지 나서야 하는 길이여서, 그 길이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지켜가는 길이여서 이렇게 아무리 험한 길도 서슴없이 웃으며 나서는것이다.

희생은 준엄한 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평범한 날에 바쳐가는 이런 희생성이야말로 고귀한 영웅성을 날게 하는 기초가 아니겠는가!

영웅지배인이 하던 말이 되살아난다.

《건축물을 세우는데서 기초가 중요하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지.

그러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거던. 우리 사회의 진짜건달군은 배우지 않는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코대가 지내 높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지. ...

작가선생이 경쟁에서 1등한 비결을 물었는데

그건 남보다 기술과 기능이 앞섰기때문이라고 할가. 어쨌든 머리가 빈 인간은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바칠것이 없다는거요.》

그의 마지막말은 많은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영웅성과 희생성은 자기 육체를 깡그리 바친다는 뜻만이 아니다.

자기의 정신력, 날로 번영하는조국의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줄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아낌없이 바쳐간다는 말이 아닐가.

그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참된 인생을 건설하자면 자기를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인간만이 자기를 다 바칠수 있다.

건설자에게 있어서 기술이 없는 량심과 의리란 한갓 루각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비로소 건설장에서 받은 《숙제》의 답을 찾은듯 했다.

우시복지배인의 영웅증서도 새로운 의미로 안겨왔다.

그의 영웅적위훈은 순간의 그 어떤 비상하고도 희생적인 행동에 있던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만탄창된 지식에 있는것이였다.

그것이 낳은 창조물, 우리 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결작품》이 진짜 《영웅증서》가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수많은 영웅들을 보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과학의 상상봉을 점령해가는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 바로 이런 인간들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건설되고 강성대국의 그날이 앞당겨지는것이 아닐가!

나는 이제 쓰게 될 작품의 주인공을 그려보았다.

주인공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땅속에 묻힌 기초마냥 말이 없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벌써 창작적흥분에 사로잡혀 걸음이 빨라진다.

이러한 나를 축복하듯 소담한 눈송이들이 꽃보라마냥 하늘공간을 짙 채우며 내리고있었다.

## 유모아

## 내용이 건전한 책

자본주의나라의 어느 한 책방에서 손님이 판매원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책을 한권 사려고 합니다. 과학기술도서도 아니구요, 에... 내용이 건전해야 되겠는데. 다시말하여 모령의 너성도 백만장자도 없고 살인과 강탈, 사랑과 질투가 없는 그런 책을 말입니다. 있습니까?》 《있지 않구요.》 판매원이 제격 대답하면서 당반에서 책 한권을 내주었다.

그것은 《전국렬차운행시간책》이였다

## 두 세대의 웃음 (외 1 편)

김춘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아침 군대로 가니  
어이 그저야 헤어지랴  
아버지와 아들 사진을 찍는구나

아버지는 오랜 군인  
아들은 신입병사  
하냥 부푸는 기쁨이  
나란히 웃음짓는 두 얼굴에 비꼈구나

기쁘구나 아버지는  
군복입은 가슴 영예로 빛내이며  
한생을 바쳐온 그 길우에  
오늘은 아들을 뒤따라 세운것이

기쁘구나 아들도  
아버지의 훈장메달 부럽게 만져보며  
자래운 그 희망 꽃피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초소에 서는것이

정녕 기쁘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시대의 숨결  
시대의 지향을 함께 따르며  
시대의 자랑인 군복을 함께 입은것이

꽃같은 웃음이 절로 피는구나  
이 순간이 언제부터 기다리던 순간인듯  
가정의 대를 군복으로 이어가는  
이 행복이 간절히도 바라던 행복이어서

참으로 시대앞에 자랑스러운  
그 모습 그 웃음이 좋아  
오고가던 사람들도 웃음으로 축복하고  
사진사도 웃음속에 샤타를 누르는데

오,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의 웃음이  
행복의 화폭속에 영원히 새겨지누나  
선군으로 아름다운 우리 시대모습으로

## 거수경례

자 이젠 떠나자고  
렬차는 기적을 울리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사하는구나  
아직은 서투른 거수경례로

날마다 학교로 가며  
머리 숙여 인사하던 아들  
그 가슴에 어느새  
병사라는 자각이 깃들었는가

집안의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수경례에  
아버지의 가슴 뭉클 뜨거워  
서둘러 답례하는구나 거수경례로

평범한 인사가 아니구나  
병사가 되어  
오랜 군인이며 상급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올리는 거수경례

례사로운 답례가 아니구나  
나서자란 고향을 떠나  
병사의 먼길을 가야 할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거수경례

긴말은 더 없어도  
주교받는 그 경례에 다 비꼈구나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보다 크고 뜨거운 존경과 사랑, 또 약속이

참으로 뜻깊은 군인의 경례  
이제 아들은 새롭게 성장하리  
아직은 서투른 거수경례도  
복무의 나날속에 몸에 꼭 배이리

그 거수경례  
언제인가 초소에 오실 장군님께 올릴 때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얼마나 반갑게 답례하시랴

그렇구나 오늘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한 가정의 혈육만이 아닌  
질세의령장을 모신 한대오의 동지  
그래서 나누는 인사도  
목숨바쳐 그 품 지킬 맹세의 인사

오, 거수경례  
혈육의 피줄만이 아닌  
혁명의 피줄기로 더 굳게 얹혀진  
아버지와 아들— 두 심장의 인사여!



# 1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보게 되는 감회란 류다른것이다.

열정과 희망으로 불타던 청춘시절 우리는 십년나마 한일터에서 함께 일해온 사이였다. 지금은 서로 다른 도의 일군들로 중앙에서 회의나 있어야 한번씩 만나곤 하지만 그때는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을만큼 자벌하게 지냈었다. 그는 작업반장으로, 나는 본조장으로... 장구한 세월 농장포전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불타는 청춘시절의 추억들과 함께 나의 가슴속에 따뜻한 정회를 불러주는 잊을수 없는 사람이였다. 그는 나보다 여섯살 우로서 언제나 맏형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었었다. 그가 바로 지금 내가 찾아가고있는 X도농촌경리위원회의 어느 한 부서에서 일하고있는 로력영웅 장영남이다.

장영남이 무비루스감자종자를 해마다 수천톤씩 생산할수 있는 감자채종농장과 감자조직배양공장을 꾸려놓아 전국의 본보기단위가 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나를 기쁨과 놀라움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60을 훨씬 넘겼으니 고목에 꽃을 피운 격이 아니겠는가!

년로보장나이가 되어오면 인생마무리를 파오없이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소심해져서 일을 내밀지 못하고 보신주의올라리속에서 현상유지나 해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젊어서 제노라던 사람들중에도 그런 실례가 종종 있다. 먼 실례를 들것 없이 나자신의 경우를 보아도 명백하지 않은가. 나는 아직 60이 채 못됐는데도 무슨 일이든 타산을 앞세우게 되고 무턱대고 일을 내밀다가 잘못되거나 앓을가 우려부터 하게 되어 소심성과 보신주의에 빠져버린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김상현

다고 늘그막에 공연히 중뿔나게 나섰다가 오유를 범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무난히 처리하며 나가느라면 파오없이 인생마무리를 할것이 아닌가. 자신의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견해를 이러한 정당치 못한 자기 변명의 구실속에 감추고 살아오던 나자신이였으니 고목에 꽃을 피운것과 같은 장영남의 일이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수 없었다.

대흥단감자농사법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농사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느라 그 바쁘신 나날에도 눈보라를 헤치시며 여러차례 대흥단을 찾으시여 대흥단감자농사법을 마련해주시고 대흥단을 온 나라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였다.

장영남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대흥단감자농사법을 따라배우는데서 앞장에 나서고있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님도 불검 뿔도 딸검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장영남이도 만나불검 무비루스감자종자채종농장과 조직배양공장을 돌아보고 배우기도 할겸 만사를 짓쳐놓고 떠나오게 되였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장영남을 만나 목은 정과 회포를 나누기에 앞서 그가 나이 많아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어떻게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일군답게 감자농사혁명의 선봉에 설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더욱 알고싶었던것이다.

6월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져 록을 짙은 수삼나무 가로수들이 긴 그림자를 드리울무렵 나는 도소재지의 중심에 자리잡은 장영남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생각이 많았다. 아들 4형제가 모두 인민군대 군관들로 복무하고있다니 이제는령감, 로친이 비둘기마냥 호젓하게 남았을것이다.

문이 열리었다. 장영남의 안해 김정실이 나의 앞에 섰다. 둥실하고 굵던 얼굴의 옛 모습이 열기 설기 한 주름살들에 가리워졌어도 나를 반기는 너인의 다정한 미소, 그 눈빛만은 예나 다름없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아, 이게 누구예요? 적은이 왔구만! 어서 들어오세요.》

《형수님, 그새 편안하셨수?!》

스무해나마 세월은 흘렀어도 옛 부름대로 《적은이》로 불러주는것이 고마와 나는 눈을 습벅이며 흥그려워진 기분으로 그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섰다. 전실과 부엌칸, 방 두칸이 있는 집안은 보통 아빠트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방구조이고 가장집들 역시 빛 다른것이 없는 눈에 익은 수수한것들이었다. 집안살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바깥일에만 열정을 깡그리 쏟으며 살아온 장영남의 소박하고 겸허하고 고지식한 사람됨을 방안만 둘러보아도 엿볼수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아들딸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였다. 나는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서 일하는 두 딸과 군대에 나간 막내아들의 소식을 말했고 김정실은 군사복무를 하는 아들 넷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맏이 종팔이는 군사대학교원을 하고 종철이는 중대장, 종권이는 소대장으로, 막내 종덕이는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복무하고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늘 출장을 다니기에 어머니가 적적해할것을 생각하여 종팔이는 안해를 어머니한테 보내서 함께 있게 했다.

너인은 한동안이나 머느리자랑을 했다.

직장일에 무척 바쁘지만 시부모에 대한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면서 친딸 못지 않다고 머느리를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아들 넷을 낳아 키우느라 수고 많던 형수님이 이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살 재미가 있는가고 나는 너인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너인이 펄쩍 놀란듯 말했다.

《아 참, 이 정신 봐요. 령감한테 적은이 왔단 소식 알려야 하겠다면걸... 요즘 내내 채종농장에 나가 살고있라우.》

너인이 송수화기를 들고 채종농장을 찾았다. 남편은 감자포전에 나갔다고 그쪽에서 알려왔다.

《..미안하지만 꼭 찾아서 전화 좀 바꿔주세요. 고향에서 함께 별을 가꾸던 적은이가 왔다면... 백사불구하고 달려올거예요. ...》

저녁차비를 하려는듯 부엌으로 나가려는 너인에게 나는 가방에 넣고온것을 꺼내놓았다.

《이런걸 뭘 다... 우리 집에 없을가봐서요?!》

나무라운듯 곱게 눈을 흘기는 너인의 말을 나는 우스개로 받았다.

《어느 고망년에 찾아뵈웠던 못난 동생이 사죄술이라도 부어야 할게 아닙니까.》

너인이 나간 사이 나는 방안의 앞벽에 밝고 정중하게 모셔진 사진들에 눈길을 주었다. 중앙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이었다.

전국농업일군대회, 전국영웅대회...

불현듯 나의 뇌리에 장영남이와 함께 농사를 짓던 수십여년전의 일이 어제런듯 삼삼히 돌이켜졌다. ...

70년대 초엽 어느해 마가울이었다. 우리는 장영남반장의 지휘밑에 작업반 100여정보의 논을 한배미가 1 000평정도씩 되게 규격화하여 토지정리를 하는 일을 땅이 열기 전에 끝내려고 밤낮 없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었다. 전투는 힘겨웠다. 그도 그럴것이 28마력 《천리마》 호프락포르 4대에 삽날을 달아 그것을 불도젤대용으로 토지정리를 해나가자니 험할수가 없었다.

달빛이 휘영청 밝은 어느날 밤 자정이 넘을무렵, 영남반장이 프락포르를 몰아가고있는 나를 찾아나왔다.

그는 다짜고짜 나의 손을 잡아 끌어내리며 말했다.

《덕윤이, 힘들지. 운전수때 숨씨가 여전하구만. 그래두 두어시간 눈 좀볼이구 나오라구.》

나는 별수없이 운전대를 놓고 프락포르에서 내려왔다. 시간을 타산하여보니 한시간 남짓이 눈을 불이고 나와도 될것 같았다. 단단히 채심하고 제때에 일어나 나오리라 다짐하며 수로쪽가의 오두막에 들어가누웠던 나였지만 내쳐 자버려 실수를 하였다. 깨어나보니 먼동이 흰히 터오고있었던것이다. 영남반장이 논머리에서 우두불을 피우고있었다. 너무도 미안하여 곁에 다가가서기도 멧적어지는데 그는 오히려 반색을 하며 말을 건넨다.

《오두막이 추워서 제대로 잤나? 와서 불을 좀 쪼이라구.》

《흠진요. 솜옷을 덮고 잤더니... 그만... 지내 잤습니다.》

《지내 자기야 뭘... 아직 날도 채 밝지 않았는데...》

반장은 어디서 주어왔는지 마른 삭정이 몇가지를 불무지우에 덧놓고나서 심중한 표정이 되며 말했다.

《덕윤이, 여기 좀 와앉으라구. 할말이 있어서...》

나는 그의 심중한 표정과 석연치 않은 말투에 그 어떤 위압과 불안을 느끼며 조심스레 불무지 곁에 앉았다. 꾸중당할 일을 한것이 없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분조장동무, 리에다 우리 작업반 탁아소 보육원 문제를 상정시켰소? 우리 집 사람을 보육원시키자구...》

가슴을 조이었던 나의 마음은 늦추어졌다.

탁아소 보육원 문제라면 나도 정정당당하게 할 말이 있는것이다. 영남반장의 안해인 김정실은 처녀시절에 보육원양성소를 나와 보육원을 한 경력이다. 작업반장을 하는 남편의 일을 뒤받침하느라 보육원으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있지만 이제는 년년생으로 탁아유치원생이 셋이나 달려 농산분조에서 일하기 배치하는것만큼 결에서 혼수를 들어서라도 보육원으로 일하도록 하는것이 그를 맡은 분조장으로서 웅당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언제인가 리 너맹위원장을 만나 보육원양성소에 처녀들을 새로 보내느라 하지 말고 자격보육원인 김정실아주머니를 보육원으로 일하게 하자고 제기했었다. 이 문제가 농장의 책임일군들한테 상정되어 논의된것이 틀림없었다. 김정실아주머니가 보육원으로 일하도록 리에서 토론되었다면 바로 된 일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두고 궁지감을 가지고있었다.

나는 너맹위원장을 만났던 일과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터놓았다. 우등불에 비낀 영남반장의 얼굴이 컴컴하게 흐려졌다.

그의 조용한 음성이 무겁게 울리었다.

《분조장동무가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해서 말해준건 고맙지만 외곶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남달리 일판을 크게 벌려놓았소. 군 건설력량의 도움을 받아 널려있는 살림집 수집동을 한데 모아 지어야지, 탁아소, 유치원, 탈곡장... 모두 새로 짓고 꾸려야지, 땅도 개량하고... 그것도 어디 험한 일이요?! 석회로를 건설하고 소석회를 생산해야 하구... 그것을 포전별로 치구 흙갈이도 하구... 토지정리 하고는 수로를 짚구 포전도로를 닦아야 하구... 이 어려운 과업을 다 수행하자면 작업반이 합심돼야 할텐데 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제 집 사람을 보육원으로 들어앉혀놓아보우. 더구나 우리야 어머님이 계시여 아침저녁 때식을 다 끓여주는데... 혼자 손인 녀인들이 힘들 때마다 반장을 비난할게란 말이요. 제 안해는 편한 자리에 들어앉혀놓구 다른 아낙네들만 들볶아댄다고...》

영남반장은 말을 끊고 침울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그 우울한 눈빛은 마치도 《덕운동무, 동무는 하나만 생각하고 돌을 볼줄 모르니 어떻게 분조장구실을 제대로 할수가 있겠소!》라고 질책하는듯만싶었다.

생각이 깊어진 나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깊이 숙이였다. 한편 량심의 가책이 머리를 들었다. 그것은 나의 안해에 대한 생각이였다. 나는 집사람을 축산반 사양공으로 들여보내고 나만 분조장으로 농산반에서 일하고있었던것이다.

일이 힘들 때마다 분조녀인들은 방금 반장이 말한것처럼 나를 비난할것이다. 《제 너편네는 편한 일자리에 앉혀놓고 남의 너편네만 들볶아댄다》라고...

영남반장이 조금 밝아진 낮빛으로 말을 이었

다.

《덕운동무, 작업반일이든 분조일이든 잘되어가자면 우리 조금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뛰고 또 그 안해들이 보조를 맞춰주어야 하는거요. 부부일심동체가 되어 분조나 작업반을 끌고나간다면야 왜 일이 안될수가 있겠소.

우리 집 사람은 이미 각오를 하고 농산반일을 하고있으니 분조장동무가 잘 이끌어주요.》

나는 주눅이 드는 심정으로 작업반장의 말을 접수하였다. 그의 말을 접수한다는것은 곧 나 자신도 안해를 축산반에서 농산반으로 데려내와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아직까지 그럴 용단은 내지 못하고있었다. 안해가 어떤 태도와 립장으로 나올런지 우려되어서였다.

날은 완전히 밝았다. 우등불빛도 달빛도 별빛도 모두 사그라졌다. 영남반장은 밤새 정리된 논벌을 거닐며 흐뭇해하였다.

나는 한시간이라도 트랙트운전수와 교대하여 주려고 운전칸에 올랐다. 방금 샅날을 박고 밀어나가려는데 문득 영남반장이 차를 막아서며 내리라고 하였다. 내려서 반장이 손짓하는 곳을 보니 논머리에 서서 밝게 웃고있는 김정실이 보이였다. 논둑우에는 그가 방금 이고와서 내려놓은듯 한 꽃보자기를 덮은 음식소랭이가 놓여있었다.

《자, 시장을 할텐데 어서 와서 요길 하세요.》

정기 록 배인 녀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

우리는 그해에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 땅 일기 전에 토지정리를 끝내고 소석회도 구워서 포전들에 뿌리였다. 나는 안해를 설복하여 다음해부터는 일터를 옮기도록 하였다.

축산반에서 내가 일하는 농산분조로 옮긴 안해는 정실아주머니와 보조를 맞추며 분조농사일에 이악을 부렸다. 안해가 농산분조에 나온 다음부터 분조일이 더욱 눈에 띄게 자리가 난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나는 이따금 영남반장의 말을 상기하곤 하였다.

《부부일심동체가 되어 분조나 작업반을 끌고 나간다면야 왜 일이 안될수가 있겠소.》

70년대 중엽까지 그 몇해에 우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제겼다. 군 건설력량의 도움을 받아 수집동의 낡은 살림집들을 헐고 새 문화주택들로 아담하게 모아 지어 여러 정보나 되는 땅을 얻어내고 토지정리된 논벌에 수신키로메터에 달하는 포전도로를 내고 수로를 짚다. 주체농법대로 좋은 종자를 골라 심고 비배관리를 잘해서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여 농장적으로 단연 1등자리를 차지하였다. 농산실적뿐아니라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어 본보기작업반이 되였다.

장영남반장이 전국농업일군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로력영웅칭호를 받은것은 작업반과 농장마을의 큰 경사였다. ...

채종농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기쁨에 넘친 장영남의 걸걸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렸다.

《적은이 왔소? 반갑구만! 우리 집엘 다 찾아와 주구… 잠깐만 기다리우, 한시간전에 가닿을테니…》

나는 장영남이 이제나저제나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창밖에서 뱅뱅—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리었다.

나는 옛 작업반장을 만나게 된 환희로운 심정을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운전사 한사람뿐이 아닌가.

운전사의 말은 나를 더욱 아연하게 만들었다.

《아바이가 오실 틈을 내지 못해서 제가 왔습니다. 어서 같이 갑시다.》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온 나는 성급하게 말했다.

《형수님, 당장 채종농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차가 왔구만요. 헛 참, 작업반장할 때 성격대로 라니까…》

망연자실한 너인의 눈빛은 마치도 《집에서 식사 한끼 대접 못하고 보내다니… 정말 미안하군요.》라고 말하는듯싶었다.

## 2

진중하고 입이 무거워보이는 운전사는 말없이 앞만 주시하며 차를 몰아가고있었다. 내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채종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할것 같지 않았다. 얼마간 달렸을 때 나는 운전사에게 채종농장의 감자농사형편에 대하여서와 장영남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라 오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묻는 말에 짹짹 대답하고 난 운전사는 활기를 띠고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다.

《우리 아바이와 무척 자별한 사이인게지요? 친척입니까?》 친척인가구?!… 저도 모르게 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친형제 못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옛 작업반장으로 10년나마 같이 일했지요. 영남반장 밑에서 나는 분조장을 하면서 그의 사람됨을 알게 됐구 친형님처럼 따르게했지요.》

운전사의 얼굴에 느슨한 웃음이 피어났다.

《아하, 그런 사이니까 우리 아바이가 마음 토크 농구 농장에서 일을 보고있군요. 손님이 집에 계시든 채종농장에 오시든 아무튼 랑팬 없으리라 믿구요.》

《우리 형님이 젊은 시절의 그 불같은 성격을 버리지 않았다면 운전사동무두 여간 베차지 않겠수다. 보조를 맞추느라구…》

나의 말에 운전사의 얼굴표정이 정색해졌다.

《성격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하지요. 하지만 뭐 베찰것두 없습니다. 차나 몰고 다니기야… 운전사란 연락병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게 조련치 않은 일이지요.》

이윽한 동안을 두었다가 운전사는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했다. …

《우리 아바인 휴식도 뒤로 미루고 여태껏 동분서주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 정초 어느날 밤이었지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뜻밖에도 우리 아바이가 찾아왔습니다. …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지요.

아바이가 찾아온 의도를 가늠해보았습니다. 분명 어디로 떠나자고 왔으리라는것은 짐작이 갔지만… 한편 걱정스럽기도 했지요. 어디로 가자고 할런지? 많은 눈이 내려 짹 다져진 눈길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거울처럼 번들거리고 미끄럽기 그지없으니 평탄한 길이면 몰라도 령길을 넘기는 위험하기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다를가 아바이의 이야긴 제 마음을 더욱 좋아들게 했습니다.

〈운전사동무, 또 좀 수고해주오. 비료공장에 다녀와야겠소.〉 하고 말하는 아바이의 눈빛은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해서 정말 안됐소.〉 라고 랑해를 구하는듯 했지요. 어느 하루도 집에서 편히 쉴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 저였지만 비료공장으로 가자면 위험한 고개를 돌이나 넘어야 하는 데다가 그것도 밤중에 가야 한다니 마음의 동요가 일지않을수 없었습니다. 녹았다가 얼어붙어 번들거리는 고개길, 엇그제 살짝 내린 눈으로 하여 더욱 미끄러울 얼음판, 사고를 내지 않으리라고 여쭙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바이눈길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제 입에서는 탄말이 나올수 없었지요.

〈가야지요, 아바이. 당장 떠나시겠습니까?〉

〈당장 떠나도 다른 일 없겠소?〉

〈길이 위험하긴 하지만 아바이가 가자는데야 안 갈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이 방금 입밖으로 튀어나오려는것을 꼭 참고 〈떠나도 됩니다.〉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체없이 길을 떠났지요.

얼음판처럼 된 얼어붙은 눈길우에 살짝 깔린 눈으로 하여 큰길에 나서자마자 차의 뒤꼬리가 휘돌고 지치는것이 속도를 놓기가 무서웠습니다. 다행히도 고개길에는 도로관리원들이 흙을 구워 뿌려놓아 무사히 넘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넘고나니 진땀이 흘러 등어리가 축축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밤 아바인 비료공장에 도착하자 즉시로 급소 소장한테 찾아가 인사를 했지요.

소장아바이가 하던 말이 귀에 선합니다.

〈질떼군이 또 왔구만. 그러지 않아도 올줄 알았  
다니까... 하지만 이 구두쇠령감이 그렇게 쉽게  
죽아날상심은가?〉

공급소 소장은 계획날자에 와서 가져가라고 딱  
잘라매는것이였지요.

아무 말대꾸없이 물러나온 우리 아바인 다음날  
도 또 그 다음날도 련거퍼 사흘동안 비료공장에  
갔습니다.

자칭 〈구두쇠〉라던 공급소 소장이 손 바짝 든  
다는 의미로 꺾꺾 웃어제끼며 말했습니다.

〈장영남이! 이 질떼군, 검질기다는건... 사람이  
나이들면 움츠러들게 마련인데 움츠러들지 않는  
그 기상이 장해서두 인심 좀 써야지. 래일부터라  
두 당장 싼게. 그대신 종자채종에서 전국의 앞장  
에 서지 못하면 벌을 면치 못할줄 알라구!〉

소장은 룡조로 으름장을 놓듯 말하고는 판매과  
를 찾더니 전표를 떼주라고 지시하더군요.

그제야 우리 아바이 입이 함지박만 해졌습니다.  
그때 어린애들처럼 좋아서 어쩔줄 모르던 그 얼  
굴, 기쁨에 겨워 환히 웃던 아바이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방불합니다.

돌아올 때는 흥에 겨워 록음기의 음악에 맞춰  
코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니까요.〉

이야기를 마친 운전사의 두눈에는 《우리 아바  
인 일욕심이 보통이 아닌 이런 일군이랍니다.》라  
고 하는듯 한 긍지와 자랑의 빛이 담기였다.

승용차는 큰길에서 벗어나 지름길에 들어섰다.

울퉁불퉁한 포전길이어서 차는 몹시 들쭉했다.

운전사가 미안한듯 한 어조로 말했다.

《큰길로 가면 70리길을 에둘지요. 그래서 우리  
아바인 늘이 길로만 가자고 합니다. 시간을 단축  
하느라고... 그런데 나루터를 건너야 합니다. 차를  
배에 태우고 말입니다. 강이 얼었는데도 이 길로  
가자고 할 땐 참 난감합니다. 물론 얼음이 두텁게  
얼진 않지만... 그 왕고집을 꺾을수가 없어 건너  
갑니다. 얼음을 까면서... 아바이가 배사공한테 랑  
해를 구하지요. 담배도 권하면서... 처음엔강이 얼  
어 못 건너간다고 우기던 배사공이 우리 아바이  
가 나서 얼음을 까고 건느기 시작하면 별수없이  
따라나섭니다. 그 다음부터 아바이가 건느자면 군  
말없이 건느군 했습니다. 배사공도 아바이의 열성  
과 의지력에 혀를 차군 한답니다.》

철다리미를 지나 강변을 거슬러 얼마쯤 지나니  
나루터가 나타났다. 배의 뜰힘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인듯 도람통만한 부피의 속이 빈 철관을 배전  
의 좌우쪽에 매단 크지 않은 철선이 강물우에 떠  
있었다.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활차에 걸린 굵다  
란 쇠바줄이 강물우로 곧바로 건너갔다. 강은 깊  
고 흐름이 빠르지 않아 호수처럼 잔잔하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배사공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의 일손을 도왔다.

차를 배우에 들여세우고난 운전사가 배줄을 당  
기는 나의 곁에 와 쇠바줄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바인 무얼 하자고 맘 먹으면 기어코  
해내고야마는 성미입니다. 흐지부지가 없지요. 얼  
음을 까구 배를 건느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무비루스감자종자 조직배양공장을 건설할 때 아  
바이가 립산에 가서 목재를 실어오던 일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운전사는 L 군림산사업소의 원목토장에 화물자  
동차들을 들이대고 통나무를 실던 지난 일을 이  
야기하기 시작했다. ...

몇해전 11월말이었다. 장영남의 일행이 원목토  
장이 마주보이는 강기슭에 이르렀을 때는 지난  
밤의 추위로 강이 얼어 차를 건널 형편이 못되었  
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 해발고가 높  
은 산간지대이니 추위가 앞당겨온다는것을 미처  
가늠하지 못했었다. 차라리 강이 아주 얼어붙어  
얼음우로 차를 건느게 기일을 늦잡아오든가 아니  
면 썩 앞당겨왔어야 했을것이였다.

일행을 안내한 립산작업소의 일군은 하루쯤 미  
루더라도 작업소로동차들을 동원시켜 얼음을 까  
고 건느자고 했지만 장영남은 남의 힘을 바랄것  
없이 제힘으로 당장 강을 건느자고 했다.

《누가 하든 얼음을 까야 하는 일인데 누굴 시  
킬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요. 랑쪽 강변에  
우등불이나 한더미씩 피워놓고 불을 쪼이면서 하  
면 됩니다.》

장영남의 진중한 눈빛과 엄숙한 얼굴에 담긴  
드림없는 결심을 읽은 작업소일군은 어쩔수없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장영남이 얼음을 까며 강물  
에 들어서는데야 누구인들 따라나서지 않을수 있  
으랴. 아무리 우등불에 쪼인다 해도 얼음물에 들  
어섰던 몸인지라 이가 딱딱 마주칠 지경으로 덜  
덜 떨리였다.

젊은 운전사들중 누구인가 불부은 소리를 했  
다.

《에에— 질떼군아바일 따라섰다면 늘 이렇게  
학질 떼겠군. 이거야 어디 떨려서 견디겠나.》

그 말을 엿들은 장영남이 꺾꺾 웃으며 젊은이  
에게 룡조로 말했다.

《혁철이, 용기를 내라구. 무슨 일이나 마음먹기  
탓이야. 그럼 떨리는것두 몇지 않으니... 하하하  
...》

몸이 얼어 입술이 새파래가지고도 꺾꺾 웃으며  
젊은이들을 고무하는 장영남의 모습을 보고 작업  
소의 일군도 감탄이 커서 짐을 다 싣고 떠나기  
전에 환복하여 말했다.

《아바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니까. 체소해  
보이는 분이 강기가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60  
나이에 이런 얼음물에 들어설 용단을 내리다니...  
놀랍습니다.》

장영남이 레사로운 얼굴로 조용히 응답했다.

《곤난할 때 강의성이 필요하고 즐거울 때 경각  
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의성만 가지면 그 어떤 곤란도 이겨낼수 있지요. 우리가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때나 조국해방전쟁때 싸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좁한 곤란이 무엇이겠습니까. 난 어려운 정황이 생길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다듬곤 합니다.》

우등불가까이에 둘러섰던 작업소일군의 얼굴도 젊은 운전사들의 얼굴들도 모두 승엄해지며 크게 공감하는 표정들이었다. ...

승용차를 실은 철선은 잔잔한 물결을 헤가르며 서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고있었다. 배전에 철썩이는 잔물결소리는 나에게 사색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옛 작업반장의 변함없는 열정에 넘친 모습은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킴과 함께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아득히 흘러간 지난 일들을 상기시키는것이였다. ...

작업반의 새 문화주택마을을 일떠세울 때의 일이었다. 어느 겨울날, 장영남반장은 산간군에 있는 립산작업소에 가서 집을 지을 통나무들을 실어오려고 군건설대원들을 도와 자동차를 끌고 떠났다. 건장한 청년들로 상차조를 무었는데 그중에는 나를 포함한 초급일군들도 몇명 있었다.

통나무를 실는 일은 첫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가 차를 대고 실어야 할 토장에는 통나무가 없었다. 때무이토장에 다 실어내가고 전쟁때 인민군포탄에 맞은 미제의 땅크가 굴어난 곳이라 하여 땅크굴이라고 불리우는 골짜기에 쌓아놓은 통나무들이 무져있을뿐이였다. 그것을 우리 차에 싣자면 토장까지 끌어내와야 했다. 립산작업소의 책임일군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채벌장의 견인차를 동원시켜 실어줄테니 며칠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통나무들이 열기설기 쌓여져있는 땅크굴 막바지에 우등불이 타올랐다.

우등불가에 모두가 둘러앉아 도중식사보자기를 풀어놓았을 때 장영남반장이 말했다.

《자, 동무들! 우선 몸들을 녹입시다. 몸이 뜨뜻하게 돼야 음식맛도 날게 아니요.》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에 쪼여 훈훈하게 몸들이 녹자 영남반장이 집에서 싸가지고 온 떡을 차례로 권하며 말했다.

《자, 이걸 한개씩 들어보우.》

노르끄레한 떡의 빛갈도 맛도 류달랐다. 쫄깃쫄깃하고 달콤한것이 무엇을 넣고 만들었는지 감칠맛이 있었다.

나는 떡을 먹다말고 반장에게 물었다.

《무슨 떡입니까? 흰쌀이나 찹쌀떡 같진 않은데 ... 꿀을 넣었습니까?》

《알아맞춰보우. 무슨 떡인가?》

기장쌀이나 조찹쌀가루를 찹쌀가루에 섞어 만든 떡이라느니, 풀이나 사탕가루를 넣으면 굳지

않으니 그렇게 만든 떡이라느니 모두가 한마디씩 짐작소리들을 했지만 누구도 알아맞추지 못하였다.

영남반장이 싱글벙글하며 설명했다.

《우리 집 사람이 산골에 일하러 가면 산골음식으로 도중식사를 만들어야 체격이라며 해준거라오. <꼬장떡>이라는건데... 쌀가루에 콩을 갈아 약간 넣었을뿐이요. 산골에서는 강냉이가루로 만든다지만 우리 고장이야 쌀이 흔하니 쌀로 만든거지.》

모두가 영남반장의 안해 김정실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였다.

《그럼 콩떡이라는건데 이 맛있는걸 누가 콩떡이라고 하겠습니까.》

《콩떡이라면 비릿한줄 알았더니 이진 꿀맛이군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두 모르겠구만.》

《돌아가면 <꼬장떡> 잘 먹은 인사를 톡톡히 차려야겠단니까...》

문득 나의 뇌리에 토지정리가 한창이던 어느날 밝은 밤의 일이 떠올랐다. 자정이 넘은 한밤중, 운전대를 잡았던 나를 교대하여주며 프락포르를 몰아가던 작업반장의 모습! 우리 초급일군들부터 안해들을 잘 이끌어주어 작업반원들의 앞장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타일려주던 그의 말... 그날 어둑새벽 음식을 싸들고 나와 논머리에 서있던 김정실의 모습이 우렷이 보이는듯 하였다.

상차조원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났을 때 장영남반장이 의논조로 말했다.

《동무들, 어찌면 좋겠소?채벌장에서 견인차가 와서 끌어주길 기다려야 옳겠소? 아니면 이곳 농장에서 소발구라도 몇채 얻어 우리 힘으로 끌어내다가 실는것이 좋겠소?》

반장이 이미 결심을 하고서도 의향을 묻는다는 것을 변연히 알고있는 상차조원들인지라 한결같은 목소리로 응답했다.

《반장동지, 무얼 세월없이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날라다 실읍시다.》

《농장작업반이 멀지도 않은데 소나 몇마리 얻으면 래일까진 끌어내갈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끝바를 매 끌어다가라도 실읍시다.》

상차조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영남반장이 말했다.

《동무들이 그렇게 나올줄 알았소. 그까짓 남의 힘이라며 이삼일 기다리게 있소. 제 육신 놀려실으면 그만이지.》

그리하여 하루 한것동안 소발구로도 실고 한대씩 끝바를 매 끌기도 하여 필요한 통나무 전량을 토장에 내다가 실고 다음날은 떠날수 있게 되었다. ...

나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나의 옛 작업반장은 그때 그날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는 열정을 안고 《질떼군》이란 별호가 붙을만큼 이악스러운 전투기풍으로 살고있다.

심장이 크면 늙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장영남의 심장이 커서만이라.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의 옛 작업반장이기에 오늘도 청춘의 패기와 정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며 일하는것 이리라!

일매지게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논벌들과 산기슭에 줄맞춰 아담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들이 승용차의 시창밖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채종농장에 다달은것이다.

### 3

감자종자시험포전에서 몇몇 일군들과 함께 감자포기들을 캐어보며 시험자료를 분석하고있던 장영남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나에게로 급히 다가왔다.

상봉의 기쁨을 나누며 어지간히 이야기가 오갔을 때 그가 시험포전에 캐놓은 감자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보게 적은이, 우린 포전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제격이야. 로친넌 좀 서운해하겠지만... 이보라구, 이 비교시험한걸... 전애야 품종이나 시비량, 파종시기별이나 비배관리, 미생물비료나 화학비료를 썼을 때의 비교... 이런것만 중시했지 감자종자의 물리화학적처리 비교시험을 할 생각은 못하지 않았었다. 여기에도 대단한 수확고의 예비가 있네.》

장영남은 초무연탄처리와 미량원소처리, 높은 온도처리 등 감자종자의 물리화학적처리를 했을 때 수확고가 높아진 자료를 실물로 보여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캔 감자알들을 손에 들고 시험포의 실적수치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의 열정에 넘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운전사만을 보낸것을 섭섭하게 여겼던 자신을 뉘우쳤다. 시험포전의 감자포기들을 캐어보며 실적수치들을 놓고 채종농장일군들과 한창 열을 올려 토론하던중이었으니 어떻게 그 일을 중도반단하고 나한테 올수 있었으랴.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무렵 시험포전의 일이 끝나자 장영남은 나를 감자조직배양공장으로 안내하였다.

무균조작대와 고압멸균기 등 현대적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조직배양을 하고있는 조직배양공장, 무비루스감자를 생산하고있는 천연평방이나 되는 온실이며 수백톤 감자종자저장능력의 저장고... 보는것마다 새롭고 황홀한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와 동행하던 채종농장지배인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대흥단에 세번이나 다녀왔습니

다. 대흥단감자농사법을 배우려구요. 시약, 시험관, 배양단지, 배양액을 구해들일 때부터 공장, 온실, 저장고를 완공할 때까지 아바이수고가 참말 컸습니다.》

지배인이 나에게 조용히 하는 말이었으나 조금 떨어져있던 장영남이 어느새 듣고 반박하듯 말했다.

《국가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었기에 건설한거네. 설비, 자재, 기술로력까지... 다 도당에서 밀어주었다니까... 우리가 무얼 한게 있다구... 지배인동무 말은 들을게 못되네.》

장영남의 겸손한 말은 나의 생각을 더욱 깊게 하였다. ...

채종농장합숙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우리는 침실에서 묵은 회포를 나누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늙은이의 활기는 추억에 있다고 감회깊은 지난날의 이야기는 주름질은 장영남의 얼굴을 10년은 젊어보이게 하였다.

장영남은 70년대 중엽,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영광의 날을 감회깊게 회고하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농업부문 열성자들을 불러주신 자리에서 장영남을 선참으로 오랜 시간 만나주시였다. 가슴에 영웅메달이 번쩍이는 그를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웅작업반장이라고 대견해하시며 그동안 해놓은 일들에 대하여 세세히 물어주시고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인 일을 아주 잘한 작업반장이라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다음해에는 알곡소출을 훨씬 더 높이겠다는 그의 결의를 들으시고는 무척 대견해하시며 영웅작업반장동무 결심이 참 좋다고, 작업반장동무가 훌륭한 결의를 실천하도록 동무들이 잘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일군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영남은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람에 불뭉치를 삼킨듯 목이 메여오고 눈곱이 젖어들었다.

그는 7살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수령님께서 주신 3,800평의 땅을 분여받고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농사를 짓던 아버지 장동현은 해방전에 얻은 병환으로 하여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당에서는 그를 애지중지 품에 안아 로력영웅으로까지 키워내세워주고 오늘은 또 어버이수령님 앞에까지 내세워주었으니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었으랴!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강령적가르치심을 받은 영광의 그날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억년 드물지 않을 억센 신념의 기둥이 뿌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던 변함없는 자세와 드팀없는 신념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리라.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 대홍단농사법을 따라배우는데서 앞장서 나가리라!...

전화종소리에 장영남의 이야기는 끊어졌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안해를 애무하듯 살뜰한 어조로 전화를 받고있었다.

《..오, 식사 한끼 대접 못해 미안하다?... 당신 소원이 정 그렇다면 래일 저녁엔 시간을 좀 내보지요. ... 음... 음... 기다리오.》수화기를 놓고난 장영남이 정색한 낮빛으로 말했다.

《덕운동무, 로친네가 청을 드리누만. 래일 저녁엔 시간을 좀 낼수 없겠는가구... 우리 일에 지장이 안 가는 한 잠깐만 들려달라는 청이야.》

나는 쾌히 찬성했다. 아무래도이삼일 묵으며 이곳의 감자재배기술과 경험을 배워가야 할텐데 지

역시간쯤 못 낼텐가.

《그래주게. 로친네 간청일세. 내가 나이채세를 하며 선군시대 일군답게 일을 하지 못할가봐 로친이 맡놓지 못한다네. 장군님 바라시는대로 채종을 잘해야 한다구. 군마다에 좋은 종자를 제때에 보내주는데서 한몫 해야 한다구 제편에서 더 걱정이라네.》

나는 옛 작업반장의 진중한 눈길에 담긴 말없는 결의를 읽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셨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한생을 마치리라는 불타는 결의를...

## 만아들

### 조일형

농장일에 바쁘신 부모님들이  
때로 늦어 들어오실 때면  
해지도록 뛰놀던 동생들 찾아  
집안일 돌보며 부모구실 해야 했던  
나는 한 집안의 만아들이었다

동생들 저지른 잘못도  
때로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말없이 부모님들 일손을 도와주는  
이 만이가 기록하신듯  
어머니는 새옷을 사도 내 옷부터 고르시고  
갓 물오른 터밭의 빨간 딸기도  
내 입에 먼저 넣어주던  
나는 어머니의 사랑받는 만아들이었다

그 사랑이 고마워 숙제공부 미루고  
부모님들 입맛을 돌구어주려  
고기잡이로 해지우던 그날  
그 착한 마음 아시고도 회초리 드시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엄하게 가르쳐주던  
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속에  
크며 자란 나는 만아들이었다

부모님들 그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다 받아안고  
정다운 고향떠나 초소로 가던 그날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려  
손저어 바래주며 하시던 당부  
내 한시도 잊지 않았거니

하기에 안변의 물길굴 열어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되어  
내 이 땅우에 락원의 행군길 열어놓고  
앞가슴에 훈장 번쩍이며 돌아온 그날  
나는 정녕  
한 가정의 만아들로 안기지 않았거니

배천집 만이라 불리우던 내가  
오늘은 또  
수령님존함 모신 종합대학 학생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고향의 자랑이라고  
목마 태워주시던 리당비서아저씨  
그 어깨우에서 밝게 웃던 이 아들은  
정녕 한 집안의 만아들이 아니었다

아 우리 장군님 품속에서  
나는 한 집안의 만아들 아닌  
온 마을이 떠받들고  
온 나라가 떠받드는  
나라의 만아들이 되었거니

내 나라의 만아들로 키워준  
그 품을 위함이라면  
천길땅속도 물속도  
심산계곡도 험한 령길도  
두렵없이 뚫고헤치리라  
아 살아도 죽어도  
그 부름으로 빛내일  
복받은 내 삶이어

# 34일



김룡수

여든살이 불원한 한생의 대부분을 해외의 습한 대기속에서 보내왔고 이름난 재벌총수는 못되어도 그런대로 성가한 기업가로 불리우는 문병빈에게 요즘 고향생각이 때없이 떠오르곤 하는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감때문이었던가. ...

지난 밤에는 종내 심장이 멎는줄로만 알았다. 생시도 아니고 꿈속도 아닌 반수반성의 상태에서 숨을 들이칠수도 내어칠수도 없었고 옆의 누구를 부를수도 움직일수도 없었다.

도무지 뜰수 없는 눈의 망막속에서 무정형의 별찌들이 너울거리고 순간순간이 천년처럼 지나갔다.

뇌리속에 얼핏 스쳐지나간것은 서산대사가 지리산에서 읊었다는 《눈에 그득찬것 오직 고향뿐 일러라》 하는 시구절이었다. 그 시 한줄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가 .

그때 허덕이고있는 그의 몸을 움직여주고 가슴속으로 가는 숨결이나마 흘러들게 해주었기 바로 한밤중에 울린 전화종소리였다.

저도 모를 힘으로 일어나앉은 그는 후— 하고 긴숨을 내뿜으며 계속 신호를 울리고있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저 전화종소리가 어떻게 그를 되살아나게 해주었을까.

《문명세계》라고 자처하는 이곳에서는 너무도 잦게 귀를 자극하여 정신적압박의 한 요소라고까지 하는 전화종소리. 그 소리가 그의 꺼져가던 정신과육체를 각성시켜주었다는것이 놀라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화기에 손을 내밀어 송수화기를 들고 수화구에서 울려나오는 첫 말마디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전화종소리가 어찌하여 자기를 죽음의 질식속에서 끄집어내주었는지를 깨달았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양입니다.》  
《?!...》

아, 바로 이것이였구나. 언제부터인가 《죽기 전에 고향에 다녀와야 한다!》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못박히고 평양에 문의해줄것을 청탁한 때로부터 그는 줄곧 이 전화를 기다려왔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있을 때에조차 의식속의 그 갈망이 전화종소리에 눈을 번쩍 떴고 그가 일어나 앉을수 있게 해주었던것이라. 그 말소리는 문병빈에게 언제나 저주해오던 한줄만 쥐여짜도 물이 똑똑 떨어질것만 같은 방안의 습한 공기를 열배, 스무배로 느끼게 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창문을 열어제꼈다.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몰려들어왔다. 보슬비가 방 안에서 내비치는 불빛을 파르스름한 빛으로 반사하며 내리고있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고 전화기에서 울려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전화기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맑고 가슴을 대번에 서늘하게 해주었다. 아, 그곳의 대기는 여기와는 판판이지. 무수한 푸른 메부리들이 흰구름에 싸여있는 그곳...

《평양 해외동포사업국 부원 김명진입니다. 문병빈 선생이지요?》

아득한 옛시절에 들던 말소리... 그리도 발음이 시원시원한, 분명히 조국에서 사는 사람의 말씨였다.

《예... 예, 제가... 문병빈이올시다.》

깊은 숨을 들이키고나서야 그는 가까스로 대답할수 있었다.

《고향의 너동생에 대해 문의하셨지요?》

《예. ...》 가슴이 바짝 조여들었다.

《선생님이 찾고계시는 동생되는 할머니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정말입니까?》

《예, 개성시 판문군 령정리 옛 나루터마을에 계시며 아주 건강하십니다. 제 말이 들립니까, 선생님?》

병빈은 자기의 온몸이 센 전류에 닿은듯 세차게 떨리고있음을 느꼈다.

《예, 예.》하고 그는 무슨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후두둑 쏟아져내렸다.

.. 그가 고향을 떠난것은 열세살때였다. 60년도 더 흘러간 아득한 옛시절, 인생의 여러 굽이굽이가 긴 장마구름보다 더 짙은 망각의 이끼로 덮여 아스라해졌던 고향을 떠나던 그 시각만은 어제런듯 눈에 삼삼하고 귀에 쟁쟁했다.

배전을 치던 그날의 물소리와 바람소리...

《오빠야!— 같이 가자!—》

두팔을 벌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던 어린 너동생, 그가 탄 배를 쫓아오려고 첨뿔첨뿔 물에 들어서다가는 사람들에게 잡혀 도로 끌려나가며 더 목놓아 울고 부르며 찾던 피타는 목소리...

《오빠야!—》

아, 그날의 령정나루는 철썩거리는 물결이 아니라 어린 너동생의 눈물로 젖었다. 기우뚱거리는 배전에서 주먹으로 눈물을 씻던 그에게는 자기가 탄 배가 아니라 나루터가 어린 너동생의 동동 구르는 발에 마구 흔들리는것만 같이 보였다.

《오빠야!—》

《징용》에 끌려가 소식없는 아버지를 서울에서 보았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서울에 간 후 역시 소식없는 어머니를 찾아 떠나던 그 배길.

《열밤만 기다려. 열밤만 지나면 내 엄마와 함께 맛있는거 많이 사가지고 올게. 응...》

열백번을 열리고 달래고 하여서야 겨우 너동생을 떼어놓고 떠났던 그 길이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떠가는 배전에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오빠를 찾고 부르는 가냘픈 모습을 눈물속에 보며 그는 열흘후에는 꼭 돌아오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동생은 그 리별이 영리별로 될것을 예감이라도 한듯 몸부림쳐 울고 울었다.

열흘만 기다려다오, 동생아! 열흘동안만...

그러나 그 열흘이 한달로 되고 한달이 또 한해로 되고 한해가 10년, 20년... 60여년으로 될줄을 어찌 알았으랴.

너동생의 응어리진 가슴을 웃음으로 풀리게 할 수 있을 때에, 고향사람들이 경탄할만 하게 되었을 때에야 돌아가리라. 다음해에는, 다음해에는... 하던것이 문득 자기 나이를 깨닫고 너동생 역시로파로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죽기 전에 고향으로 가보리라》에 이르렀다. 그때야 문득 너동생이 아직 살아있거나 할가, 가련한 전쟁이 휩쓴 땅, 지금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류레없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다는 땅...

아, 눈물에 젖은 동생의 목소리가 매일, 매 시각 가슴을 허비던 60여년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너동생이 살아있다고 한다. 너동생이!...

이제 만나면 늦기는 했지만 밤새껏 마주앉아 쌓이고쌓인 회포를 풀고 또 풀리라. ...

자기가 어떻게 비행기에 올랐으며 대양의 번덕스런 기류속에서 흔들리는 비행기의 진동을 어떻게 심장이 이겨낼수 있었는지 그는 알수 없었다. 현실로 믿어지지 않았고 때때로 찾아들던 고향으로 가는 꿈의 련속처럼 느껴졌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뜰 때마다 스며들던 (아, 꿈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가슴을 더 저리게 할것만 같았다.

평양에 도착하니 마중나온 김명진이 동생되는 할머니가 지금 군대에 나가는 손녀때문에 딸네 집에 갇으니 한 이삼일 기다렸다가 고향으로 가는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으나 그는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고향땅을 밟고싶다고 귀향길을 재촉했었다.

그향집문에 들어서고 너동생을 열싸안기 전에는 꿈이 아닌 현실임을 믿을수 없을것만 같았다.

사실 병빈은 비행기에서 내려 평양의 거리에 들어섰을 때부터 놀라움과 의혹에서 벗어날수 없었고 때로는 자기가 일종의 환각속에 있는듯 한느낌에 빠져있었다. 서방세계의 선전과는 너무도 다른 평양의 거리였다. 웅장화려하면서도 너무도 깨끗한 거리였다.

병빈은 대도시의 거리라면 각종 간판과 광고의 범람, 별의별 해피한 옷차림들의 홍수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평양의 거리들은 너무도 깨끗했고 질서정연했다. 길 좌우에서 설레는 가로수들 뒤로 보이는 고층살림집 창문들... 그리고병빈을 가장 놀라게 한것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활기에 넘쳐 힘있게 걷는 사람들, 그들의 밝은 얼굴... 그것은 정녕 병빈이 지금껏 들어온 고난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였다.

활기에 넘쳐있는 사람들, 활력에 넘쳐있는 거리...

개성으로 가는 길에서도 환각이 아닌가 하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끝간데없이 끝없는 뻗어간 도로의 량옆에 아득히 펼쳐진 드넓은 논과 밭들, 지도에서는 이곳이 구룡성평원이였다고 병빈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데 구룡이나 언덕들은 멀리 지평선으로 밀려갔다.

《이 길이 개성으로 가는 길이 옳습니까?》

병빈의 이 물음에 김명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옛적표상으로 는 알아보기 어려울겁니다. 전에는 언덕과 비탈, 폐기논밭들이었으니까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에 따라 토지정리를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지정리라구요?!...》

병빈은 아연해진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기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토지정리라기보다 땅의 모양을 완전히 변모시킨,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하는 천지개벽이 아닌가. 그렇다, 천지개벽이다.

무슨 힘이 이런 천지개벽을 가져오게 했을까? 고난을 겪어왔다는 이 땅에서... 병빈은 자기가 그냥 꿈속에 빠져있는듯싶었다. 내가 정녕지금 내 나라 땅으로 돌아와 귀향길을 달리고있는것이 꿈이 아니라 말인가. 더우기 김명진이 선군8경의 하나라고 하며 가리켜보이는 농촌마을 범안리의 풍경은 꿈에서나 볼수 있음직한 선경이었다. 평양에서 개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억속에 있던 풍경, 그가 상상으로 그려보았던 풍경은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것이 령정마을입니다.》

병빈은 본능적으로 달려나갈듯 앞으로 몸을 볼썽 내밀었다.

《?!》

저것이 정녕 내 고향령정마을이란 말인가. 울창 줄창한 논밭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언덕과 구릉을 멀리로 밀어내며 아득히 펼쳐진 논밭들... 마치 그림속에서 끄집어내놓은듯 한 아담한 마을, 산은 있어도 뿔나무가 없어 부검지 태우는 연기에 휩싸이군 하던 눈물의 그 초가마을은 어디로 갔는가. 아니, 저것이 령정마을일수 없다. ...

허나 변함없이 출렁거리는 령정나루의 물결이며 술발이 들어왔은 봉수산은 이곳이 령정마을임을 말해주고있었다.

아, 내가 진정 고향마을에 왔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리도 낯설게 느껴지고 서먹서먹하게 생각되지만 하는것일가.

《차를 좀 세워주십시오.》

마을입구에서 병빈은 운전사에게 부탁했다. 그처럼 사무치게 그리던 고향땅에 흙을 밟지 않고 차에 올라앉아 들어선다는것이 외람된것으로 느껴졌다.

부근부근하게 느껴지는 고향길의 감각과 령정나루의 물냄새와 부검지 타는 내내가 섞인 고향의 흙냄새를 그가 얼마나 그리워하였던가.

병빈은 차에서 내려섰다. 그러나 그는 부근부근한 흙의 감촉도, 부검지 타는 내내도 느낄수 없었다. 발밑은 넓지는 않으나 일매지게 마을로 뻗어 들어간 탄탄한 포장도로였고 대기는 내내가 느껴지지 않는 샘물처럼 맑은것이였다. 령정나루의 물소리와 물냄새만은 여전했다.

마을전경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은 흘러간 동심의 소박한 꿈이 어렸던 봉수산 술발중턱에서 멎었다.

거기에는 굵직굵직한 글발이 술발우로 줄지어 솟아올라있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래일을 위한 오늘이라?!...)

이 말 역시 병빈에게는 이 땅에 와서 본 모든 것처럼 낯설고 생소한것이였다. 인간은 어차피 오늘에 살기마련이다. 오늘날만 생각하라, 순간을 향락하라, 잠깐 왔다가는것이 인생이거니... 하는 말들을 귀가 아프게 들어왔고 또 거기에 습관된 병빈이였다. 이렇게 먼길을 돌아 고향으로 찾아온것도 오늘을 미련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다른 행성이라도 온듯 생소하였다. ...

옛 추억이 스민 령정나루터로부터 이마가 찡하도록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그의 옷섶이며 귀뿌리머를 끝없이 스치면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란듯이 웅웅거렸다.

래일, 병빈이 이제껏 살아온 세계에서도 래일이라는 말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밤 자고나면 닥쳐오는 시간적개념에 불과할뿐이였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래일은 단순한 시간적개념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것같이 느껴진다. 그것이 무엇일가. 딱히 알수는 없으나 이들이 말하는 래일이라는 말은 들끓는 동적인 어떤것으로 충만되어있는듯했다.

그것이 무엇일가 병빈은 자신이 이 땅의 《...래일을 위한 오늘...》과는 너무도 먼거리에 있는 존재임을 감각으로 느꼈다.

《선생님, 저 집이 동생네 집입니다.》

이미 한번 와보았던듯 한 김명진의 말에 병빈은 가슴에 세찬 충격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문화주택들과 다름이 없는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였다.

병빈은 주인을 찾으려는 김명진을 제지시키고 제면저 문앞으로 다가섰다. 손을 올렸으나 섣뜻 두드릴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그려본 이 순간이었던가. 그런데 어찌된셈인지 그리도 생생하게 떠오르던 유년시절 동생의 모습이 갑자기 삭막해지며 이제 만나게 되어도 누구의 소개가 없이는 서로 알아볼수 없을것만 같은 두려움이 불썽 솟아올랐다.

《누구신지요?》 하는 물음과 맞닿들릴것만 같았다. 하긴 딸네 집에 갔다니 있을리 만무하다고 생각되긴 했지만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쿵쿵거리 그는 어느사이에 자기가 문을 두드렸는지 깨닫지 못했다.

예상했던대로 동생이 아니라 중년의 부부가 문을 열어주었다.

병빈은 당황하여 김명진을 돌아보았다. 김명진이 부부에게 말했다.

《문병민선생입니다.》

《에?!... 그러니...》

하던 중년사나이는 다급히 병빈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큰아버님, 제가 조카입니다. 저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너인도 그를 따라 절을 했다. 절을 하고난 조카가 일어서며 병빈에게 말했다.

《저, 어머니는 누이네 집에 갔습니다. 손녀가 인민군대에 나간다가에 바래워주려구요.》

눈이 동실한 조카며느리가 남편의 말에 인차 꼬리를 달아 병빈을 위로하려고 했다.

《큰아버님이 온다는 연락을 평양에서 받은 즉시 전보를 쳤으니까 오늘 저녁이나 래일 아침이면 올거예요. 꼭 옵니다.》

병빈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임자들이 내 조카, 조카며느리로구만. 반갑네.》

어린시절의 모습만 생생한 너동생을 찾아와 중년나이에 이른 조카를 만나게 되니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피곤하시겠는데...》

병빈은 조카의 손에 이끌려 방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부지중 《딸없는 사위, 불꺼진 화로》라는 말이 머리속에 떠오름을 느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조카머느리가 차려주는 점심상앞에 마주앉았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으나 토색의 향기질은 고수며 토란이며 눈물나오도록 매운 고추를 60여년만에 다시 맛보면서야 그는 자기가 꿈아닌 현실로 고향에 왔음을 절감했다.

김명진도 개성의 토란이나 고수의 특유한 맛을 매우 좋아했다. ...

식사가 끝나자 조카와 조카머느리는 먼길을 오느라 피곤할텐데 폭 쉬라고 권고했다. 하도 권고가 곡진하여 머리를 끄덕였더니 그들은 자리를 펴주고는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알고보니 그들은 이제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군의 도움으로 일떠세우는 발전소건설장에 지원하러 간단다.

(농사군이 발전소건설장에 간다구!...)

방안에서 듣느라니 밖에서도 먼길을 온 손님이 있다던데 그만두라고 하는 소리와 손님은 쉬고있으니 팬찮다는 대답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조용해졌다.

(그만두라는데도 가는걸 보니 가고싶어 가는것이 분명한데?... 이상하군. 농사군이 발전소건설장과 무슨 관계가 있노?)

잠시후 병빈은 밖으로 나왔다. 조용했다. 어느 집이나 모두 조용했다. 모두들 조카나 조카머느리처럼 일터로 바빠 나간것이라.

병빈은 스택스적 걸음을 옮겼다. 이집저집에서 이따금 울려오는 개짖는 소리, 꼬댁거리는 닭이나 꿩소리, 돼지소리가 아니라면 농촌마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마을이었다.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는 자기가 나타나면 온 마을이 자기의 소문을 듣고 모여올것이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 감탄과 놀라움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조카나 조카머느리조차도 그의 기업이나 재산같은것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도 나타내지 않았다.

불현듯 쓸쓸함과 고독감이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소외돼버린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 애는 언제나 오려나...)

부질없는 기대인줄 알면서도 너동생이 나타나지 않으려나 하고 동구밖으로 그냥 걸음을 옮겼다.

(손녀가 군대에 나간다고 기차를 타고가야 하는 먼길을 가다니?)

마치 너동생이 그와의 상봉을 피하거나 늦추려고 길을 떠난듯 한 선입감이 마음에 그늘을 씌웠다.

옛날 같이 가겠다고 그토록 애원하는데도 때여놓고 가버린 무정함에 대한 노여움이 불쑥 머리를 쳐든것이나 아닐가. ... 그는 자기의 엉터리없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었다. 늙으면 이렇게 비뚤

어진 생각만 드는가. 병빈은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쯤 소식을 받고 숨가쁘게 달려오고있으리라. ...

철썩, 처절썩— 발치에서 울리는 물결소리에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령정나루터에 나왔음을 깨달았다.

(아, 령정나루!)

그는 마르고 탄 침을 삼키며 멀리 엄마를 찾아 떠나던 곳에 석상처럼 서있었다.

오빠가 달래며 쥐여준 옥돌 《강아지》를 쥔뿌리며 목놓아울던 동생의 토스레적삼을 입은 앙상한 어깨며 몽당치마밑에서 땅이 꺼질듯 굴러대던 가냘픈 종아리가 떠올랐다.

아, 그때 동생의 눈에는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이 어려있었던가!

유년의 슬픔은 어른의 슬픔보다 몇갑절 더 큰 것이다.

그때 정말 저 바다도 함께 울었다. 마치 장장 반세기를 넘어 갈라지게 될것을 《계시》라도 받은것처럼...

이제 만나면 동생은 나를 뭐라고 원망할까?...

병빈이 집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왼쪽에 보이는 산자드락에서 웬 아이가 열심히 땅을 파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 애가 무엇을 파는것일까?)

그 애는 병빈이 고향을 떠날 때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다. 옛시절의 자기 모습을 보는듯 하여 병빈은 그 애에게로 다가갔다.

불현듯 그에게는 얼마전 자기가 살고있는 나라의 어느 한 신문에서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쓴 글을 보았던것이 생각났다. ...

(저런 산자드락에 쥔뿌리같은게 있을리 없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애는 땅속에서 빼죽이 나온 쇠불이를 파내느라고 씨근거리고있었다.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씨근덕거리며 삽질을 해대고있었다. 병빈은 잠시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애야, 그 쇠불이는 왜 파내느냐?》

소년은 삽질을 멈추고 머리를 들었으나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듯 쳐다보기만 했다.

병빈은 일순 자기가 입에 붙어버린 외국말로 묻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느꼈다. 그리하여 다시 말을 한마디한마디 떼어가며 물었다.

《그 쇠불이는 왜 파내느냐?》

그러자 소년의 입에서는 대답대신 반문이 튀어나와 병빈을 어리둥절해지게 했다.

《파내지 않으면 내버려두겠어요, 할아버지랍니다?》

《나? 나말이나? 나라면 음—》

하던 병빈은 다시 물었다.

《그걸 파내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다니요? 수매소에 가져가지요 뭐.》

《수매소?!》

아, 병빈은 그제야 깨도가 되는듯 했다.

(이 애에겐 제 돈벌이공장이 있는게로군.)

어려운 생활은 아이들을 빨리 철들게 하는 법이다.

내가 왜 이제껏 돌아본 나라들에서 본 아이들에 대하여 잊었던가. 한푼두푼 모으는데서 기쁨을 찾던 《어린 실업가》들을… 땀흘리며 땅을 파는 소년에 대한 동정을 금할수없었다.

《그래 그걸 수매소에 팔면 얼마나 받느냐?》

《네—에?》

그 애는 그만에야 하던 일을 멈추고 병빈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병빈의 얼굴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급기야 눈을 깜박거렸다. 의혹과 놀라움이 호기심으로 변하여 불꽃처럼 반짝거렸다.

《저— 할아버지는 어디 먼 나라에서 오셨나요?》

《그래. 먼 나라에서 왔다.》

하고 병빈은 말했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아봤니?》

공연히 물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농촌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보고 알았으리라. 그러나 소년의 대답은 그의 예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파철을 팔면 돈을 얼마나 받는가고 묻는걸 보고… 알지요 뭐.》

《음— 그래, 그럼 그저 가져간단 말이나?》

소년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병빈은 그것이 늙은이의 무식에 대한 한탄임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왜 그저 가져가겠어요? 이제 수매소에 갔다가 공장에 가면 프락포르나 자동차, 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놈들을 잡을 땅크나 대포도 되구요. 그리고… 참, 할아버진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왔지요, 큰 배를?… 그런 배도 만들수 있단 말이에요.》

소년은 마치 자기가 파내는 쇠불이가 수천수만 톤이라도 되는것으로 생각하는듯 했다.

병빈은 그 애의 말보다 끝없이 펼쳐져나가는 상상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흥겨워지고있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재미있는 소년인가. 이런 아이들을 두고 수재형이라고하는것인지도 모른다.

《난 배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왔다.》

하고 말한 병빈은 아차하고 혀를 깨물었다. 배면 어떻게 비행기면 어떻단 말인가. 모처럼 시작된 소년과의 대화를 비행기가 끊어버릴것만 같았다.

그러나 소년은 비행기를 타고왔다는 말에 더 성수가 나서 말했다.

《비행기도 만들수 있지요 뭐. 그리고 로케트까지도…》

《허, 그러니 이 쇠불이가 옛말에 나오는 화수분 같은거로구나.》

소년의 눈이 영채를 띠고 반짝거렸다.

《나도 그런 보물에 대한 옛말을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진 우리가 왜 이 파철을 파내는지 잘 아시는구만요.》

《허허.》

병빈은 흥겨운 기분으로 처음에 꺼냈던 대화를 다시 끄집어냈다. 대답을 꼭 듣고싶었던것이다.

《이 쇠불이에서 별의별것이 다 나온다고 하자. 그런데 그 프락포르와 비행기가 네것이야 아니지 않느냐?》

《예—에?》

소년의 눈에서는 령통하게 반짝이던 영채가 꺼지고 그대신 처음에 보았던 의혹과 불신의 빛이 어둡게 피어올랐다.

《?!…》

병빈은 소년과의 사이에 이어져가던 대화의 선이 툭 끊어져버렸음을 깨달았다. 마치 흥에 겨워 달려가다가 굳은 담벽에 부딪친듯 한 심정이었다. 아니, 그 느낌은 소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낀듯 했다.

그 애의 시선은 병빈의 얼굴에서 옆으로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내려갔고 다시 sap을 쥐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쇠불이에 부딪치는 삽소리, 씨근대는 숨소리, 뭐라고 투덜대는 웅얼거림… 그 애는 머리를 애당초 쳐들지 않았다. 왜 화기에애하게 진행되는 어린 친구와의 《담화》가 이런 불신임의 두려운 장벽에 부딪쳤는지 병빈은 알수 없었다. 무엇이 순간에 소년을 그에게서 천리만리 멀어지게 하였는가. …

《야, 이제야 오니?》

하는 소년의 거의 환성에 가까운 목소리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같은뜨래의 두 소년이 손수레를 끌고 다가오고있었다.

소년은 분명 병빈이와 둘이만 있는 분위기가 깨어진것을 기뻐하고있었다.

《아직두 채 못 파냈구나.》

두 소년이 들여다보고 다했다.

《조금만 더 파면 돼!》

《삽을 이리 내. 내가 제격 팔게!》

그들은 서로 삽을 빼앗아가며 쇠불이를 파냈다.

쇠굴뚝같은것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 대포 아니가?》

《응! 박격포야, 박격포!》

《미국놈들박격포구나!》

《이것 봐, 포신이 우리 마을을 겨누고있어.》

사실 그것은 미국제박격포였다. 녹슨 포신에 《USA》라는 영어글자가 뚜렷이 보였다.

《정말 우리 마을을 겨누고있구나.》

《그놈들을 그저— 예익!》

병빈은 반세기전 이 땅을 휩쓸었을 전쟁을 부지중 상상했다.

마을을 겨누채 땅에 묻혀버린 미군의 박격포, 저 포가 반세기전의 그날에 바로 녀동생을 겨누고있었다. 그러나 그 포는 녀동생을 죽이지 못했다. 도리어 흙속에 묻혀버렸다.

《자, 빨리 실자!》

세 아이들은 공공거리며 그것을 손수레에 실었다.

세 아이는 손수레를 끌고 밀고 하며 떠났다.

병빈이와 닳을 익힌 소년이 문득 생각난듯 돌아섰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손수레를 밀고가며 세아가 주고받는 말소리  
가 들렸다.

《누구가?》

《몰라, 그저 만났어.》

《그래?》

병빈이와 말을 주고받았던 소년이 제 동무들에  
게 이마에 손가락을 대고 흔들어보이는것이 보였  
다. 《정신이 좀 잘못된것 같애.》 하는 표현이었  
다.

병빈은 잠시 망연히 서있었다. 어떻게 되어 저  
애의 눈에 자기가 《정신이 잘못된 늙은이》로 보  
였을가.

령정나루의 물결에서 반사된 해빛이 눈을 아프  
게 했다. 그는 자기와 이곳에 살고있는 사람들간  
에 얼마나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있는가를 어린  
소년의 모습에서 보는듯 했다. 그것은 그가 평양  
에 도착해서부터 느끼게 된 놀라움과 의혹, 이 땅  
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는 너무도 다르다는 느낌  
에 대한 재확인파도 같았다. 이제 동생과 만나서  
도 이런 심연을 느끼게 되지 않을가. 그것이 병빈  
은 두려웠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병빈은 그  
자리를 떠났다. 멀리 바라보이는 서해의 물결우에  
서는 황혼전야의 석양이 비껴 부드러운 빛을 반  
사하며 고요히 설레이고있었고 봉수산중턱의 솔  
밭에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글발이 석양빛으로 물들  
어가고있었다. ...

동생의 집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앞으로  
쫓살같이 달려오는 아가의 그 소년을 보았다.

《큰할아버지!》

(영?! 저 애가 동생의 손자였는가?... 나에게는  
손자이고...)

《큰할아버지, 아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하고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발끝으로 땅을  
호비작거렸다.

나이는 열세살, 이름은 진철이란다.

혈육의 정이란 이상한것이였다.

진철이가 손을 잡는 순간 병빈은 온몸으로 따  
뜻한 흐름이 전류처럼 흘러퍼짐을 느꼈다.

진철은 활발하고 영민한 아이였다. 병빈이 무엇  
을 알고싶어하는지를 제격 알아차리고 제단으로  
잘 설명해주느라 애쓰는것이 험동하여 병빈의 가  
슴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너동생이 없는데서부터 오는 허전함이 저으기  
떨어지는듯 했다.

너동생은 밤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소식을  
받지 못했을가. 받고도 인차 돌아오지 않는것  
이나 아닐가.

병빈은 오래동안 뒤척거리다 밤이 깊어서야 겨  
우 잠들었다.

꿈에서 그는 너동생을 만났다. 너동생이 어린시  
절의 모습이었던지 늙은 너인의 모습이었던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주고받은 말들만 기억에 남았  
다.

《동생아, 넌 내가 왔다는 소식을 못 받았느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거냐?》

《난 오빠와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뭘라구?》

《오빠 어린시절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애원하는  
나를 버리고 갔댔지요.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  
지 알아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울었어요.  
다음날부턴 나루가에 나가서 오빠가 날 데리러  
다시 오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오빠 오지 않았어  
요.》

열흘이 아니라 한달, 열달이 지나도록 안 왔어  
요. 영영 안 왔어요. 난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  
어요. 나에겐 오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  
터 난 혼자서 살아왔어요. 이제 한생을 다 살았어  
요. 그런데 한생을 다 산 이제 와서 오빠를 만나  
서 뭘 하겠어요? 오빠는 지금 큰 공장들을 거느  
린 자본가가 되었다지요. 그런데 왜 그새 날 찾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난 오빠를 만나러 안  
가겠어요.》

《애야, 동생아!—》

더는 대답없는 동생을 부르다가 병빈은 깨여났  
다.

창박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꿈이란 참으로 허황한것이였다.

잠에서 깨어나 꿈생각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  
척하다가 일어나왔을 그에게 조카며느리가 새벽  
에 날아온 전보를 두손으로 받쳐드리는데 전보에  
는 동생이 소식을 받고 지난 밤에 즉시 떠났다는  
소식이 적혀있었던것이다.

《아침에는 틀림없이 도착할것임. 큰아버님에게  
인사를 전해주기를 바람.》라고 써여있는 전보내  
용을 두번째로 읽는 병빈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  
소가 피여났다.

(그럼 그럴테지. 아무렴!)

그는 심신이 가벼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이른아침의 맑고 차거운 공기가 폐부로 흘러들  
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얼마나 좋은가. 그가  
살아온 나라의 습기차고 끈적끈적한 대기와는 질  
적으로 달랐다.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어느 사이에 일  
어났는지 진철이가 따라나섰다.

《큰할아버지, 나랑 같이 가자요.》

《오, 어서 그래라.》

얼마간 따라오던 진철이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큰할아버지, 큰할아버지가 사는 나라는 여기서  
머나요?》

《멀지, 멀어두 아주 멀단다.》

거리로 치면 수만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그  
거리는 그가 이 땅에 와서 보고 듣고 만나는 모  
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이 아득해보이는 거리, 심연  
파도 같은 거리는 어디에서 기인되는것일가. 그것  
은 과연 무엇일가.

《참 진철아, 내 한가지 묻자.》

병빈은 진철의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다.  
《너희 할머니가 이 큰할아버지를 자주 원망하  
더냐?》

《원망이요?... 왜요?》

《이 큰할아버지는 너무나 나이에 훨씬 더 어린  
아였던 네 할머니를 때놓고 떠났었다. 같이 가자  
고,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매달리는걸 말이다. 그  
런 말을 안하더냐?》

진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나 곧  
외로 저었다.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때 할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지 못한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붙잡지 못한걸?》

《예, 자기가 조금만 더 컸어도 큰할아버지를 못  
떠나게 했을거라고 했어요.》 《그래?》

하기는 생리별의 아픔은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로  
지인것이다. 같이 떠났거나 같이 남았거나 했더라  
면 60여년의 가슴아픈 리별은 없었으리라. ...

어제 멀리서 보았던 글발이 지금은 병빈의 옆  
마앞에 있었다.

병빈이 그글발들을 여겨보는것을 보고 진철이  
말했다.

《저 글발은 우리 장군님의 명언이예요. 큰할아  
버지가 사는 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하나요?》

병빈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머리짓을 했다.

《오늘과 래일이라는 말은 하지. 그러나그곳에선  
래일보다 오늘을 더 생각하지. 또 걱정하구. ... 그  
곳에선 오늘의 걱정만 하해도 아름답단다.》

《그—래요?》하던 진철이 어린애같이 않게 한숨  
을 내쉬며 하는 말에 병빈은 깜짝 놀랐다.

《정말 살아가기가 험치 않겠어요.》

《?!》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 어린것이 동정을 해  
준다 말인가. 살아가기가 험치 않겠다?!...

물론 험치는 않다. 어느 하루도 불안과 걱정,  
세금, 주식시세... 그런것들을 털어버릴 날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 생활이 아닌가.

《큰할아버지!》진철은 병빈의 두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젠 년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힘들게야 어떻  
게 살겠어요?... 큰할아버지, 내 말대로 할래요?  
그럼 그런 고생살인 아예 면할수 있어요.》

《저런?!...》병빈은 미상불 흥미가 동했다.

《어떻게 말이나?》

진철은 손을 뺄 내저으며 거침없이 말했다.

《거기에 있는걸 짝 내던지고 아예 여기 와서  
살면 되잖아요?》

《뭐?... 허허...》병빈은 웃고말았다.

《왜 웃어요? 할아버지...》 《허허. ...》진철은 그  
의 허구픈 웃음에 실망한듯 입을 다물더니 병빈  
의 손에서 살그머니 자기 손을 뽑았다.

《진철아.》

《예?... 아참, 좀 기다려요. 저기 밤나무집할아  
버지가 계세요.》하고 진철이 그의 손을 놓고 산  
자드락쪽으로 달려갔다.

(저 애가 또 나에게서 물러가버렸구나. 어제처  
럼...)

머리가 하얀, 모름지기 병빈이 자기와 동년배일  
듯싶은 늙은이가 무엇을 하는지 굵뜨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진철은 그에게로 달려가고있었다.

진철은 늙은이가 손에 들고있는 망태기같은것  
을 제가 빼앗아들었다.

(저건 뭘고? 새벽부터 풀뿌리라도 캐는건가?)

진철은 늙은이와 함께 얼마 떨어진 곳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한동안 무슨 일인가 했다. 일을 하  
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늙은이가 아래에 서  
있는 병빈을 내려다보았다. 아마 진철이 자기 큰  
할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 같았다.

병빈은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며 늙은이가 하는 일을 살펴본 병빈  
은 의아해졌다. 그는 어린 나무모를 심고있었다.  
여기저기에 구멍이들이 파져있고 구멍이들옆에  
나무모들이 놓여있었다. 진철이가 들어다준것은  
구멍이에 넣을 두엄이었다.

《나무를 심는가요?》

《예.》

《무슨 나무인가요?》

《밤나무지요.》

풀뿌리를 캐는것이 아니라 밤나무를 심고있었  
다.

진철이가 말했다.

《이 할아버진 작년부터 매일 여기 올라와 밤나  
무를 심어요. 다들 그만두라고 해도 그냥 심지요  
뭘.》

늙은이는 그런 말을 벌써 한두번이 아니게 들  
어온듯 진철의 말을 막으려 하지도 않고 느슨한  
미소를 짓고 심은 나무의 복만 돌겨주고있었다.

진철은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할아버지, 나 두  
엄 또 날라올래요.》하고 두엄무지대로 달려갔다.

밤나무집늙은이는 날직한 바위에 걸터앉더니  
병빈에게 여기에 와 앉으라는 말대신 손바닥으로  
바위를 쓸었다.

병빈은 그옆에 가앉으며 말했다.

《제 진철이 큰할아버지울시다. 집에 밤나무가  
많은가보지요?》

《아니지요. 내 밤나무를 좀심었더니 밤나무집  
할아버지란 이름이 붙었습네다그려.》

앉아서 둘러보니 퍼그나 넓은 면적에 어린 밤  
나무들이 심어져있었다. 수백그루도 넘어보였다.  
그러나 머리 흰 늙은이와 애 어린 밤나무와는 너  
무도 어울리지 않아보였다.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내 여기에 왔을 때가 열다섯살때였고 진철이  
큰할아버지가 모친을 찾아떠난 후 이래째 소식없  
다는 말을 들었으니 아마 댁과 동갑인듯 합니  
다.》

《아, 정말 동갑이오구려.》

《허허허.》두 늙은이는 껄껄 웃었다.

병빈은 그의 주름살깊은 얼굴과 흰 머리에서 어린 밤나무모듬들로 시선을 보내며 물었다.

《살림도 어려울텐데 왜 곡식을 한포기라도 심지 밤나무를 심으시는가요? 이 밤나무가 자라서 제구실을 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할텐데 이 밤나무덕이야 바이 볼수 없는게 아니겠소이까?》

《?》

느슨한 미소가 어렸던 늙은이의 눈에 미소대신의혹과 놀라움이 비졌다. 늙은이는 대답대신 어쩔어쩔 하고 기침소리를 내더니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어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병빈은 문득 어제 쇠뿔이를 파내던 진철에게서 생겨났던 담뱃같은것을 다시금 느꼈다. 밤나무집 늙은이와 자기 사이에 순식간에 생겨난 담뱃에 병빈은 당황하였다. 그것은 어제부터 그가 느껴온 심연의 계속이었다.

병빈은 늙은이가 금시 손을 툭툭 털며 일어나 버릴것 같은 위구를 느꼈다. 그러나 밤나무집 늙은이는 일어나지 않았고 담배를 다 태우고나서는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을뿐이었다. 그 한숨에 병빈은 가슴이 서늘해지는감을 느꼈다. 그 한숨이 다름아닌 병빈이 자기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뿔어나 오는것임이 너무도 명백했기때문이었다.

《...》

밤나무집 늙은이는 다시한번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진철이 큰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수다. 저쪽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있다고던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소? 객지에 가면 고생이겠는데... 거기야 객지에 비하겠소?...》

《?!》

병빈은 그의 매듭진 두손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두터운 손톱에 묻은 흙이 벌스레 거무스레해보였다. 잠시후에야 병빈은 그것이 흙이 아니라 두엄임을 깨달았다. 두손에 두엄을 묻힌 촌늙은이가 나를 두고 가슴아파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제 당대의 일만 생각하겠소? 여기 올라오면서 우리 장군님의 명언을 보았을텐데... 래일을 위한 오늘이란게 뭐겠소?》

병빈은 솔밭에 세워져있는 그 굴밭을 다시 보았고 부지중 진철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등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마 두 늙은이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호기심이 동한것이라... ..

《이 밤나무들 덕을 내가 못 보면 뭐라고? 우리 손주들이 그 덕을 볼게 아니요. 거기선 잘 모를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선 나라 지킬래기 바쁜 군대들도 다 나무를 심고 발전소를 건설하고있수다. 그집 조카와 조카며느리도 농사를 짓는 잠시간에도 발전소건설장으로 찾아가곤 하지요. 이 늙은게 그런 일은 못해도 이렇게 밤나무라도 몇그루 심으면 나라에 보탬이 되고 래일에 보탬이 되지 않겠소. 우리 장군님께서 쉽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시는것도 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래일을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저

마음뿐이지요. 우리 장군님과 영원히 뜻을 같이하자고 말은 하지만 이 늙은게 그 늙으신 뜻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소. ... 그러나 한가지만은 알지요. 래일이란 기다리면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하고 앞당겨와야 오는것이라는걸 말입니다. 댁의 손주 진철이도 그렇고 이 늙은것도 겨우 파철이나 몇키로 파내고 밤나무모나 몇그루 심고있지만 그게 다 래일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있지요.》

밤나무집 늙은이는 또 담배를 피워물고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병빈도 역시 잠자코 있었다.

두 늙은이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

문득 뒤에서 간신히 참고있을듯 한 녀인의 흐느낌소리가 들려 병빈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오라버님!》

진철의 손목을 잡고서서 울고있는 늙은 녀인, 너동생 병순이었다!

좁전에 도착한 동생은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있을수 없어 그의 산보길을 밝아온 모양이었다.

진철이 밝은 눈으로 인차 알아보고 데리고왔을 것이었다.

너동생은 가슴이 콕 메는듯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고있을뿐이었다.

병빈은 몸을 벌떡 일으켰다.

《병순아!》

병빈은 갈린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품에 안았다. 이제는 파파 늙어 옛시절 헤여질 때만큼 작게 느껴지는 너동생... 메말라보이는 늙은 얼굴에서도 눈물은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병빈은 동생을 으스러지게 그려안았다.

《동생아, 날 용서해라. 죄많은 나를 용서해다오.》

《아니, 아니예요!》

동생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흔들었다.

《용서는 제가 오라버님께 빌어야 해요. 제가 그때 오라버님이 기어이 떠나지 못하게 했더라면... 다... 제 잘못이지요.》

《?》

그러니 진철이 한 말은 사실이였다. 동생은 그를 붙잡지 못한 잘못을 빌고있었다. 왜? 무엇때문에?... ..

《난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야 <징용>에 끌려간 아버지는 잘못됐고 아버지를 찾아해매던 어머니 역시 왜놈들의 <위안부> 사냥에 걸려 잘못되였다는걸 알았어요. 그다음은 미국놈들이 들어왔어요. 난 오빠를 그냥 기다렸어요. 오빠를 따라가지 못한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고 미국놈들이 쫓겨간 때부터 전 오빠를 기어이 붙잡지 못한걸 후회했어요.》

그들은 둘이서만 앉아있었다. 밤나무집 늙은이는 진철이를 데리고 저만치에서 나무를 심고있었다.

늙은 오누이의 60여년동안의 해후를 방해하지 않으려는것이리라. ...

《그때부터 난 오빠를 붙잡지 못한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오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손녀애가 군대에 나가는걸 바래주고 돌아오면서 난 그 후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 올라오면서 진철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밤나무집아저씨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후회정도가 아니라 오빠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으로 막...》

병빈은 자기가 명청해지는감을 느꼈다.

《애야? 너 지금...》

그러자 너동생은 그의 두팔을 잡고 흔들었다. 눈물은 그냥 흐르고있었다.

《그때 제가 죽을 각오로 오빠를 붙잡았더라면 오빠가 떠났겠어요?》

병빈은 점점 무겁게 압박해오는 의혹으로 동생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오빠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됐겠어요? 오빠가 오늘처럼 된건 다 제 잘못이예요.》

《?!》

병빈은 저도 모르게 비칠거렸다. 오늘처럼 되었겠는가? 오늘처럼... 오늘처럼...

그러자 그는 문득 어제의 진철의 어린애답지않은 한숨과 밤나무집늙은이의 꺼지는듯 한 한숨의 의미가 깨달아졌고 너동생의 눈물과 후회의 의미가 깨달아졌다. 그것은 그에 대한 깊은 동정에서였다. 부모들이 결인이 되어 돌아온 자식에 대해 느끼는것과 같은 가슴아픈 동정이었던것이다.

《아!—》

그는 금시 쓰러지려는 몸을 바로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아무것이나 붙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금의환향이라고 생각했던 귀향길에서 어찌하여 자기가 동정을 받게 되는것인가.

불현듯 하나의 진실이 명청해진 그의 뇌리속으로 흘러들었다. 그에게는 오늘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해도 가지고 갈것은 빈손밖에 없다는것이며 (그것은 래일에도 마찬가지일것이다.) 너동생이나 진철이, 밤나무집늙은이에게는 래일로 가지고 갈 화수분같은것들인 쇠붙이, 어린 밤나무, 군복입은 손녀가 있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매 시각 늘어나고 또 늘어날것이다. 그렇게 보면 문병빈이 나는 참으로 비참한 가난뱅이가 아닌가. 래일에 가지고갈것이 있는 사람은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 아닐가. ...

《오라버님!》

너동생의 조용한 부름에 그는 눈을 떴다.

그러자 자기가 잡고있는것이 갓 심은 어린 밤나무모였음을 알아보았다. 그 자그마하고 애어린 밤나무모가 그를 쓰러지지 않게 해준것이였다.

저쪽에서는 밤나무집늙은이와 진철이가 그냥 밤나무를 심고있었다. 구덩이에 두엄을 쏟아넣고 어린 나무모를 들어세우고 흙덩이를 부스러뜨려 넣어주고...

그의 눈앞으로 다시금 평양에 도착해서부터 이제까지보고 들은 모든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떠올랐다. 그와 이 땅, 이 사람들사이의 심연은 래일에 대한 생각때문이었다. 그에게서 래일이란 하루 밤 자고나면 닥쳐오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였지만 이 땅, 이 사람들에게는 노동과 투쟁으로 가꾸고 꽃피우고 앞당겨오는 창조의 세계였다. 그들만이 가질수 있는 신비의 세계였다!

그가 직접 만나본것은 진철이와 밤나무집로인뿐이었다. 어린 소년과 80고령의 로인이 이리할진대 그가 만나보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울것인가! 그리고 이 땅의 래일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재부는 래일이 아닐가.

이 땅, 이 사람들의 류다른 모습은 바로 그 래일이 있기때문이었었던것이라고 병빈은 생각했다.

병빈의 눈에 어제부터 몇차례나 보아온 글발이 다시 안겨들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진철이와 밤나무집늙은이는 이미 글밭앞에서 밤나무를 심으며 나가고있었다.

병빈도 너동생에게 이끌려 밤나무집늙은이와 진철이가 나무를 심고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병빈은 어린 밤나무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 순간 온몸에 맑고 따뜻한 해빛이 비쳐들을 느끼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키우는 해빛이라고 병빈은 생각하였다. ...

×

이 이야기는 해외에 살고있는 기업가 문병빈선생이 몇해전에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 《래일에 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나라 신문에 발표한 글의 한부분이다.

## 유모아

## 나와 우리

한 모임에서 마야콥스끼가 자기가 새로 지은 시를 낭독하였다.

이때 단아태쪽에서 질문쪽지가 올라왔다.

《당신은 자기를 집단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시에서는 늘 〈나는〉, 〈나의〉, 〈나를〉 하고 개인에 대하여 강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마야콥스끼는 쪽지내용을 군중들에게 읽어준 후 대답하였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말할 때마다 〈우리〉, 〈우리의〉, 〈우리들〉 하는데 그럼 그가 집단주의자란 말입니까?》

## 리상적의 소설 《가래 멘 장님》에 대하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임진, 병자전쟁이후 평민계층의 사회적진출이 강화되면서 시가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창작에서도 평민출신의 작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것은 문학사학자들이 다같이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당시 일명 《전기수》라고 불리운 직업적인 객들에 의해 많은 소설들이 랑독되었고 랑반들의 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널리 창작된 사실은 소설창작에서도 평민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고있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평민소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가 하는것은 작가의 이름이 밝혀져있지 않기때문에 경향적으로만 논의되었을뿐 이렇다하게 과학적인 해명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17세기이후 새로운 경향성을 띠면서 나타난 작가불명의 소설들을 가리켜 인민성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인민적인 소설》이라고 했는가 하면 《구전설화에 기초한 소설》이라고 각이하게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작가의 이름이 명백히 밝혀진 리상적의 소설 《가래 멘 장님》은 비록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작품은 아니지만 평민소설의 창작경향과 구체적인 창작실태를 실지 작품을 놓고 깊이있게 연구분석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리상적(1804—1865,자는 헤길, 호는 우선)은 19세기 중엽에 역관으로 있던 평민출신의 문인으로서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한 진보적경향의 한자시와 산문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여 평민문단에서 자기의 뚜렷한 이름을 남기였다.

그가 창작한 소설 《가래 멘 장님》은 그의 개인문집인 《은송당집》 산문편에 실려있는데 작품에서는 힘이 장사인 한 장님이 젊은 유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든 자기를 과신하며 못된짓을 일삼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 동시에 특권적신분을 등대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랑반계급을 은근히 비판하고있다.

소설은 유공이라는 랑반이 젊었을 때 동료들과 함께 각지를 유람하던중 충청도의 어느 한 주막에 들려 저녁을 먹기 바쁘게 뒤뜰에 나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저마끔 자기들의 위세를 뽐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나이가 선살가람 되어보이는 한 장님이

방구석에서 신을 삼다가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는다. 이에 모욕을 느낀 유생들은 여차하면 못매를 안길 자세로 장님에게 다가들어 왜 웃는가고 따진다. 그러자 장님은 《보아하니 자네들은 부자집자식들인가 본데 그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나?》라고 하더니 자기의 오른팔굽을 방바닥에 세우고 누구든 자신이 있으면 굽혀보라고 한다.

젊은 유생들이 차례로 나서서 있는 힘껏 그 팔굽을 굽혀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힘이 진하여 제풀에 물러나고만다.

그러자 장님은 또 한번 큰소리로 웃더니 《내가 젊은이들의 버릇을 때주어야 하겠네.》 하고는 진값으로 술을 사오도록 한다. 어지간히 취기가 돌아 장님은 자기의 과거지사를 이야기한다.

그는 원래 충청도사람으로서 힘이 장사여서 하루에 열사람의 품삯을 받으며 품을 팔며 살고있다. 그런데 하루는 논밭에 침수된 물을 뽑기 위해밤에 제방을 파헤치다가 쉬고있었는데 지나가던 길손이 달빛에 번쩍이는 가래를 보고는 도적인가 하여 집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것이였다.

무심중 집을 헤쳐보니 그속에는 돈 백냥이 들어있었다. 뜻밖에 횡재를 한 그는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장가도 들었으며 얼마간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그후 돈이 떨어질 때면 그는 가래를 메고 나서면서 《가래야, 너와 내가 남의 집에서 품을 팔기 보다는 한번 밖에 나가면 향락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으나.》라고하면서 으스스한 곳에서 길손들을 기다렸다가는 가래를 휘둘러 강도질을 일삼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는 장사치를 우습게 보고 그의 보짐은 물론 옷까지 벗기려고 접어들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맞고 눈알이 뺨혀 장님신세가 되고말았다.

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유생들은 경솔했던 자기들의 처사를 깊이 뉘우치는 한편 그의 이름을 알고저 하였으나 장님은 빙그레 웃기만 할뿐 종시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불패 우연히 돈맛을 본 한 품팔이군이 불법무도한짓을 하다가 톡톡히 그 값을 치른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을 깊이 음미해보면 여기에는 참으로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무엇때문에 장님은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젊은 유생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그는 어찌하여 눈먼 장님이 되게 되였는가. 이렇게 문제점을 설정해놓고 불 때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한 기본지향은 세상이 오직 저희들을위해 생겨난것으로 알고 특권과 전횡을 일삼던 랑반계급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비판하려는데 있었으며 강권과 전횡으로 치부를 일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시대와 현실에 대한 평민계층의 계급적각성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평민소설의 창작적지향성이 지배계급내부에서의 모순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이상적인 봉건국가를 건설하자는 의도에서 창작된 량반문인들의 소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것을 형상으로 증명해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소설에서 강도질을 일삼던 눈먼 장님을 근로하는 계급의 출신으로 형상한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소설은 평민출신의 작가들이 시대와 현실을 대함에 있어서 량반계급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에 토대하여 인간문제도 탐구하고 사회적문제성도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하면서 소설창작을 진행하였다는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산적가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평민창작으로 보아지는 대다수의 소설들이 국문으로 창작된데 반하여 한문으로 창작되었는데 이것 역시 평민소설의 창작실태를 력사주의원칙에서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고할수 있다.

사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중세소설의 발전과정을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연구가들은 평

민소설을 국문소설로만 귀착시키고 한문소설은 량반문인들의 소설로 밀어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과 한문으로 창작된 《서대취전》이나 《원을 내쫓은 이야기》, 《옥포동기완록》 등은 그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분명 평민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밝혀져있지 않기때문에 평민소설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한문으로 창작된 리상적의 소설이 나짐으로써 평민소설에는 국문소설만이 아니라 한문소설도 있었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게 되었다.

기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기본으로 하여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를 꾸민것을 비롯하여 이 소설이 보여준 구성형식은 평민소설의 다양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리상적의 소설 《가래 멘 장님》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경향이 새로운 작가불명의 소설들을 그 창작계층을 밝혀서 보다 명백히 분석고찰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민계층의 소설창작실태를 실지 작품을 놓고 논의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의있는 소설유산이라고 할수 있다.

윤동일

## 이삭아

김성희

바람결도 저어 저어  
숨죽이고 기다리는듯  
실하게 자란 벼포기마다  
첫 이삭이  
올해의 첫 이삭이 팬다

제먼저 한드레벨에 선보이련듯  
승벽내기로 다투어 머리드는 이삭  
두손 가득 꺾어들었던 들꽃을  
꽃보라인양 논판우에 휘뿌리고  
가슴가득 벼포기를 그러안으니  
마치도 자식을 품어안는듯

기다렸다 이삭아  
젖떼기하듯 모판에서 너를 떠올릴 때도  
초소로 떠나는 만이와 함께  
포기포기 쓸어주고 굶어주며  
날섷넉까지 김을 매던 그 아침에도

이해따라 갈개는 보리장마에  
물고에 앉아 지새운 밤은 얼마더나  
비바람에 넘어질가봐

땀별에 잎이 델가봐  
비에 젖고 땀에 젖던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패는구나

한껏 머리드는 이삭이여  
이 땅을 안고사는 애국의 그 마음이  
꽃으로 피는거냐  
가슴 휘젓는 이삭의 설레임에  
한껏 취하는구나

취면 꺼질가  
자식을 안아키운 이 젖품에  
소중히 끌어안아 볼을 비비니  
혈분이같은 정에 몽클 가슴 적시는  
내 사랑 이삭아

아 바치는 내 진정 다 알고  
푸르른 하늘 향해 머리드는 이삭이여  
너는 땅과 함께 한생을 바치며 엮어  
조국에 삼가 드리는  
나의 꽃다발이 아닌가

## 살띠꼬브—셰드린과 그의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의 세계관은 그의 창작적개성을 조건짓는 기본요인이다. 작가는 자기의 사상관점에 기초하여 현실을 파악하며 거기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어 형상을 창조한다.》**

엠. 예. 살띠꼬브—셰드린(1826—1889)은 1861년 농노개혁후 반동세력의 탄압이 가혹해지고 자유주의적작가들이 투쟁무대에서 물러서던 시기에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농노제잔재와 자본주의적관계를 예리한 풍자적수법으로 무자비하게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로씨야의 재능있는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고골리의 풍자를 계승하여 그것을 자본주의 악덕이 전면에 나타난 시기의 로씨야현실을 비판하는데로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는 첫 작품인 중편소설 《모순》(1847)에서부터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격분과 항의를 뚜렷이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두번째 작품인 중편소설 《영크러진 사건》(1848)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이 소설에서 그는 현사회를 오직 혁명적방법으로써만,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써만 개조할수 있다는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후 그는 단편소설집 《한 도시의 력사》(1870)를 창작하여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쳤으며 1876년에는 장편소설 《고결한 언변》을 내놓아 작가적재능을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주인공 제루노브의 형상을 통하여 《고결한 언변》으로 자기의 모든 추악성을 가리우고 계속되는 죄악으로 치부해가는 로씨야부르조아지의 본질을 예리한 풍자적수법으로 드러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창작성과에 기초하여 1879년에 장편소설 《골로블료브일가의 제씨들》을 썼는데 이것은 그의 창작의 대표작이며 창작적총화로 된다.

《골로블료브일가의 제씨들》에서 비판의 초점으로 된것은 지주이다. 지주 골로블료브일가의 3대에 걸친 멸망과정은 착취가 무위도식을 낳고 무위도식이 무능력과 무기력, 타락을 빚어내는 로씨야지주들의 멸망 그대로이다.

로씨야지주들의 이러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뽀르피리이다. 그는 지주로서 뿐아니라 야수적인 략탈성, 기생충적근성, 허위와

위선, 공담과 배신, 인간증오사상 등 착취계급이 가지고있는 온갖 부정적인 성격적특질을 온몸에 다 갖추고있다.

작가는 뽀르피리의 형상에서 지주의 멸망의 원인을 보여준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지의 멸망의 원인까지도 파고들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부르조아지도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위한 그 어떤 긍정적리상도 가질수없으며 긍정적리상이 없는 무위도식자는 무능해지고 타락하기마련이라는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자기의 어느 작품에서도 긍정적 인물, 시대의 주인공—영웅을 그리지 않았다. 그는 혁명적민주주의자였으나 체르니шев스끼나네 크라쓰브처럼 리상적인 인물을 그리지 않았으며 고골리의 본을 따라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예리한 풍자적필치로 봉건적, 자본주의적로씨야를 무자비하게 비판하였다. 바로 여기에 그의 창작의 근본특성이 있는것이다.

살띠꼬브—셰드린은 자기 시대에 가장 알맞은 예술적수법을 풍자라고 생각하고 시종일관 풍자적수법을 널리 활용하였다.

그의 풍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웃음이 없는 풍자이며 모든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보는데 있다. 즉 진리의 기준을 기존도덕의 규범에서가 아니라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서 찾는데 있다. 그는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을 그 성격이 저지룰수 있는 한도의 끝까지 끝고가는 파장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띠우게 하는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움에 전율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멸망해가는자에 대한 그 어떤 련민의 감정도 품을수 없었던 19세기 70~80년대의 로씨야현실을 부정한 살띠꼬브—셰드린의 풍자의 독특한 수법이였다.

살띠꼬브—셰드린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지향하면서도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념원과 실천적인 투쟁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히 쓰디쓴 환멸로 부패한 착취사회를 부정만 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들에 비판주의적색채가 흐르고 있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발로시켰지만 로씨야 당대 사회의 진면모를 생동한 사실주의적필치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로씨야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탐사대원의 노래

리영복

한해도 저물고  
하루해도 저무는 이 저녁  
인적없는 외진 산골짜기  
탐사대가 사는 소박한 천막집에서  
나는 정든 집에 회답을 쓴다  
기다리는 안해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단란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휴식일이면 공원과 유원지로  
행복의 노래 한껏 저어가고싶다만  
어찌하랴  
나의 직업이 탐사대원인데야  
조국의 《척후병》인데야

아이들의 작은 놀이감으로부터  
숲을 이룬 거창한 철의 기지들  
이 땅의 천만재부 그 모든것은  
다름아닌 탐사대원!  
우리가 묵묵히 조국에 섬긴것 아니던가

사람들이 행복의 지붕아래서  
웃음의 꽃을 떨기떨기 피울 때  
우리는 탄전과 제철소  
이 나라 천만초소들이 기다리는  
《탄약》을 섬기려  
밀림과 초원, 계곡과 절벽을 돌아오른다  
이슬에 옷자락적시며

버들개지 움틀무렵 산에 오르면  
첫눈이 내릴 때 시료배낭 지고  
산을 내린다

폭우에 젖어 사나운 번개와 마주 웃으며  
생소한 골짜기와 산마루에  
탐사의 발자국 찍어갔거니

변덕 많고 심술궂은 자연과 싸우며  
수억만년 완고히 숨겨온  
지하의 보물을 찾아내며  
조국의 미래에 넘겨주는  
탐사대원 우리보다  
더 궁지로운 직업 나는 모른다

우리의 로동과 위훈  
사람들 다는 몰라도  
그때문에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마음을 날마다 비춰보며 산다  
사람들 무심히 대하는 발파소리도  
새 광산, 새 생활이 태어나는 고고성으로  
우리는 궁지높이 들으며 사나니

섬섬해말라  
안해여 자식들이여  
선군시대에 보다 몇몇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저  
이 시각 집 떠나 멀리 있음을

무성한 숲처럼 가득차 빛을 뿜는  
조국의 거창한 근로의 창조물들은  
탐사대원의 발자욱에서 시작되었음을  
나는 한해와 속삭이며  
정든 집에 편지를 부치노라

## 상식

## 강호문학

봉건시기 문인들이 벼슬을 그만두고 산촌에 내려가 살면서 강과 호수 등 자연을 찬미하여 쓴 작품 또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문학. 일명 전원시라고도 한다. 강호문학작품들은 대체로 고려 중엽이후시기부터 창작되었으며 15~16세기경에는 하나의 경향성을 이루었다. 강호문학은 주로 봉건 사회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물러났거나 지배계급들사이의 세력다툼으로 밀려난 량반출신의 문인들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창작한 문학이다.

15세기에 나온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정극인의 《상춘곡》, 16세기 리현보, 권호문의 시가작품들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며 17세기 신흥, 윤선도 등이 쓴 일련의 작품들도 그 례로 들수 있다.

강호문학작품들가운데는 윤선도의 《산중신곡》에서와 같이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생활을 보여주면서 불만과 울분의 감정을 반영한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도피적이며 관조적인 경향이 짙은 것으로 특징적이다.



## 《꽃왕을 충고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우화소설 《꽃왕을 충고한다》(《화왕계》)가 우리 나라 의인소설발생기에 나온것은 세계에 널리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수 없다.

설총(7세기 후반기—8세기초에 활동한 재능있는 작가이며 학자)의 우화소설 《꽃왕을 충고한다》는 설총이 장마철이 지나간 어느날 자기의 울적한 기분을 풀기 위하여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신문왕의 부탁을 받고 한 말을 후에 기록한것으로 되어있다.

작품에는 모란꽃, 할미꽃, 장미꽃이 등장하는데 모란꽃은 왕으로, 장미꽃은 젊고 어여쁜 녀인으로, 할미꽃은 소박하고 강직한 늙은 장부로 의인화되어있다.

의인화된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작품은 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왕의 그릇된 정사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풍유하고있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는 이렇게 되어있다.

봄이 되자 꽃동산의 꽃왕으로 모란꽃이 되었다. 주변의 여러 꽃들이 앞을 다투어 꽃왕을 찾아와 시중을 들겠다고 간청하였다. 그가운데는 붉은 입술에 백옥같은 흰 이를 드러내고 하늘거리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간사한 걸음으로 간들거리며 걸어오는 미인인 장미꽃과 벼룩에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으며 두벅두벅 걸어오는 흰머리의 늙은 장부 할미꽃도 있었다.

장미꽃은 왕을 보고 《왕의 높은 덕을 듣자웁고 향기로운 장막속에서 시중을 들고저 하오니 그 소원을 풀어주소.》 하고 간청하였다.

이와는 달리 할미꽃은 자기같은 천하고 늙은것도 필요한데 있으니 써주지 않겠는가 하고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가 꽃왕에게 들중에서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쓰겠는가 하고 하였다. 꽃왕은 할미꽃의 말이 옳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장미꽃의 아름다운 얼굴과 아양에 끌리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 왕의 태도를 지켜보던 할미꽃은 자기가 여기에 찾아온것은 왕의 덕망이 높다고 하기에 온것인데 실지로 왕의 행동과 처사를 당하고 보니 멀리서 듣기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돌아가겠

다고 하였다. 그 말에 비로소 꽃왕은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뉘우쳤다. ...

작품의 모란꽃은 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봉건국가의 왕을 의인화한 형상이다. 꽃왕은 보기에 는 아름답고 《덕》이 높은 존재같으나 사실은 부화방탕하고 암매한자이다. 그는 장미꽃과 같이 요염하고 아양을 떠는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를 가까이하고 할미꽃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봉건군주이다. 장미꽃 역시 부정인물로 등장한다.

장미꽃은 꽃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어당기기 위해 아양을 떨며 아첨한다. 그는 권세를 부리며 부패한 생활을 지속하려고 날뛰는 요부의 성격적 특질을 체현하고있다. 장미꽃의 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아부아첨과 출세욕 그리고 방탕한 생활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다.

작품에서는 장미꽃과 꽃왕과의 관계를 통하여 봉건군주를 비롯한 반동통치배들의 부패한 정신 도덕적측면과 생활리면을 잘 드러내 보이고있다.

작품에서 충실한 신하로 형상된 긍정인물—할미꽃은 작가의 립장과 리상을 대변하고있다. 물론 할미꽃의 형상에는 작가자신의 세계관상 제한성이 반영되어있다.

작품에서 할미꽃은 천대받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형상에는 이르지 못하고있다. 그는 초야에 묻혀있다가 자진하여 꽃왕을 찾아와서 자기를 등용하기 바라는 인물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사회적 처지, 교양, 체험 등으로 당대 봉건지배계급의 악정과 부패타락한 현상을 일정하게 비판하고있기는 하나 《청렴》한 생활을 지향하는데 머물고있을뿐 봉건제도 그자체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는다.

작품은 비록 이러한 제한성이 있지만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이 시기의 의의있는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것은 우선 작중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실감있는 묘사를 주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특히 장미꽃에 대한 초상묘사와 행동묘사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주홍빛을 띤 얼굴이며 미소어린 입가, 해사한 입술과 흰 이발—이것이 장미꽃의 초상묘사이다.

고운 옷을 말쑥히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오는 간사한 걸음씨, 왕앞에 공손히 다가가서 시중들기를 청하는 그 모습—이것이 장미꽃의 행동묘사이다.

작품은 또한 하나의 대사형상을 통해서도 작중 인물의 정신세계를 실감있게 잘 드러내고있다.

레를 들면 할미꽃이 꽃왕인 모란꽃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를 충고하는 대사는 할미꽃의 내면 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우화소설 《꽃왕을 충고한다》는 이야기가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전개되어있으며 작가의 허구에 의한 사건설정과 예술적묘사가 주어져있다. 뿐만아니라 당대사회의 주요계급과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의 전형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이 창조되고있어 당시로서는 우수한 작품으로 볼수 있다.

더우기 이 작품은 우리 나라에서 의인소설발생의 초기작품의 하나로서 예리한 사회정치적문제 의 제기와 신랄한 풍자, 비유로 봉건군주와 간사한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인소설이발생초기부터 비판적경향을 띠고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꽃왕을 충고한다》는 리이순(1754—1832)의 《꽃왕전》(《화왕전》)과 작가불명의 운문의인소설 《꽃왕의 노래》(《화왕가》), 립제의 중편의인소설 《꽃력사》와 더불어 하나의 소설군을 이루는 시초 작품으로 되고있다.

박문남

## 내 고향의 밝은 표정

주경

피로우면 눈물도 흘리고  
기쁘면 웃기도 하는줄  
내 알고나 살았던가  
땅이여!

오늘은 네가 웃누나  
끝없이 파도치며  
금빛웃자락을 날리며

수수만년 이 땅우에 해는 솟았어도  
빼기농사의 그늘 가서준적 없었고  
부지런한 농민의 호미가락도  
너의 주름살 하나 바로 퍼줄수 없었거니

그 그늘과 어제날의 흔적을  
말끔히 가서주신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해빛같은 그 사랑속에  
온통 웃음이 병글었구나  
드넓은 전야엔 기계화의 발동소리  
들판에 넘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이제는 서해별방 사람들이  
강원땅을 부러워하겠다고  
그리고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 미소  
나락우에 실려 흥치며 일렁이는  
일망무제한 전야여

세세년년 잠자던 이 땅우에  
전변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그 사랑에 땅이 웃으니  
너를 가꾸는 농민이 허리를 펴고 웃는  
별과 별의 한끝은 어데인가

가슴벌게 안아보노라  
끝없이 펼쳐진 나락이여  
팔팔 흰쌀마냥 쏟아져내리는 관개수  
출렁출렁 흐르는 천리수로를 따라  
산에 취해 산에 살던 산새들이  
별에 취해 들새가 되어 날으는 땅이여

이 산골 저 산골에서  
올려오던 소방울소리는  
왈랑질랑 금방울처럼 영근  
이삭의 물결로 정다웁고  
해빛도 금나락우에서 춤을 추는  
땅이 웃어 하늘도 웃는  
내 고향 동해의 드넓은 벌이여

오 그 어떤 먹구름이 너를 가리우랴  
그 어떤 비바람이 너를 흐리우랴  
너는 우리 장군님 해빛같은 미소로 가꾸어  
가시는  
내 고향의 밝은 표정  
나날이 젊어지는 이 땅의 표정이여라

# 향토

리영

내 첫걸음마 내디딘 그날로부터  
청춘의 한시절  
들이며 언덕  
발이랑 그 어디엔들  
아니 새긴 자욱 있으랴

지금도 눈에 선한  
싱싱한 통배추밭이며  
시금치 싹을 내밀던 새피벌이여  
너는 지금 나를 알아보겠는지  
10대의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내 귀밑에도 흰서리가 없히누나

너를 떠나 새 일터에서 살았어도  
내 너를 잊지 못했노라  
타고장도 정들면 고향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더구나 나에겐  
그 어떤 고향도  
고향만은 대신 못하더구나

그래서 고향추억은  
류달리 정깊은 추억뿐이더나  
무우밭고랑에 물을 대며 헤덤비던 생각하면  
그날처럼 서툰일 오늘엔 없는지

## 작가일화

## 명성이 있어 화를 면하다

리석형(조선봉건왕조 전반기의 시인)은 1451년에 직제학으로 되었다가 전라도 관찰사로 지방에 나가 있을 때에 성삼문 등 《사6신》들이 참변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집현전에 있던 시기 성삼문, 박팽년 등과 친교가 깊었던 그는 도내 여러 고을을 순찰하던중 익산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절개를 찬양하는 시 한수를 썼다. 그 시가 바로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알려지고있는 《생각한바 있어》이다.

옛날에 절개지킨 너인들  
푸른 대가 되고  
추위를 참는 술 존경을 받았다네

슬픔과 영화야  
때에 따라 다르지만  
시절이 변한다고  
그 마음 변할소나

※ 푸른 대—옛날에 남편을 위하여 절개를 지켜 강물에 빠져죽은 두 여인이 강가에 자라는 푸

웃음속에 마음도 다잡군 해라

태를 묻고  
한시절의 추억이 있어 고향이던가  
첫걸음마 내질던 트랙에서  
내 조국의 푸른하늘을 가슴에 새겼고  
내 손으로 처음 가꾼  
이삭을 안아 조국에 올리며  
이 땅에 바치는 삶의 넋을 키운 곳

향토의 대지에선 난알만이 자라지 않았다  
조국을 위해 살줄 아는  
참다운 인생도 자라고  
한생 번치 않을 애국의 자욱이  
시작되는 첫기슭이 아니던가  
나의 향토여

먼곳에 산대도  
떴떴이 고향을 추억할수 있는 생은  
행복한 삶이여라  
향토에서 시작된 애국의 자욱 변함없이  
이 세상 한끝에서 생을 마친대도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향토는 영원히 잊지않노라

른 대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는 시에서 세조에게 살해된 《사6신》들의 절개를 은유적인 수법으로 찬양하였다. 그는 이 시를 자기 집의 벽에 걸어놓고 《사6신》들을 못 잊어하였다. 사헌부의 관리들이 이 사실을 세조에게 고해바쳤다.

《음, 그놈도 한쪽이란 말인가? 당장 잡아들여 룡지쳐참찰지어다!》

세조는 악에 받쳐 고향을 질렀다. 하지만 다음 순간 피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가만, 리석형마저 함부로 다쳤다가는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수 있다. 학식과 문필, 덕행에서 명망이 어지간한 그를 경솔하게 처리하다가는 술한 신하들의 불평을 살수도 있지 않은가. 가뜩이나 이런저런 요설들이 많은 판에...)

세조는 생각을 고쳐먹고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다, 그놈은 당분간 다치지 말고 놓아두라!》

이리하여 리석형은 다행히 화를 면할수 있었다.

##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부른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이라는 거창한 사변은 올해 우리 문학 운동에도 깊은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알찬 문학작품들로 공화국창건 60돐을 기념한 뜻깊은 여운을 안고 올해가 저물어갑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작가들은 진심으로 자기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노래할줄 알아야 합니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올해를 뒤돌아보니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우리 《조선문학》잡지와 더불어 조국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며 걸어온 수많은 작가들의 자욱자욱이 가슴 벅차게 안겨옵니다.

《조선문학》잡지 지면의 한페이지, 한페이지를 추억 속에 번져보느라니 격동적인 사변으로 가득찬 시대의 숨결을 시구절에 담고 시대의 인간전형들을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새겨준 소설문학과 함께 작가들의 걸음걸음을 채찍질해주며 함께 걸어온 평론문학도 다 자기의 음향을 뚜렷이 울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문학》잡지에는 단편소설 《열다섯 번째 해》(백보흠), 《봄소나기》(백남룡), 《움트는 아침》(박찬은), 《민음의 세계》(김룡연)와 같은 훌륭한 수령형상소설작품들이 실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덕망의 위대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기여하고 독자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수십편의 일반단편소설들도 주제의 참신성과 구성의 독특함 등으로 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올해 문단계의 성과로 특기하고싶은것은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소설들의 대부분이 신인작가들의 작품들이라는것입니다. 신인들과 함께 걸어온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인들의 작품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단편소설 《숲에 깃든 녀》(백명길), 《병풍덕》(정금녀), 《적동색머리수건》(황용남), 《대지의 눈》(박경원), 《다시 찾은 열쇠》(김경일), 《들국화 서른일곱송이》(김혜인), 《가풍》(량정수), 《군고구마매대》(김승제), 《이 땅은 넓다》(박경철), 《초소》(김홍균), 《퇴근길에서》(김기범) 등 수많은 작품들이 30대안팎의 신인들이 창작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중에는 성과작으로 꼽히우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 시원치 못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번에는

보다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을 그들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에서 귀중히 여기는것입니다.

우리 문학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이들 신인들의 첫걸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어온 올해의 《조선문학》잡지의 소설들을 돌이켜보면서 첫걸음을 멋있게 뗐다고 자만해서도 안되며 그리 여운이 남지 않는 시작으로 하여 신심을 잃어서도 안된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한편의 시를 위해 온 해를 바쳐온 우리 시인들에 의해 올해에도 우리 《조선문학》에는 좋은 시작품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시 《추운날 더운날》(김정순), 《아들과 딸》(렴형미), 《무재봉에서》(리찬호), 시초 《선군시대 너인들》(도명희), 시 《오리알이야기》(리태식), 《흙에 대한 담시》(문동식), 련시 《아들이 왔다》(박철), 시 《선군장정에 드리는 시》(김정곤), 시초 《고향길》(최준경) 등 시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개성이 엿보이는 많은 시작품들이 《조선문학》의 지면들을 훌륭히 장식하였습니다.

올해에 평론가들도 당당히 선군문학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머리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에 선군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자》로부터 시작하여 론설 《수령영생문학의 새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최연경),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예술적탐구》(박춘택), 평론 《강성대국의 찬란한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예술적형상》(김정철), 《위인의 〈하루길〉에 대한 감동깊은 서정의 세계》(김봉민),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리창유)을 비롯하여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걸는 선군문학운동에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러일으켜주며 평론가들도 자신들의 보람있는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또한 올해 《조선문학》지면에는 특색있는 기행수필 《백두산찬가》(리명)와 수필 《조국과 나의 가정》(최남순)과 같은 여운이 짙은 예술산문들도 이채롭게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 자욱자욱을 따라 걸으며 심장의 불을 터친 작가들의 호소에 발맞추어 천리마체강련합기업소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특집을 비롯하여 의의있고 뜻이 깊은 편집물들도 매 호마다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작들이 모여 올해 《조선문학》잡지의 총적목표였던 9호(특간호)가 문제작, 명작들로 멋지게 편집될수 있었다고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됩니다.

새해 주체98(2009)년 역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의 해로 될것입니다.

이 벽찬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정의롭고 진실한 필봉으로 선군시대의 위대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글줄들에 담아 힘있게 구가할 영예로운 사명은 의연히 우리 작가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것

입니다.

작가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창작하는 모든 작품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작품마다에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심고 모두 성과작으로 창작해내기 위해 적극 힘써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벽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함께 걷고 숨쉬고 쓴 작가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기 위해 노력한 우리 《조선문학》편집부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는데 크게 기여한 많은 작가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새해에도 우리 문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우리 조국의 문학사에 당당히 오를 자기 얼굴이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줄것을 호소합니다.